



4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4호

(루게 498)



◇◇◇◇◇◇◇◇◇◇

차 례

◇◇◇◇◇◇◇◇◇◇

| | |
|--|----|
| 축원의 노래 | 4 |
| 어버이수령님 | 5 |
| 그날의 전사들을 그리시며 | 5 |
| 한마음 우러러 높이 오시네 | 6 |
| 보슬비 보슬비 | 6 |
| 맑은 물 | 7 |
|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탐구 | 16 |
| 김일성 주석의 탄생기념일 | 21 |
| 광휘로운 주체의 빛발로 건국의 주춧돌을 마련한 불멸의 화폭 | 22 |
| 언제나 한숨결로 | 28 |
| 불멸의 업적, 빛나는 령도 | 29 |
| 뜻깊은 산천아! | 31 |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의 나날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4) | 32 |
| 빛나는 글발 | 34 |
| 만경대로 가시던 날 | 34 |
| 소사하 깊은 밤에 | 35 |
|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 36 |
| 작고 평범한 생활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철학적 세계를 밝힌 명가사 | 36 |
| 대동강 맑은 물결아 | 38 |
| 백두산을 찾아서 | 39 |

| | |
|-----------------------------|----|
| 대동강반에서 | 41 |
| 알려지지 않은 위훈 | 42 |
| 그 감탄, 그 부러움 속에 (외 1 편)..... | 52 |
| 가장 아름다운 불빛 | 52 |
| 우리에게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 53 |
| 오늘의 거리를 찾아서 | 54 |
| 요람..... | 56 |
| 영웅의 아들..... | 57 |
| 작별(외 1 편)..... | 59 |
| 사나이들!..... | 59 |
| 응석..... | 60 |
| 언제나 밝은 구내 | 61 |
| 어제도 오늘도 | 62 |
| 건설의 밤..... | 68 |
| 북변의 기적소리 (외 2 편)..... | 72 |
| 믿음..... | 72 |
| 청춘과 사랑 | 73 |
| 남해가 해녀의 노래 | 73 |
| 대동강흐름 | 74 |
| 세월과 인생 | 75 |
| 내나라..... | 76 |
| 희망에 대한 생각 | 79 |

축원의 노래

방만필

4 월의 명절이 오면
우리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나니
우리 수령님
인민의 간절한 축원속에 이제는
만시름 잊으시고 편히 쉬시옵기를

수령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신 인민이기에
해가 갈수록
소원은 더더욱 커만잡니다
우리 수령님
인민의 행복속에서
해처럼 웃으시면
온 나라가 기뻐하기에
그것이 오직 하나 우리의 념원이기에

아버이수령님 원하시는것
이제는 우리 압니다
물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보석주단우로 옥동자를 안고가는
그 밝은 웃음을 보시면서
우리 수령님 왜 그리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였습니까
외국방문의 먼 로정에 오르신 그날에도
빙상관을 그려보시고
종합탈곡기가 달리는 백리 포전도 생각하시며
가슴속에 그것을 소중히 새겨넣으신것은

그래서 오, 그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빙상관과 산원을 세우신 그날도
김일성경기장과 창광원을 마련하신 그날도
우리 수령님
그리도 기뻐시여
환하게 웃으신것이 아니옵니까

기뻐니다 기뻐니다

수령님께서 기뻐서 웃으시면
온 나라가 명절처럼 즐거웁거니
그래서 우리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그 일밖에는
그 일밖에는...

하건만 우리 수령님
한시라도 어디 쉬시옵니까
순천의 건설장도 몸소 찾으시고
새로 만든 농기제도 보아주시며
한시라도 인민의 생활을 두고 마음 못놓으시나니

어디엔들 안가셨습니까
광복거리 건설장,
봄비 내리는 두렁길이며
《전진》호 트랙토르가 달리는 산골포전도
찾으시고
치너트랙토르운전수의 목소리도 들어보시며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이 세상 끝에라도 가고가시는 수령님
이제는 쉬여주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효성많은 아들딸들로 인민을 이룬 이 땅에선
소원은 오로지 그것뿐이옵니다

비날론폭포가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다
쌀풍년, 고기풍년이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다
세기의 환호성속에
13 차축전의 막은 열리고
온 세계가 수령님께 축원의 노래 드리려니

오, 인민이 드리는 노래속에
인류가 올리는 축원속에
부디 천년만년 장수하십시오
그것이 인민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인민의 축원입니다!

어버이수령님

박성선

봄빛 넘친 이 땅에
삶을 주시고
희망 넘친 나날로
한생을 이어주시는
그 은정에 목매여 부릅니다
어버이수령님

철이 들수록
머리에 흰서리 내릴수록
더더욱 가슴속에 진정으로 차오르는 그 부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내 어린 손자에도
백발이 성성한 나의 어머니도
하나같이 부르는 그 목소리에
인민의 효성이 어리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모두를
오직 친아들딸로
위대한 그 한품에 다 안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

눈보라 세쫓던 그날에도
불비 쏟아지던 그날에도

언제나 안고계셨습니다
행복한 오늘에도 더 좋은 래일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어버이수령님

어버이라 부르웁니다
정을 다하여
한생을 다하여
오늘도
래일도
온 세상이 그렇게 부르웁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도
오직 한분 그이만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천세만세 따를 마음입니다
효성중에서도
가장 지극한 효성을 다하며

아, 수령님 그 품속에서
세상에 첫 생을 받은
우리 조국이
그리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높이 모시고 부르웁니다
어버이수령님!

그날의 전사들을 그리시며

서봉제

숲푸른 백두산밀영
옛 대원실 프락에
걸음 멈추신 어버이수령님
마당가의 애솔잎 조용히 만지신다

마흔다섯해전 그 나날처럼
싱그러히 풍기는 가문비향기
추녀밑에 날아드는 산새의 무리
마음속 추억의 금선을 흔드는가

흘러온 세월의 풍상에
동기와지붕에도 이끼 내리고
마당가 그날의 애솔 아름답게 자랐건만
못잊을 전사들을 그리시는 수령님

누구는 유격대의 소문난 도끼목수로
하루새 이 밀영을 지었다고
또 누구는 노래 잘하고 글씨도 잘 써서
여기 밀영에 구호목도 많이 남겼다고

창문너머 통나무벽밑에 나란히 놓인
 풀물오른 대원들의 저 배낭
 열다섯자루의 보총도 눈으로 세여보시며
 하나하나 그리움에 찾아외우시는
 전사들의 그 이름

밀영을 떠난지도
 어언 50년 세월이 가까이 되니
 오지 못한 전사들도 많고
 함께 고생하다 오늘에 못왔다하시며
 그러히도 가슴아파 불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아, 설한풍 모질던 백두광야
 만리설원에 열혈의 몸은 갇어도
 오지 못한 전사들의 그 길 이어주시며
 여기 백두산밀영 친위대원실의 옛 프락에

다시금 세워주시는 위대한 사랑이여
 뜨거운 걱정애 솟구치며
 소백수 맑은 물도 굽이치고
 그리웠던 수령님의 한품에
 파도치며 달려오는 백두밀림

이 의지로 어깨결고
 신념으로 새겨온 백두광야의 험한 길
 살아온 생은 짧았어도
 자기 심장에 한번 다진 맹세
 변심없는 의리로 지켜온 전사만이
 우리 수령님의 한품에
 영생할수 있구나!
 못잊을 충신들의 영원한 그 모습
 설레는 백두밀림은 자랑으로 전해주고있구나!

◇가사2편◇

한마음 우러러 높이 오시네

안창만

이 강산에 새날을 밝혀주셨다고
 우리는 수령님을 태양이라 부르네
 4월의 그 아침 붉게 동틀 때
 인민의 마음에 해가 솟았네

인민의 모든 소원 꽃피워주신다고
 우리는 수령님을 태양이라 부르네

한평생 걸어오신 사랑의 그 자욱
 내 나라의 땅이 되고 행복 되었네

수령님 계시여 이 세월 빛난다고
 만민은 그이를 태양이라 부르네
 바다건너 한끝까지 삶의 빛 주시니
 자주위 새 세계 누리에 펼치네

보슬비 보슬비

김송남

보슬비 보슬비
 농장벌에 오는 비
 봄소식 속삭이며 네가 내리면
 잊지 못할 그 생각 수령님 생각
 비에 젖는 봄썩처럼 푸르러지네

보슬비 보슬비
 그날에도 오던 비
 수령님 옷자락 적시였었지

그 얼마나 좋은가 풍년비가 온다고
 랭상모판 푸른썩도 세여보셨네

보슬비 보슬비
 그맘때면 오는 비
 봄썩을 불러내며 속삭일 때면
 농장벌도 푸르고 이 가슴도 푸르러
 수령님 다시 모실 풍년가을 그리네

맑은 물

김형지

1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지휘부 책임일꾼들 중의 한사람인 리규석은 웃는 일이 드물었다. 위낙 무뚝뚝한 성미인데다가 한생을 건설사업에 바쳐오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더 과묵해졌다.

한데 오늘아침 리규석은 여느때없이 만면에 웃음을 담고 지휘부를 나섰다. 그런 리규석을 보고 누구보다 놀란것은 승용차운전사였다. 그의 승용차를 10여년째 끌고있지만 오늘아침처럼 희색이 만면한 리규석을 처음보는 그였다.

운전사도 대번 기분이 좋아져서 얼른 승용차앞 문을 열어주었다.

리규석은 앞자리에 올라앉으며 한마디 했다.

《아카시아꽃이 참 좋구만. 막 취할것 같은 데.》

운전사에게는 그 말도 뜻밖이었다. 리규석의 입에서 꽃이나 노을과 같은 정서적인 말이 나올 수 있다고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꽃을 좋아합니까?》

운전사가 자못 반가와 자기자리에 들어가 앉으며 묻자 규석이는 물음으로 대답했다.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소?》

《10여년만에 처음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허, 그렇소? 하긴 건설자들은 꽃계절이나 단풍계절을 잊고 살지. 건설을 다그쳐야 할 계절이니까. 그대신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이나 매운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철에 대해선 몹시 신경을 쓰지. 그런 때도 건설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요.》

운전사는 피식 웃으며 발동을 걸었다. 꽃이야기는 벌써 끝나고 건설이야기가 시작된것이다. 이제부터 밤까지, 어쩌면 래일새벽까지 《빨리!》라는 한마디의 말만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리규석은 가방을 뒤자리에 놓고 나서 무릎우에 올려놓은 보자기를 불안으며 재촉했다.

《빨리 가자구.》

운전사는 마지 못해 경사급한 언덕길을 조심히 내리면서 물었다.

《어데로 가십니까? 카바이드구역입니까? 비날론구역...?》

《평양으로!》

리규석은 참지 못하고 운전사의 말허리를 끊었다.

운전사는 별로 탓하는 기색도 없이 승용차를 몰았다.

리규석은 포장한 큰길에 나서서도 시속 60키로미터 속도로 달리는 운전사를 보다못해 다시금 재촉했다.

《더 밟소!》

《더 밟아도 굴러가지 날아가진 못합니다.》

《동문 이게 뭔지 알거나 하고 그렇게 늘어진 소릴 하오?》

리규석이 약간 언성을 높였지만 운전사는 들은 체도 않고 여전히 평속으로 차를 몰았다. 이제 한 마디만 더 하면 운전사는 언제나와같이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멘다는 속담을 주어섬길것이었다.

리규석은 운전사의 그런 성미를 잘 알고있었지만 다급한 마음을 달랠길이 없어 안고있던 보자기를 들어보이며 한마디 더 했다.

《이게 완전히 무해화된 폐수란 말이요. 완전히 무해화된 폐수!》

《예?!》

운전사는 그제야 리규석을 돌아보았다. 일순간 비껴던 놀라움은 금시 사라지고 그의 눈에서는 기쁨이 찰랑거렸다.

리규석은 빙그레 웃었다. 운전사가 폐수문제에 그토록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었다는게 우선 반가웠다. 하지만 고쳐 생각해보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운전사도 건설사의 한사람인것만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의 운명과 관련되는 폐수처리문제에 관심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사실 설계단계때부터 얼마나 많은 논의를 벌려온 폐수 문제인가.

위낙 화학공업이라는게 유독성 시약들과 강한 산성물질들을 많이 쓰지만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그 규모가 방대하다보니 폐수 또한 시간당 수만립방메터를 헤아렸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학자, 기술자, 설계가들은 폐수처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 덕에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모형사관을 만들 때에는 폐수의 오염도를 인체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만큼 낮추는 성과를 이룩하였었다.

리규석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때문에 아버지수령님께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그였다.

몇달전이었다.

리규석은 수령님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모형사관을 보여드리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장건물들이 현대적 미감에 맞게 맵시있고 웅장화려하게 잘 설계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폐설물과 폐수처리 대책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시었다.

리규석은 신이나서 사판을 짚어가며 대전골과 좁은골에 저류지를 만들고 폐기폐설물을 잡아두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용량과 건설방법을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도 그안에도 동의하시면서 토언제로 하면 건설비도 적게 들것이라고 만족해하시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리규석은 시간당 수만립방메터의 방대한 폐수가 나오기때문에 폐설물처럼 잡아둘수가 없고 설사 막대한 자재와 로력을 들여 잡아둔다고 해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물이 불어나 어차피 넘쳐나기 마련이어서 그냥 대동강에 버리기로 하였다고 사실 대로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도 뜻밖이신듯 저으기 놀라며 되물으시는것이였다.

《폐수를 대동강에 버리겠다구?》

리규석은 그제야 자기가 폐수의 오염도를 상당한 정도로 낮추었다는것을 미처 보고드리지 못했다는것을 깨닫고 서둘러 말씀드렸다.

《수령님!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폐수의 오염도를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만큼 낮추었습니다.》

《그렇다?》

수령님께서도 이렇게 외우시며 지시봉을 사판 위에 놓고 일어나시더니 조용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시었다.

리규석은 자기들의 처사가 수령님께 시름을 안겨드렸다는것을 알아차렸으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내 가늠되지 않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채 침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었다.

《혹시 동무들은 우리가 광산들에 미광침전지 공사를 한 참다운 뜻을 잘 모르는게 아니요?》

《...》

리규석은 수령님께서 물으시는 의도가 이내 깨도되지 않아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수령님께서도 규석의 대답을 꼭 들으려 하신것은 아닌듯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우리는 금은보화에 환장을 한 왜놈들이 광산을 망탕 개발함으로써 고기 한마리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우리 나라 강하천들을 본래대로 복구하고 싶었던거요. 예날처럼 맑은 물이 흘러서 고기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게 말ियो. 그런데 동무들은 우리가 수십리 날바다를 막고 대동강의 단물을 잡아서 황해도일대와 새로 건설하는 간석지에 보내주려고 남포에 갑문을 건설하고있는줄을 잘 알면서도 완전히 무해화되지 않은 폐수를 대동강에 버리려 한단 말ियो?》

《...》

리규석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있었다. 그래서 안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기에 설계단 계때부터 폐수처리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온 그였고 폐수의 오염도를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만큼 낮추었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한 그였다.

하지만 깊은 시름을 안고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수령님앞에 서고보니 자기의 실책이 심심히 뇌우쳐졌다. 조금하계 모형사판을 만들기전에 폐수처리문제를 더 진지하게 연구했어야 했다. 아니 사판을 만들더라도 폐수처리문제를 미지수로 남겨 놓고 과학자, 기술자들더러 더 연구하게 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오늘과 같이 수령님께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을것이였다.

생각할수록 가슴저미는 자책감에 모대기던 리규석은 조용히 머리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수령님! 제가 엄중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

《규석동무!》

수령님께서도 마침내 창가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난 누구의 과오를 묻자는게 아니요. 또 지금 당장 폐수가 대동강에 흘러들고있는것도 아닌것만큼 과오랄것도 없소. 그러나 인체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만큼 폐수를 무해화했으니 대동강에 집어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동무들의 그 사상관점과 사업태도가 문제란 말ियो.》

《수령님! 물리적 방법으로는 그 이상...》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오. 오염도를 그 이상 낮출수 없다는거지? 그럴수도 있소. 그렇다면 공장건설을 중지하자고 제기하는게 옳지 시간당 수만립방메터의 폐수를 대동강에 처넣을 생각을 하면 되겠소? 사람들은 고사하고 대동강에 사는 물고기도 우리를 원망할거요. 후대들도 우리를 용서치 않을거구. 그러니 폐수처리방도가 정없으면 공장건설을 중지할수밖에 없소.》

《수령님!》

규석은 수령님곁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공장건설을 중지할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그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들렸다. 우리 수령님께서 어떻게 구상해오시고 어떻게 준비해오신 공장인데 바야흐로 시작한 건설을 중지하시자는것인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전국과학자대회를 소집하시고 비날론공업화문제를 발기하시였으며 친히 연구집단을 무어주시고 실험기구까지 수입해서 보내주신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려져있지만 바로 그 전쟁의 나날에 석회석과 무연탄이 무진장 매장되어있고 대동강을 끼고있어서 공업용수조건도 좋은 순천땅에 대화공업기지를 일떠세울 원래

한 구상을 무르익히신줄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그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첫 비날론공장이 일떠선 그해 가을에 열린 당 제4차대회에서 새공법으로 카바이드를 생산할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고 여러 해동안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신심을 잃고 주저있었을 때는 단순한 고무나 격려만이 아니라 친히 구체적인 연구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새 공법으로 카바이드를 생산하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때에 지체없이 순천땅에 대화합공업기지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미리 벽돌공장을 짓게 하시고 뒤이어 세멘트공장, 부재공장, 지어 보온제공장까지 세우시여 튼튼한 건설건재기지를 꾸려놓았을뿐아니라 그 과정에 강력한 건설부대까지 키워놓으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우리 과학자들이 새공법으로 카바이드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이제는 자신의 평생 소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면서 친히 순천땅에 나오시여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었다. 그리고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친히 자신께서 풀어주시며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한데 자신께서 바치신 사색과 탐구, 이루 헤아릴수 없는 로고를 잇으신듯 폐수처리방도가 없으면 공장건설을 중지할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 규석에게는 줄지에 온갖 빛이 없어진듯 앞이 캄캄하고 공기마저 희박해진듯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런 경황에서도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리규석의 어깨를 눌렀다. 그래서 외람된줄도 모르고 결연히 말씀드렸다.

《제가 관계부문일꾼들과 더 진지하게 토론해서 꼭 폐수처리방도를 찾아내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제야 천천히 돌아서시였다.

《물리적방법으로는 그 이상 오염도를 낮출수 없다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꼭 폐수를 완전히 무해화 하겠습니까.》

《웁소! 우리의 요구는 폐수를 완전히 무해화하는거요. 물리적 방법이든, 화학적 방법이든, 생물학적 방법이든. 그것은 아무래도 좋소. 필요하면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리용할수도 있을거요.》

문제는 대동강의 맑은 흐름을 철저하게 지켜주는것이요. 대동강에 단 한방울의 오염된 폐수도 집어넣을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뜻이란 말이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바로 당의 이런 의도를 전달하시오. 그러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폐수처리방도를 찾아낼거요. 찾아내구말구, 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믿소.》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넘친 그 뜨거운 말씀

을 리규석은 건설장에 돌아오자바람에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폐수연구집단을 못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풀어주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폐수를 완전히 무해화하는데 성공한것이다.

리규석은 펄듯이 기뻐다. 허나 서두르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가져온 실험분석표도 일일이 검토하였고 몇차례의 실험도 직접 해보고나서야 평양에 전화를 했다. 평양에서는 수령님께 보고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급히 올라오라는 지시였다. 그래서 떠난 길이었다.

한데 운전사는 언제나와같이 시속 60키로메터의 속도였다.

리규석은 할수없이 긴 이야기를 했다.

운전사는 처음에는 놀랐고 그다음에는 무척 기뻐했다.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굉장한 일을 했구만요!》

《그렇소. 이제 우리 수령님께서 완전히 무해화된 이 폐수를 보시면 아주 기뻐하실거요.》

《아니 그럼 수령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길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급 운전사의 솜씨를 뵈다가 뒷에 쓰겠습니까. 이런 때 쓰는거지.》

운전사는 자리를 고쳐앉더니 가속기를 지그시 밟았다.

리규석은 처음으로 《빨리!》 하고 독촉하지 않아도 되었다. 속도계의 바늘이 70, 80을 지나 90에 이르더니 거기서도 머물지 않고 100에 이르렀다.

하지만 리규석에게는 조금도 빠른감이 없었다.

수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실 시각을 단 1분이라도 더 앞당기고싶은 그였다.

그는 승용차가 련못동임구에 들어서서야 한시름 놓이는듯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2

수령님께서 몇달전에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모형사관을 보아주신 바로 그 방이었다.

규석은 그날 수령님께 크나큰 시름을 끼쳐드린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크나큰 기쁨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그는 매사에 빈구석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무던히 신경을 썼다. 나무함을 썼던 보자기는 포개여 가방에 넣고 나무함만 앞탁우에 내놓았다. 그리고 뚜껑을 연 다음 두개의 시약병을 조심히 꺼내서 다른 앞탁우에 놓았다. 그 앞탁에는 두개의

어항이 놓여있었는데 한 어항에서는 금붕어 두마리가 헤엄치고있고 다른 어항은 비어있었다. 빈어항앞에 고기를 뜯수 있는 자그마한 조리가 놓여있다.

규석은 수령님께서 시약병에 써붙인 《무해화된 폐수》라는 명찰을 한눈에 보실수 있도록 돌려놓고 가방에서 휴대용 소형록음기를 꺼내왔다.

그때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일군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다 준비되었습니다.》

규석은 이렇게 대답하였지만 그 어디에 미흡한 점이 없는가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그 일군은 진렬품을 세심하게 살렸지만 다행히 아무 말없이 되돌아나갔다.

규석은 그 일군이 나가자 넥타이며 옷섶을 바로 잡고 이제 수령님께서 들어서실 문가에 다가섰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한두번만 그이를 만나뵈옵지 않았건만 뵈옵게 될 때마다 흥분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는 그였다.

그는 애써 진정하려고 일부러 큰숨을 몰아쉬는데 수령님께서 만면에 밝은 미소를 담으시고 들어서시는것이였다.

《금방 전환 받았다는데 벌써 왔단 말ियो? 달려 온게 아니라 날아왔구만. 응? 허허...》

호탕하게 웃으시는 수령님께 규석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규석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면서 걱정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진 마오.》

《알겠습니다.》

《나한테 한시바삐 기쁜 소식을 전하자구 급히 달려온 동무의 심정을 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그러다가 사고를 치면 내 마음이 어떻겠소.》

《수령님!》

감동에 젖은 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인정깊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눈굽을 달구고 수령님의 그 깊은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장잡 운전사를 재촉하는 자신의 소행이 심심히 뉘우쳐져 가슴이 저려났다.

수령님께서서는 규석의 그런 민망스러운 속내까지 헤아리신듯 이내 말머리를 돌리셨다.

《하여간 고맙소. 어디 봅시다. 정말 폐수를 완전히 무해화했소?》

《예! 폐수연구실장동무는 사람은 물론 고기 한마리 상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허허... 그래서 어항까지 가져다 놓았구만.》

앞탁 앞으로 다가서신 수령님께서서는 《무해화된 폐수》라고 써붙인 시약병을 집어드시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다가 계속하시였다.

《눈으로 봐서야 무해화되었는지 어쩐지 알수가 있다. 어디 한번 시험해보오.》

수령님께서서는 시약병을 규석에게 내주시였다.

규석은 시약병을 받아 뚜껑을 열고 무해화된 폐수를 빈어항에 몽땅 쏟았다. 그리고 조리를 들고 다른 어항에서 노닐고있는 금붕어 한마리를 건져 내어 폐수를 쏟아부은 어항에 넣었다.

느닷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건설장 지휘부에 있는 자기방에서 몇번이나 시험해보았지만 금붕어가 죽지 않을가싶은 생각이 들었다.

로파심이였다. 금붕어는 그냥 꼬리를 치며 돌아갔다.

수령님께서서는 금붕어가 노니는양을 한동안 지켜보시다가 허리를 펴시며 만족해하시였다.

《멋있소! 아주 멋있소. 우리 과학자들이 대단하단 말ियो! 당에서 아파하는것이라면 어떤 어려운 과학기술적 문제라도 척척 잘 해결하거든. 장하오!》

《수령님!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생화학적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니 완전히 무해화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간 수고했소. 그런데 금붕어가 노는것만 보고서야 안심할수 있다. 열흘이나 한달, 아니 1년이나 2년후에 어떤 생태학적 변화가 생길지 누가 알겠소.》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야 규석은 얼굴을 붉혔다. 금붕어에만 신경을 쓰다나니 분석표는 가방에서 꺼내놓지도 못했던것이다.

리규석은 가방에서 황급히 분석표를 꺼내가지고 수령님께 드리며 말씀올렸다.

《여기에 분석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포함되어있는 유해물이 백분률로 표시되어있고 이쪽에는 무해화정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분석표를 받아들고 자세히 뜯어보시다가 앞탁우에 놓으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다 령이구만.》

《그렇습니다. 폐수는 순수한 물이 됩니다.》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건설장에 돌아가면 폐수를 완전히 무해화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규석은 허리를 펴며 힘있게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한시를 놓이시는듯 쏘파에 편안히 앉으시였다. 그리고 다리를 포개여놓고 한쪽 팔굽을 팔거리에 올려놓으시며 규석에게 물으시였다.

《이젠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요?》

《매개 생산공정에서 1차처리를 하구 다시 집수장에 모아놓고 2차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잘 생각했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두 번씩이나 처리하면 정말 사람이 마셔도 무방할만큼 깨끗해질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물은 대동강에 넣어도 절대로 오염되지 않을것입니다.》

《대동강에?》

《예. 과학자들은 대동강의 고기 한마리 잘못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과학자들이야 그랬을테지. 과학적으로는 폐수를 완전히 무해화했으니까.》

수령님께서는 뽀아드셨던 담배대를 그냥 놓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리고 말씀없이 뒤집을 지으시고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규석의 머리에는 몇달전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모형사관을 보아주시던 때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에는 기쁨을 드릴수 있을것만 같아 한시가 새롭게 달려온 걸음이 다스금 걱정을 끼쳐드리느것만 같아 간이 한줌만큼 졸아들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 무엇을 못마땅해 하시는지 쉬이 알수 없었다. 폐수를 쏟아넣은 어항에서는 지금도 금붕어가 보란듯이 꼬리를 치며 헤엄치고 있고 분석표에는 오염도가 모두 《0》으로 표시되어있다.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한데 어이하여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는것일까. 뭔가 수령님의 뜻을 옳게 받들지 못한게 분명한데 과연 무엇일까.

규석이 이렇게 안타까이 더듬는데 수령님께서 마침내 침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과학자들이 그런다고 동무까지 그러면 되겠소? 과학자들이야 폐수의 무해화정도를 담보하느라고 그러지만 동무야 나라살림 전반을 살펴야 할 사람이 아니요.》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규석은 그 뜻을 헤득할수 없어서 휴대용 록음기만 받쳐들고 있었다.

규석이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자 수령님께서는 일깨워주시듯 답답한 목소리로 계속하시였다.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수가 있는데 기계라고 어떻게 정상가동만 하겠소. 때로는 오동작을 할수도 있구 때로는 고장이 생길수도 있지 않소. 그때 나오는 폐수도 동무네가 분석표에 적어넣은 것처럼 오염도가 령이랄수 있겠소?》

그제야 규석은 눈앞이 아찔했다. 비정상운전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생각못한바가 아니었다. 생각했을뿐아니라 토론에도 붙였었다. 그러나 비정상운전일 경우에도 집수장에서 2차처리를 하기때문에 폐수를 무해화할수 있고 설사 완전히 무해화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시할수 있을만큼 오염도가 낮기때문에 대동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리라는 주장에 설복되고 말았다.

한데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께 다시금 크나큰 시름을 끼쳐드릴줄은 꿈에도 생각못한 그였다.

리규석은 빠져린 자책감만 서려들어 아무런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다.

수령님께서는 무거운 한숨을 지으시며 창가에 다가서시더니 가슴이 답답하싯듯 창가림을 제껴놓으시였다. 그리고는 그런듯이 창밖에 눈길을 주신채 서계셨다.

수령님께서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조용히 물으시였다.

《규석동문 지금 몇살이요?》

《올해 마흔여덟살입니다.》

《마흔여덟, 그러니까 전쟁맛을 잘 모르겠구만.》

《예. 더구나 미강점지에 살다보니...》

《이것보우. 규석동무!》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돌아서시였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규석동문 우리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르는게 아니요? 일본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으라고 얼마나 비싼대가를 치르었구 또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나는 피어린 그 투쟁과정을 직접 보아와서 그런지 우리 땅을 못쓰게 만들구 우리 강을 오염시키는것을 보면 생리적인 아픔을 느끼게 된단 말이요. 생리적인 아픔을. 그런데 동무들은 그런것 같지 않거든. 체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갈줄 알면서도 조국의 산, 조국의 강이 병이 드는것은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단 말이요. 난 그게 섭섭하오. 전번에 공장모형사관을 보아줄때도 알아들을만큼 이야기해주었는데 아직도 폐수를 대동강에 집어넣으려 하니 동무들의 처사가 섭섭하단 말이요. 대동강을 오염시킬 자그마한 요소가 있어두 당장 없애버리자고 제기해야 할 동무들이 1980년대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혁명의 수도를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을 오염시키려 하다니...》

《수령님!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리규석은 고뇌어린 수령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을수 없어 한마디 올렸다.

수령님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조용히 거니시며 말씀하시였다.

《생각이 짧았다기보다도 사고방식이 틀린것 같소. 조국의 일목일초를 자기의 살붙이처럼 생각하는데로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이요. 그래야 동무의 손가락을 못쓰게 만들려는 놈을 용서하지 않는것처럼 조국의 흙 한줌, 물 한방울 못쓰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서하지 않게 될거요.》

《수령님!》

리규석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북받쳐올라 수

령님을 목매여 불렀지만 뒤말을 잇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조국의 한 줌의 흙을 자기의 살점처럼 사랑하지 못했었다. 매 순간순간 마시고 사는 이 나라의 공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생각지 못했었다. 너무도 쉽게 차례진 것이어서 그 높은 가치를 망각하고 살며 일해 왔었다. 하기에 폐수처리문제를 애국, 애족적인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극히 기술실무적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리규석은 바로 이 점을 깨달았다.

리규석은 일단 깨달은 이상 즉시 생활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몸가짐을 바로 가지며 수령님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수령님! 선렬들이 목숨바쳐 찾았고 피를 흘리며 지켜낸 조국을 어떻게 가꾸고 꽃피워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립장에서 다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힘이 들어두 더 연구합시다.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후대들을 위해서도 아주 책임적인 사업이요. 바쁘다보니 나두 깊이 관심하지 못했는데 공장건설을 시작한 것만큼 다른 일을 미루더라도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겠소.》

《수령님!》

규석은 갑자기 눈곱이 저려났다. 응당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분과 초를 쪼개여 쓰시는 그이께서 폐수처리문제에까지 시간을 내시지 않을 수 없게 한 게 끝없이 죄송스러웠다.

한데도 수령님께서서는 힘을 주시려는 듯 규석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다.

《찾으려는 사람에게서는 방도가 꼭 나지는 법이요! 우리 함께 찾아보지요. 애로가 있거나 제기할 것이 있으면 아무때나 찾아오시오. 전화를 걸어두 좋구. 자, 그럼 수고하겠소.》

수령님께서서는 규석의 어깨를 짊 잡았다 놓으시고 집무실로 들어가시었다.

하지만 리규석은 이내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언제면 수령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을까. 수십년이나 그이의 품속에서 배우며 일해왔는데 아직도 얼마를 더 배우고 일해야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며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규석은 이런 생각을 하며 시름겨운 눈길을 창밖에 주었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한눈에 안겨 왔다. 한평생 보아오는 대동강이었지만 오늘따라 무심히 볼 수가 없었다.

(대동강아! 우리 수령님께서 너의 맑은 흐름을 지켜주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는지 알기나 하느냐?)

대동강은 대답하기라도 하듯 번쩍하고 빛났다.

해빛을 받아안고 흐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 구나 아름다웠다.

리규석은 것처럼 아름다운 대동강에 홀린 듯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3

리규석은 건설장에 돌아오자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고 폐수처리대책을 토론했다.

머칠 동안 거듭했으나 이렇다할 묘안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즈막에는 밥맛까지 잃었는데 다시금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었다.

규석은 저으기 긴장했다. 어느때 부르심을 받아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기쁨을 금할 수 없었지만 폐수처리대책을 찾지 못한 지금은 마음이 퍼그나 무거웠다.

그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일군앞에서조차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 모양이 심상치 않은지 그 일군은 어디 편찮은가고 물었다.

《아직 폐수처리방도를 찾지 못했는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보니...》

《허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령님께서 폐수처리문제 때문에 부르신 것 같진 않습니다. 연풍호에 점심식사준비를 해 놓으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연풍호에요? 그렇다면 수령님께서 안주지구에 새 공장을 건설하려는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주-숙천 일대의 자세한 지도를 찾으셔서 가져다드렸었는데 어제는 동암갑문을 건설하고 있는 인민군대 부대장을 불러서 만나셨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내 지금 수령님께 동무가 도착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일군은 되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리규석은 승용차 앞에서 서성거리며 생각했다. 연풍호, 안주-숙천 일대의 지도, 동암갑문을 건설하고 있는 인민군 부대장의 접견, 혹시 청천강에도 갑문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닐까.

리규석이 이런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렸다.

《왔구만. 하루 같이 지내자고 불렀소. 자, 어서 내 차에 오르오.》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겠지. 그렇지만 말동무도 할 겸 같이 타고 가자구.》

수령님의 따뜻한 권고에 못이겨 리규석은 그이의 옆자리에 올라앉았다.

날씨가 좋다고, 이런 날에는 곡식들이 소리치

며 자란다고 말씀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승용차가 전승동로타리를 돌아 보통강을 건널 때 차창밖으로 손짓을 하며 말씀하셨다.

《저것 보오. 낚시꾼들이 있으니 보통강의 풍치가 더 좋거든.》

《예...》

리규석의 대답은 시원치 못했다. 처음 생각대로 폐수를 대동강에 처넣었다라면 물고기를 멸살시켰을것이고 그러면 낚시꾼들도 자연 없어져서 대동강이나 보통강이 한산해질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번 했는가싶어 대답을 제대로 드릴수가 없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밝은 기분으로 물으시었다.

《건설장에선 쉬는날 뭘들 하오? 더러 대동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지 않소?》

《전 아직 낚시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허-그거 안됐구만. 낚시질재미도 모르고 살다니.》

《이제 배우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늘은 규석동무에게 낚시질하는법을 배워줘야 할가보군.》

리규석은 정녕 그랬으면싶었다. 낚시질하는법을 배우고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수령님께서 하루라도 휴식하셨으면 해서였다.

그래서 리규석은 폐수처리문제는 물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정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말씀 드리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도 사업적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숙천을 지나 문덕땅에 들어섰다.

수령님께서서는 하시던 낚시질이야기를 끊으시고 갑자기 승용차를 왼쪽으로 돌리라고 하시었다.

규석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왼쪽으로 가면 서해바다로 나가겠는데 그쪽에는 낚시질할만한곳이 있을상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도 수령님께서서는 승용차를 그냥 서쪽으로 물게 하시더니 마침내 서해바다가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하시었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득히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시다가 이고장태생 늪은 이 한분을 데려오게 하시었다.

늪은이가 도착하자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담배를 권하시더니 물도 흐르지 않는 앞도랑을 가리키며 이것이 안용강이 옳은가고 물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로인이 그렇다고 대답을 드리자 안용강과 그 앞바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만하면 자리를 괜찮게 잡은것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리규석은 수령님께서 무슨 자리를 괜찮게 잡았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하지

만 무덤하게 물을수도 없어서 그이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시 길을 떠났다.

수령님께서서는 안용강을 거슬러오르시었다. 때로는 승용차를 타시고 때로는 몸소 걸으시기도 하시었다.

리규석은 그제야 수령님께서 하루 같이 보내자는것이 단순한 산보길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왜 서해바다기슭 감탕판으로부터 꽤 먼길을 친히 밟아보시는지 도무지 대중할수가 없었다. 자기를 데리고 떠나신것을 보면 건설과 관련되는것 같기도 했지만 서해기슭 감탕판이나 안용강가에 그 무엇을 건설할 구상이신것 같지도 않았다. 규석이로서는 그 어디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찾아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어서 이 걸음이 끝나기만 바랬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산골길은 언제 걸어도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전쟁때를 회상하기도 하시고 보지 않던 나무나 풀을 보시면 친히 설명해주기도 하시면서 마냥 앞장에서 걸으시었다.

리규석은 참다 못해 이젠 그만 승용차에 올라 주실것을 간절하게 말씀드렸다.

《이젠 다 왔소. 오늘 산보는 저 고개마루에서 끝내자는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참말로 고개마루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얼굴이며 목의 땀을 훔치시었다.

그이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일군이 승용차에서 접이의자를 가져다가 소나무그늘에 놓아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규석에게 물으시었다.

《더러 여기로 지나다니적이 있소?》

《난생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고장입니다.》

《하긴 건설장으로만 돌아다니는 동무가 언제 이런 외진델 와봤겠소. 그래서 일요일인줄 알면서도 같이 오자고 했소.》

리규석은 벌써부터 산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 중요한 일때문에 부르셨다는것을 알아차리고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꺼내들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부채를 켜 손을 휘둘러보이며 말씀하시었다.

《여기가 바로 휴계고개요. 규석동무, 내 생각에는 말이요 순천비날론공장에서 이 고개까지는 철관을 늘여 폐수를 압송하구 이 고개서부터 안용강 까지는 흙도랑을 짚서 폐수가 제절로 흐르게 하자는거요.》

《예?》

리규석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저으기 놀랐다.

수령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계속하시었다.

《물론 간단한 공사는 아니요. 지도상에서 보면 공장에서 이 고개까지 한 50여리 잘되고 여기

서 서해바다까지 또 100여리 착실하오. 그렇지만 대동강과 주변 사람들 그리구 서해갑문의 단물을 마실 황해도일대와 새로 건설되는 간석지 사람들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소. 돈이 좀더 들더라도 150여리 버릴물길공사를 합시다.》

《수령님!》

리규석은 하도 감동되어 더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술한 전문가들이 수십차례나 모여 앉아 지혜를 합쳐보았지만 버릴물길공사를 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것이다.

《그래 어떻소? 동무 생각엔?》

수령님께서 재차 물으셔서야 리규석은 머리를 들었다.

《저희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해야겠구만. 규석동무, 2차처리를 하겠다는 집수장은 대동강에서 얼마나 떨어져있소?》

《약 한키로메터정도입니다.》

《한키로메터라. 난 그 한키로메터의 거리를 우선 20키로메터로 연장하자는거요. 동무들은 무시할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정상운전시에는 오염된 폐수가 나올게 아니요. 그 오염된 폐수를 한키로메터의 거리를 두고 3차처리를 하자면 바쁠수 있거든. 그러나 20키로메터를 흐르는 사이면 능히 대책을 취할수 있을테니까 비상시에 3차처리를 이어롬에서 하자는거요. 그러면 비정상운전시에 얼마간 오염된 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관으로 수송하는것만큼 풀한대 못쓰게 만들지 못할거구 여기서 3차처리를 하면 그야말로 맑은 물이 될거요. 이게 버릴 물질을 만들려는 내 첫번째 의도요. 어떻소?》

《수령님!》

리규석은 감동과 경탄에 못이겨 이렇게 목메여 불렀을뿐 더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두번째 의도는 안용강도 조국의 강인데 비워둘게 아니라 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하자는거요. 그러면 필요할 땐 관개용수로 쓸수 있으니 좋구 또 민물고기가 와글거릴테니 좋을게 아니요.》

《수령님!》

리규석은 벌써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창조적 열정이 불타오르고 환상이 나래를 펴기 시작한것이었다.

펌프장들을 휴양각처럼 지으리라. 특히 이 휴게고개에 들어갔게 될 마지막 펌프장은 정각처럼 멋있게 지어야지. 철관제작은 각 건설사업소들의 제관, 용접력량을 타산하여 분담하고 사업소간 경쟁을 조직할테다. 그러면 지는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지배인들이 부리나케 뿔것이다.

리규석의 눈앞에는 벌써 공장구내에서부터 뻗기 시작하는 폐수관이 보였다.

한데 고임틀을 타고 살처럼 뻗어나가던 폐수관

은 대동강가에 이르러 우뚝 멈추어섰다. 물우에는 콘크리트고임틀을 만들어 세울수 없고 그렇다고 그 육중한 철관을 대동강우에 그냥 건너놓을수는 더구나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한다?)

골똘히 생각하던 리규석은 빨리 건설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마주앉으면 능히 방도를 찾아낼수 있을것 같았다.

리규석은 마침내 자세를 바로하고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버릴물길공사를 조직하겠습니다.》

《허허... 덤벼치는버릇은 여전하구만. 하긴 그런 열정과 패기가 없으면 리규석이 아니지.》

수령님께서 가볍게 웃으셨어야 리규석은 얼굴을 붉혔다. 흥분하면 자신을 건잡지 못하는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웠다.

수령님께서는 규석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시는듯 천천히 담배를 붙여드시고서야 말씀을 이으시였다.

《덤비지 말고 우선 설계부터 잘 뽑으시오. 설계는 현상응모의 방법으로 뽑는게 좋을거요.》

《알겠습니다.》

리규석은 힘있게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대변에 파악한것이었다. 현상응모의 방법으로 뽑아야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완성할수 있을것이다. 그러자면 설계사업소들에서 가장 모범적인 설계를 한 건 내지 두건을 제출하게 하되 설계사업소의 이름을 가지고 참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소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책임일꾼들이 동원될것이다.

리규석은 마음속으로 이런 타산을 하고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설계가 완성되었다고 서둘러 공사에 착수하지 말고 농장원들이 가을걷이를 끝낸 다음에 왁 달라붙어 래년 발갈이전으로 끝내도록 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내자면 로력이 긴장할수 있겠는데 구조물공사와 물도랑째는 일은 평남도에 맡기라고 하시는데것이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리규석의 생각은 다시금 무거워졌다. 수령님께서는 설계문제뿐 아니라 공사시기와 방법, 지어 로력문제까지 풀어주시는데 자기는 아직 철관을 대동강우에 어떻게 건너놓겠는가 하는 문제하나 풀지 못하고있는것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무슨 생각을 하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규석은 수령님께서 자기의 얼굴에서 다른김새를 엿보신것 같아 어줍게 웃으며 황황히 변명을 하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다 알고계신다는듯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혹시 자체적정을 하는게 아니요? 공장건설자재도 팔리는데 버릴물길공사자재를 제때에 받게 되겠는가 해서말이요. 마음을 놓소. 그럴것 같아서 내 어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동무한테 전화를 했소. 예비물자를 풀어서라도 순천에서 달라는 자재는 제때에 다 주라고말이요. 생명선을 일떠세우는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소.》

《수령님!》

리규석은 불몽치같이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서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이 오죽 중요하면 폐수처리방도를 찾아주신 이자리에서 자체문제까지 풀어주시랴.

한데 나는 고작 청천강에 갑문을 건설하시려는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지...

그 순간이였다. 수령님께서 동암갑문을 건설하고있는 인민군 부대장을 불러서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혹시 그것도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과 관련되기때문이 아니였을가. 그렇다! 갑문언제속으로 폐수관을 뿔으면 대동강을 쉽게 극복할수 있다!

리규석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령님께서 부르는것이였다.

《규석동무,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요?》

《수령님! 폐수관을 동암갑문언제속으로 뿔ాయ면 합니다.》

《그렇다? 그거 아주 기발한 생각이요. 그렇게 되면 강우에 건너놓는다기보다도 땅우에 늘이는것과 마찬가지로 아니요?》

《수령님! 실은 수령님께서 동암갑문을 건설하는 인민군 부대장을 불러서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허... 그렇드라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게 기쁜 일이 아니요? 기쁜일이구말구. 그럼 동암갑문을 건설하는 부대장동무를 찾아가보요. 잘 도와줄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엔 다르게 뭐 걸리는게 없소?》

《없습니다. 이제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냅다미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냅다밀겠다? 좋소!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보요. 우리가 규석동무를 순천에 파견한것두 바로 그 내밀손을 보구 파견한것이니까.》

《수령님! 순천땅에서 새로운 비날론속도를 창조하는것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순천이 끓어번지면 모든 대건설전투장들이 끓고 그러면 전국이 끓을거요. 한번 본때를 보이시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좋소! 난 동무들을 믿겠소. 그럼 이젠 연풍호로 가볼가? 점심시간도 켜 지났구만.》

손시계를 들여다보신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리규석은 하직인사를 드릴 때가 된것 같아 그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수령님! 그럼 전 돌아가보겠습니다.》

《돌아가다니. 나한테 왔던 손님이 점심식사도 안하고 가면 내 마음이 좋겠소! 그러지 말구 어서 가지요.》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규석이더러 승용차에 오르라고 하시였다. 하지만 리규석이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냥 서있자 수령님께서서는 할수 없으신듯 자신께서 먼저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그 순간 수령님께서 신고계시는 구두가 송곳처럼 규석의 눈을 아프게 쿡 질렀다. 감탕이 발리고 풀검불이 말라붙은 구두...

아! 저렇게 진펄길을 걸으시며,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길은 과연 몇천몇만리일가. 땀에 뜨고 피에 절은 그 자욱자욱에 고인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은 과연 그 얼마나 뜨거운것일가.

승엄한 감동에 겨워 이런 생각을 더듬는 리규석의 머리에는 번개와도 같은 섬광이 번쩍이였다.

그것은 수령님과 우리 당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자면 기술실무적인 자질이나 사업방법과 사업작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였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인민을 사랑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절세의 애국자이시기에 진정한 애국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의 뜻을 진정으로 옹기 받들수 없기때문이다.

리규석은 그제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여기 휴계고개까지 데리고 오신 참뜻을 깨달았다.

그것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오게 될 폐수처리문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려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시였다. 그보다 중요한것은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자면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는 생활철리를 깨우쳐주시기 위하여 저 멀리 서해바다가 감탕관으로부터 여기 휴계고개까지 몸소 자기 리규석을 데리고 오신것이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리규석은 복받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어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뜨거운 눈물이 어린 그의 눈에 비껴드는 산천도 초목도 크나큰 감동에 겨워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탐구

김용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형상론을 문학예술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로동계급의 문예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론을 완성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한 총서형식의 장편소설 《불멸의 력사》 창작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인류의 문예보물고에 영원불후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입니다.》

오늘 총서 《불멸의 력사》(전15권)는 그의 높은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 가치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확립에 참답게 이바지하고있으며 그의 심오한 철학성으로 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창작의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따라서 총서 《불멸의 력사》가 보여준 철학적 심오성보장의 산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정치사상적 풍격과 사상적내용의 심오성

문학예술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과 그의 가치는 력사가 시대앞에 요구하는 근본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가, 제기하였다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명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시대의 근본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를 비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제기한 경우에도 해결방도를 똑바로 찾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해명한다면 그러한 작품은 한권의 교양적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간악한 일제의 침략정책과 을사조약의 매국행위로 이천만 백의동포가 터뜨린 《시일야방성대곡》의 오열이 구천에 사무치던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우리 민족앞에 사활적으로 제기된 근본문제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였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였으며 운명해결의 가장 정확한 방도를 찾는것이였다.

자주권을 빼앗긴 조선의 운명,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주성을 짓밟힌 조선민족의 운명을 그 누

가 그 무슨 방도로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시 력사가 시대앞에 제기한 가장 절실한 초미의 문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사회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인간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형상과제의 중심에 놓고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으며 인간들의 근본요구에 맞게 예술화하고있다.

작품의 종자도, 주제도, 사상도 다 여기에 귀착시켜 찾고 이 근본문제의 테두리내에서 설정하고 해명함으로써 철학적 심오성을 훌륭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예술적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준엄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과 령도업적, 고매한 품모를 생동한 생활적 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식민지철폐에 목이워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라는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총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두가지 측면에서 심오하게 해명함으로써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그 하나는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참다운 기치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적 업적을 총서의 모든 작품들에 일관하게 관통시키고있는것이다.

총서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시원과 그의 탐구과정, 주체사상의 선포와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적 화폭으로 묘사함으로써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참다운 지도사상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각이한 철학류파들과 사상조류들 이름있는 철학가들과 예술가들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각이한 견해를 제기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줄수 없었다.

종교철학은 사람의 운명이 《신》의 의사에 따라 예견되고 결정된다고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을 《신》의 맹목적인 숭배자로 만들었으며宿命론은 인간의 운명이 객관적 필연성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위한 투쟁과 창조력을 마비시키었으며 형이상학은 인간의 운명이 그 어떤 우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 19세기초엽 유럽의 어느 한 폭군이 와페를로격전에서 실패하고 제왕의 권력을 다시 빼앗긴 근본리유는 그가 바로 우연히도 감기에 걸렸기때문이라고 우연설을 류포시켰다.

작가, 예술인들도 인간의 운명문제를 두고 제 나름으로 모색하였다.

로씨야의 어느 한 고전작가는 인간의 운명해답을 도덕적 《자아완성》에서 찾았으며 비판적 사실주의의 거장이라고 하는 어느 한 작가는 평생을 두고 모색하였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오죽했으면 18세기말과 19세기초엽에 활동한 유럽의 한 작곡가가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선율로 자기교향곡의 허두를 때었겠는가.

그러나 어느 철학가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이름 있는 문호도 인간의 운명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수 없었다.

20세기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가이시며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류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었다. 총서작품들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의 탄생과 그의 구현과정을 시종일관 끝고나감으로써 철학적 품위를 높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 《혁명의 려명》, 《은하수》들은 주체사상의 시원과 출발점, 주체사상의 창시를 예술적 화폭에 담고있다.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는 1925년부터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까지의 혁명활동을 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시원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해명하고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1926년부터 1927년 사이 길림을 중심으로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그림으로써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예술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학생시절에 두가지 문제에 부닥치시게 되시었다.

그 하나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을 떠나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는것이였으며 다른 하나는 당시 공산주의운동안에 파벌싸움이 심하게 벌어진것이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이 문제를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으시고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

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시었다.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이 두 측면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면서 주체사상의 모색과정과 위대한 주체사상의 출발점에 강한 력점을 찍어 밝혀주고있다.

장편소설 《은하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0년 6월 30일 카룬회의에서 마침내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줄수 있는 위대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시는 숭고한 모습을 그리고있다.

1930년이후시기를 반영한 장편소설들의 전면에는 다른 사건,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나 그 밑바탕에는 의연히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생활력을 립증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총서의 장편소설들이 가지는 철학적 깊이가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또한 인간의 운명을 제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복잡한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탁월한 령도예술로 능숙하게 풀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업적과 숭고한 품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총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잃어버렸던 민족의 생명을 어떻게 다시 재생시켰으며 꺼졌던 나라의 생명을 어떻게 다시 탄생시켰는가 하는 령도방법 문제에 강한 력점을 찍고 전 시대의 문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생명의 철학을 전개하고있다.

항일대전은 군사력과 경제적 위력으로 이루어진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였다. 수많은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한 100만의 관동군과 군사적 힘으로만 맞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과연 건질수 있었겠는가.

수십세기를 헤아리는 인류전쟁사는 비정규적인 유격대로 100만대군을 타승한 그러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단순한 무장장비였는가. 병력수였는가. 그것은 아니였다. 총서작품은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박고 심오한 철학적 해답을 주고있다.

항일대전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노예적인 굴종정신과 자주정신의 대결이였다. 인민대중의 가슴속에서 다시 부활된 자주성이 바로 세계제패의 야망을 꿈꾸던 강대한 일제를 타승케한 승리의 열쇠였으며 힘의 비결이였다.

민족의 생명인 자주정신은 수령이 안겨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와의 선전포고를 하기전에 벌써 생명을 잃어버린 민족의 가슴속에 자주정신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키워주시였으며 항일대전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그것을 빛내이도

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이 자주정신은 무산계급에게도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가슴속에도 심어지고 움트고 자라 강력한 혁명의 주체적 역량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비범하신 령도에 술로 민족의 자주정신은 노예적인 굴종정신을 타승하고 일제와의 대결에서 마침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는 이 심오한 생명의 철학을 일관하게 관통시키고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에서는 대포와 비행기로 무장한 일제앞에서 여섯자 인간의 힘은 보잘 것 없지만 그러나 수령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간, 자주적으로 각성된 인간을 굴복시킬수는 없다는 철학적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장편소설 《1932년》에서는 무슨 타산이 있어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는가 하는 왜놈의 질문에 한홍수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궁지높은 민족이라는것,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은 반드시 자기의 자주권을 되찾을수 있다는 투쟁속에서 찾은 혁명의 진리를 한없는 궁지와 민족적 자부심속에서 소리높이 웨친다.

바로 이처럼 총서 《불멸의 력사》는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심어주시고 값높은 정치적 삶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적 역할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심오하게 밝혀냄으로써 작품의 극적 예리성과 철학적 심오성을 높은 차원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형상의 심오성

작품의 사상정치적 품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 심오성은 형상의 심오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상적 내용이 아무리 심오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예술적 형상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작품은 철학도서나 정치제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예술성을 무시한 이러한 작품은 그 어떤 교양적 감화력과 정서적 견인력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지나온 인류문예사와 오늘의 현실이 확증해주고있다.

지난시기 많은 문예리론가들과 창작가들은 작품의 철학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표현을 서로 달리 하였지만 다같이 본질에 있어서는 사상적 내용에만 귀착시키면서 사상에만 국한되는 개념으로 리해하였다. 이것은 창작실천상에서 사상적 내용과 예술적 형식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인류문예사는 두가지의 편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철학적 세계관을 생경하게 도해한 순수한 철학소설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치를 떠난 《순수한 예술》작품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편향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철학적 심오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예술화한 총서 《불멸의 력사》를 직접 지도하시는 과정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심오한 사상적 내용이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훌륭히 안받침되어 철학적 심오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선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소재들을 탐구하여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묘사하고있다.

본질적인 생활소재란 성격의 본질, 생활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수 있는 생활자료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그 전모에서 풍부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낡은것이 멸망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그려낼수있는 가능성을 준다.

평범한 인간의 평범한 생활과는 달리 걸출한 철학가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형상적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반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빛나는 혁명력사를 생활적으로 폭넓게 전개해야 할 총서형식의 수령형상작품은 형상창조과정에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20여년을 헤아리는 민족해방혁명의 장구성,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의 전체를 포괄하는 혁명투쟁의 복잡성과 다면성, 이것은 자칫하면 창작에서 혁명력사의 전과정을 그대로 복사하는 전기식소설형식을 면할수 없게 한다.

동시에 거대한 력사사변이나 군사활동에만 편중할수 있는 전제도 조성될수 있다.

그러나 총서 《불멸의 력사》는 장구하고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품모의 위대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본질적인 사건들과 생활장면들을 봉우리로 설정하고 작품마다 새로운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므로써 자기의 형상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고있다.

실례로 장편소설 《봄우뢰》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이라는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인간들의 근본요구에 맞게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부강촌을 혁명화하시는 모습, 그중에서도 한나라 혁명의 령도자가 머슴을 사시는 생활장면에 묘사의 각광을 집중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속에 잠자고있던 자주성의 싹을 움틔워주시고 정치적 자각으로 키워주시여 마침내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시는 반일대전에 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예술, 령도품모를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일반화하고있

으며 평범하고 레사로운 생활의 흐름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총서형식의 장편소설들이 심오한 철학성을 띠게 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또한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생활세부를 선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세부묘사의 본질적 기능은 하나의 작은 세부를 통하여 성격의 전모, 생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준다는데 있다.

하나의 작은 세부가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자면 우선 본질적이며 뜻이 깊은 세부를 골라줘야 한다.

인간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세계도 오직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세부를 통해서만 생동하게 표현되며 생활이 풍기는 깊은 뜻도 생활세부를 통하여서만 진실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본질적인 생활세부의 선택은 철학적 심오성을 담보하는 전제로 될뿐이지 그자체가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오직 철학적 사색을 깊이할줄 아는 작가가 선택된 생활세부를 각이한 시점에서 다각적으로 파고들어 그가 안고있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발견하고 분석적으로 묘사할 때만이 독자들에게 깊은 정서적 감명과 심각한 여운을 던져주게 되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생활세부의 분석적인 묘사으로써 성격과 생활의 철학적 본질을 두드러지게 밝혀내고 독자들에게 강한 정서적 충격을 준 산 모범을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은 수많은 생활세부의 분석적인 묘사로 등장인물들의 숭고한 충성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적 내용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밝히고있다.

이 소설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시는 사령부를 찾아가는 각이한 인간들의 로정이 그려져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행군의 련속, 얼핏 생각하면 여기에는 굶주림과 추위, 병마와 적의 추격을 이겨가며 끝없이 행군해가는 단조로운 생활만이 있을듯싶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사령부를 찾아가는 곡절많은 운명의 주인공들이 겪는 가지가지의 생활들을 세부화하여 진실하게 그렸기때문에 사람들의 심장을 그토록 감명깊게 울려주고있는것이다.

작가는 땀과 군복, 솔방울과 종이꽃다발세부를 설정하고 그것을 형상의 전과정에 심어주면서 사건을 전진시키고 극성을 조성하고있으며 이 세부들이 안고있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분석적으로 파고들므로써 작품의 종자를 해명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동시에 리복철의 《밝은 귀》와 최선금의 바늘, 장기령의 기관총과 윤철녀의 머리에 대한 세부를 분석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장황한 경력이나 구체적인 초상묘사가 없이도 그들이 지니고있는 성격의 본질적 특징과 산 인간의 고유한 개성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특히 경위중대장 리복철의 《밝은 귀》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를 통하여 장군님의 안녕은 곧 조선혁명의 보위로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민족의 령수이시며 혁명의 최고뇌수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한몸 다 바쳐 보위하려는 혁명전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철학적으로 여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또한 언어구사를 통하여서도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언어는 인간의 외모로부터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세계에 이르기까지 성격의 본질과 생활의 의미를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진다.

언어는 이러한 묘사적 기능과 표현적 가능성으로 하여 형상창조의 첫째가는 수단으로 되며 인간과 그의 생활을 심오하게 그려내어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요긴한 대목에 적절하게 씌여진 한두마디의 말이나 짙은 표현이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짓거나 사상적 내용을 뚜렷이 부각시키며 반면에 잘못 씌여진 하나의 대사나 간단한 언어표현이 성격과 생활을 외곡하고 주제사상을 모호하게 하며 나아가서 사상예술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총서에는 주옥같은 명대사들로 가득차있다.

장편소설들의 페이지마다에는 뜻이 깊으면서도 알기쉬운 명대사들이 차고넘치며 이 모든 명대사들은 작품의 주제사상적 내용을 깊이있게 해명하며 인간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짓고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있다.

명대사창조에서 총서형식의 장편소설들이 창조한 귀중한 경험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수 있는 레사롭고 평범한 대사속에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있는것이다.

지난날 일부 나라들에서는 수령형상창조에서 위대한 철학가로서의 풍모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철학적인 개념과 까다롭고 추상적인 논리로 일관된 대사를 망탕 지어내어 독자들의 리해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정서적 감흥을 약화시켰다.

우리 문학에서도 초기 수령형상창조에서 형상자체를 격식화하고 대사창조에서도 추상적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 결함도 있었다.

그러나 총서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사

라고 하여 정증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용어로 격식화하지 않았으며 스스로없이 하시는 생활적인 이야기속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생활적인 대사속에서 느껴지는 심오한 철학적 문제 이것이 바로 명대사의 본질적 특징이며 총서 작품들이 거둔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다양한 묘사수법을 통하여서도 심오한 철학성을 보장하고있다.

총서작품은 우선 체험세계의 심리분석적인 묘사수법으로 철학적인 사색을 깊이 불러내고있다.

작가의 객관적인 서술보다도 심리분석적인 묘사수법으로 주인공이 체험하고있는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드는것은 그의 성격형상을 부각시키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등장인물들의 체험세계의 심리분석적인 묘사는 그의 좋은 실례로 된다.

작가는 눈보라천리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엄혹한 고난의 행군길우에 정지성, 성립, 인섭이를 세워놓고 각이하게 느끼는 그들의 체험세계를 심리분석적인 묘사수법으로 섬세하게 그리고있다. 특히 지식인출신인 정지성의 복잡한 정신세계를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내면세계의 운동과정으로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의 신념을 훌륭하게 보여주 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꼭같은 정황속에서 각이하게 체험하는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심리분석적인 묘사 방법으로 진지하게 그려냄으로써 소설의 모든 장면들에 맥박과 탄력을 주고 극적 예리화와 철학적 사색, 장면의 활력과 운동성을 부여하여주고 있다.

총서작품들이 창조한 묘사수법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정론적인 분석수법이다.

총서작품들에서 풍기는 정론적인 기백과 열정은 합법칙적인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천재중의 천재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령도자의 불멸의 혁명력사앞에서 열렬한 흠모와 환희의 탄성이 솟구쳐 오르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거의 절대다수의 작품들에 정론적인 묘사수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있다.

장편소설 《봄우뢰》의 마감장면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그것은 진정 우뢰소리였다.

인간세상에 최악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치면 하늘이 노하여 천둥소리를 지르고 번개를 치며 벼락을 내린다는 소박한 생각은 수수만년 깃뎛히고 뜯기우고 억눌려온 인민들이 풀길없는 억울한 사연을 하늘에 대고 하소연해온 갈구와 념원의 산물이었다.

이놈의 세상 벼락이나 쳐라고 세기를 두고 사

람들은 가슴을 두드리며 웨쳤다. 물을 떠놓고 빌고 향을 피워놓고 빌었다. 동서고금에 우뢰를 부르는 시는 얼마나 많았고 우뢰의 신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은 인민들의 피터지는 절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피눈물과 몸부림속에 무수한 세월이 흐른후에야 인민들은 그 빌어먹을놈의 신에게 귀도 눈도 없을뿐아니라 신 그자체가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인민자체가 세손으로 우뢰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니 자연에서의 우뢰가 무거운 공기와 가벼운 공기가 어울릴 때 생기는 강한 상충기류에서 터져나오는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세상의 우뢰도 압제자, 략탈자들의 억압과 탄압에 견디지 못한 인민들의 쌓이고 맺힌 울분이 견잡을수 없는 상충기류가 되어 마침내 혁명의 우뢰를 불러왔던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의 탄생-그것은 조선인민의 세기적인 분노가 뭉쳐 터져오른 우뢰였으며 진정한 혁명의 퇴신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원썬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벼락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시는 이 격동적인 장면을 작가는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작가는 유격대오의 한성원이 되어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유격대창건의 사회력사적 의의를 정론적인 기백과 뜨거운 열정으로 장중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작가가 본 시대적 의의가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으며 철학적 평가가 예리하게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이 주정토로는 매우 웅장하고 진폭이 크며 예리하고 분석적이며 지성세계가 매우 높고 일반화의 강도가 세다.

이외에도 총서에 속한 장편소설은 여러가지 류형의 묘사수법들을 탐구하여 작품전반의 철학적 심오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X X

이상에서 우리는 철학적 심오성의 견지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가 (전 15권)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의 몇가지 측면만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실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한 수많은 장편소설들은 철학적 심오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갖춘 혁명적 대작의 귀중한 본보기작품으로 되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는 참다운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의 창작가들은 총서작품이 거둔 이러한 성과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경험을 꾸준히 학습하며 수령형상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질적 비약을 가져와야 한다.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

아브둘 레흐만 가지

4월 15일은 역사적인 날
이 날은
조선의 창건자 국가주석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날
현대조선력사에서 가장 뜻깊은 날

김일성 주석
그이의 존함은
찬란히 빛나네
해와 달과 같이
그 존함 영원히 빛나리

김일성 주석
그이의 존함은
인류해방의 상징
그이의 존함 부르며
사람들 투쟁에서 승리를 거둬하네

40여년전 조선땅은
하나의 지옥과 같았다네
일제의 학대속에서
사람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초목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다네

김일성 동지께서는
20성상 투쟁을 벌리시어
마침내 원쑤놈들을 쳐물리치시고
나라의 독립 이룩하시였다네

그이 계시여 조선은 오늘
기쁨과 웃음 넘치고
새 삶 약속하는
지상락원 되였다네

대기에 꽃향기 넘치고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과원에선 열매 주렁지네
사람들 활기에 넘치여라

교실에선 아이들 책 읽는 소리 랑랑하고
공장에선 기계의 동음 높다네
상점엔 소비품 넘쳐나고
그 값 높다네

주체조선 그 어디를 가나
자급자족의 정신이 나래치고
수입품 하나도 볼수 없고
모든것 자체로 만든것이라네

반세기토 못되는 사이
조선은 사람들 서로 돕고 이끌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되어
그 자랑 떨치여라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아버이수령 **김일성** 주석께
삼가 축원합니다
탄생일을 맞으시는 주석께서
조선인민을 영원히 령도하시기를

주체조국의 아버지 위대한 **김일성** 주석 만세!
주체조선에 번영이 있으라!
주체의 기치 만세!

(필자는 파키스탄 시인임)

광휘로운 주체의 빛발로 건국의 주추돌을 마련한 불멸의 화폭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에 대하여-

김려숙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권정웅 작)은 높은 사상에술성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과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성과작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으로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권 15권이 창작완성된데 이어 오늘 해방후편의 첫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로동계급의 혁명문학발전에서 근본으로 되는 수령의 형상문제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해결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게 되었으며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문학작품에 구현하는데서 또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새기게 되었다.

소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어떻게 민족간부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여 건당, 건국, 건군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해나가시였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줌으로써 오늘과 같이 민족간부의 대무대를 가지게 된 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런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한다.

해방의 환호성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그이의 령도따라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섰던 40여년전의 그날을 방불히 그려보는 머리 흰 로세대들, 비록 그 나날에 살아보지는 못했어도 마치 자신이 그때의 모든것을 다 보고듣고 체험한듯이 생각하는 새 세대들, 이들도 두는 하나같이 소설을 통하여 우리 당의 력사,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인간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가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고 사랑과 믿음의 최절정을 이루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애와 넓은 포용력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으며 값비싼 희생과 쓰라린 상사의 아픔이 또한 눈물겹도록 어려있음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것이다.

하기에 소설에 심취되면 뭇수록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분뿐인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절대적인 신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민족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대를 이어 영원히 우리 조선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조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 혁명적 의지를 굳게 가지게 된다.

1. 주체적인 인재문제해결의 정당성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해명

모든 문학예술작품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취급한 혁명적 대작에서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는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얼마나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있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깊이있게 일반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해방직후 우리 혁명앞에 나선 근본문제의 하나인 인재해결문제를 작품의 주되는 사상주제적 과제로 하고 왜 이것을 해방후 모든 사업의 기초에 놓아야 했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론증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작에서 내세운 혁명의 기본문제는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생활을 통하여서만 올바르게 밝혀질수 있다.》

소설은 갓 해방된 1945년 가을부터 그 이듬해 가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방직후 부닥치게 되는, 얼핏 보건대는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될수도 있는 식량난, 파괴된 경제의 복구난 등에서 벌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 그 홍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재문제이라는것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인재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여 새 조국 건설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듯처럼 해방직후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는 절박한 생활상 요구였다.

그렇다면 공장은 멎고 로동자들은 흩어지고 기술도서는 파지로 팔리고 기관차와 기관사가 없어 쌀을 실어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해결할 방도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혁명의 근본문제

에 대답을 주신 분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해방직후의 실패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을 창건하는것이 급선무이며 이와 함께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고 무력을 건설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밑바탕에 인재문제를 놓고 인재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각도 파견원들의 회의에서 장군님께서서는 천가지 만가지로 얽히고 형태와 양상이 각기 다른 그 난관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도사리고있는가를 해부하시면서 인재문제해결을 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을 창건하자고 해도 그 역사적 위업을 감당할만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정권을 세우자고 해도 그 임무를 수행할만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인민무력을 창건하자고 해도 군사를 거느릴 지휘관이 있어야 합니다. 파괴된 경제를 복구해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그것을 맡아나설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도 문화도 보건도 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분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인재부족이라는 지진과우에 올라 앉아있는셈입니다. 인재!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이미 여러번 말해왔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또하나의 큰 전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건국도상에 가로 놓인 난관이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그 원인의 원인은 인재부족이며 난국타개의 기본열쇠도 인재였다.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셋째도 인재였다.

인재가 모든것을 해결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람을 중심에 놓으시고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로 인재문제해결의 위대한 사상을 천명하시었던것이다.

해방직후 공화국북반부의 지식인은 불과 얼마 안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체의 식민지우민화정책이 낳은 이 가슴아픈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인재를 해결하되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사람과 자기 힘을 믿고 자기자신이 해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신다. 장군님께서서는 식민지나라 지식인들의 처지와 특성을 분석하시고 그들모두를 아량있게 포섭하여 새 조국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동시에 근로인민의 새 지식인들을 키울데 대한 원칙적 문제들을 밝혀주신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인재문제에 관한 사상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당면한 난국의 타개, 건당, 건국, 건군 위업의 실현과 인민생활안정 등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유일하고 정당한 방침이며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략관, 민족의 운명으로부터 구체적인 개인의 운명에 이르기까지 속속 들이 헤아리시고 보살피시는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와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여기에는 식민지우민화정책의 후파로 문명의 혜택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나라를 문명의 대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인간들의 운명선과 사건선이 복잡하고 생활내용이 방대한 장편들에서 사상적 대를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이야기의 기본줄거리를 줄기차게 전개해나가는것은 다양한 사건들과 일화, 세부들을 조화롭게 묶어세워 작품의 기본문제를 심화시켜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사상적 대가 뚜렷하면서도 단순하지 않고 심오하며 이야기줄거리가 굵고 끝으면서도 외곬이 아니고 풍부한 생활통로를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에서 다양한 양상을 띤 인간들의 복잡한 운명선과 생활의 흐름들은 일정한 장면과 계기점들마다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의미를 밝혀내면서도 총체적으로는 하나와 같이 인재문제해결에 형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다.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김책의 활동이 인재문제해결을 위한 평양공업전문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창설사업, 오랜 지식인들의 포섭문제 등을 기본으로 하고있는것도, 인생의 분기점에서 곡절을 겪으며 어제날 식민지 지식인의 처지로부터 해방된 새 나라의 귀중한 인재로 전환되는 강병철, 양춘만, 안동권, 최준걸, 한명구 등의 형상도, 어제날 천대받던 로동자들과 그 자식들인 신창의 박창술이 탄광의 주인으로, 나중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으로, 리창길이가 평양공업전문학교 학생으로 되는 그 모든 형상들은 그에 대한 생동한 레증으로 된다.

소설은 불과 몇달사이에 그토록 난감하게 여겨졌던 인재문제가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줄기찬 궤도를 따라 풀리고있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밝히면서 당창건, 북조선로시인민위원회수립, 토지개혁 등 해방직후의 제반 역사적 사변들을 후광으로 재치있게 처리하고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공업전문학교창설과정, 공장, 기업소들의 복구과정 등은 인간들의 운명선에 밀착시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혁명적 사변들과 사건들은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생활적 바탕으로 되면서도 당시의 시대적 정서와 생활지향을 진하게 느낄수 있게 하며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운명선은 혁명적 사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활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한 전형적인 형상으로 될수 있었다.

소설에서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인재문제해결의 빛나는 승리를 심각한 계급투쟁과 작중인물들의 운명의 전변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인재문제, 식민지 지식인 문제는 계급적 원쑤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 낡은 지식인에 대한 일부 편협한 태도와 그들 자신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그 인간자체를 해방하는 문제로서 값비싼 희생과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미제에 의한 국토의 랑단, 미군정과 련계된 민기환을 비롯한 반동놈들이 지식인들에게 뻗치는 추수, 장군님의 지식인사상에 감히 도전해나서려고 책동하는 오기섭과 그에 추종한 흥남제련소 공장장 리연수, 반동놈들과 련결된 조만식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것은 장군님의 인재문제해결을 관찰하는 길이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인재문제해결을 계급투쟁선상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몇개의 대목에 력점을 찍어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박원식의 죽음과 로폭과사고로 인한 강병철의 시련, 오기섭의 책동과 최준걸의 사직, 철도공장에서의 소요, 안동권을 서울대학 학장으로 초청하는 놈들의 편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안동권의 첫 강의와 독약이 든 물고뿌, 급수모터의 고장과 쌀을 실은 방통의 습격, 이러한 장면과 세부들은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박원식의 희생과 관련한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소설은 값비싼 희생에 대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각도에서 생활적인 전제와 감정의 축적들을 깊이 있게 줌으로써 그 형상적 의미를 강조하고 강한 정서적 여운을 주고있다.

박원식은 장군님께서 그토록 믿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혁명전사의 한사람이다.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간직한 박원식은 서울에 가서 양춘만에게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과업은 수행했지만 그를 데려오지 못한것을 스스로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고 혁명임무를 다하지 못한 자책으로 모대긴다. 하기에 반동놈들의 기습을 물리치고 쌀을 실어오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양춘만이 중화의 삼촌네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찾아 떠났다가 놈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것이다.

호방하고 대범한 그의 성격적 특성은 무엇보다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서 빛난다.

그는 30살의 짧은 생애를 값있게 살았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박원식씨와 같은 혁명투사들에 의해 혁명의 길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밟고 건널 수많은 짐꾼들이 피로써 밟혀졌다.

박원식의 희생을 전후하여 치밀하게 심화되고

전개되는 생활적 내용은 이처럼 인재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장군님의 방침의 위대한 승리의 밑바탕에는 혁명가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깃들어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준엄한 피의 바다를 헤쳐오는 과정에 체득한 혁명의 이 진리를 인간들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형상화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 심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인재문제해결은 나라와 민족의 건지에서 보나 개별적인 인간들의 운명전환의 문제, 운명개척에 관한 문제와 잇닿아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리념을 바꾸는 문제, 통채로 그의 위치를 바꾸는 심각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인간의 위치를 옮기는것을 지구를 통채로 들어옮기는데 비길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지식인들의 운명전환의 합법칙성을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그림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동시에 얼마나 큰 의의가 있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납득시키고있다.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건국에 한몸바쳐나섰으나 모해와 비난을 이겨내지 못하여 동요하며 자살까지 기도하던 강병철, 공산주의에 대한 악선전에 포로되어 강선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강선으로 돌아오는 길을 너무도 멀리 에돌았고 그때문에 뼈아픈 후회도 남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양춘만, 권력앞에 아부하지 않고 도고하며 과학자로서의 《신념》도 있고 민족의 우매성을 가슴 아하파면서도 개인의 자존심과 인격에 포로되어 있던 안동권, 이들은 참으로 심각한 우여곡절을 거쳐 자기자신과 인민을 위한 길, 혁명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다.

이들의 운명전환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은 그들이 참다운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다는 거기에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는 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자양분으로 하여 새롭게 탄생한 인간들이기에 오로지 장군님의 믿음만을 안고 그 믿음속에 살아갈 드팀없는 신념을 안고 억년드놀지 않을 건국의 주춧돌로, 혁명의 대들보로 되었다는데 있다.

(이 믿음을 안고 나는 한생 살겠다. 이 지령점이 있는 한 나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서있으면 나도 서있고 이것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땅에 꺼꾸러질것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이 단 하나의 길로 드팀없이 한생을 걸 어갈것이다.) 이것은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 강병철의 《진술서》를 부정하시고 그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는 장군님을 우러러 강병철이 터치는 심장의 뱀침이다.

장군님의 믿음 하나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것은 비단 강병철이나 양춘만, 안동권, 최준걸 등 지

식인들만이 아니다. 이것은 이 나라 모든 인민이 안고살아야 할 신념이고 참다운 인생관이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사람중심의 위대한 혁명학설로 해방된 이 나라 땅에서 무지와 몽매의 흔적을 영원히 가셔버리고 부강하고 문명한 새 조선을 일떠세우는 세기적 전변의 첫 포성을 장엄하고 은은하게 결단성있고 용이주도하게 울리신데 대하여 긍지높이 형상하고 있다.

2.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창조에서의 혁신적 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령도자,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풍모를 격식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풍모를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핵으로 하여 격조높이 형상화하였다.

공산주의적 인간학은 형상창조에서 그 성격의 기본핵, 주도적 특성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는 작품들에서도 레외없이 작품의 종자와 생리에 맞는 위대성형상의 핵을 특색있게 찾아쥐여야 그것이 인간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성격문학으로 될수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이며 자기의 뚜렷한 몫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이 세상 가장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수령형상의 기본핵으로 뚜렷이 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그이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공산주의적 덕성의 위대성을 풍부한 생활로써 다면적으로 밝히고있다. 바로 여기에 인재문제에 초점을 둔 이 작품이 그 하나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힐수 있는 형상적 비결이 있다고본다.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설은 장군님께서 박원식에게 돌려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배려, 그의 뜻을 잇도록 미망인인 필남이에게 기울이시는 사랑, 김책의 아들을 찾기 위해 마음쓰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을 다 찾아 그

들의 아버지가 되여주시고 이국땅에 묻힌 동지들을 평양에 옮겨와 그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전해주시려는 숭고한 뜻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와 함께 나누시는 장면들을 통하여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혁명적 의리를 뜻깊게 펼치고있다.

원래 주체사상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 그것을 집대성한 최고봉의 사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랑과 믿음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기본관계로, 혁명의 근본리치로 내세우신다.

믿음에는 마음이 따르는 법이다.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그토록 위대한것은 그것이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운명을 같이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데 있으며 그 믿음에 인민의 한마음, 충성의 마음이 따른다는데 있다.

장군님께서 오기섭의 책동으로 사직하고 광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위치에서 사업하게 된 최준걸이에게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하자고 하는것은 그것이 어떤 치레거리인사이거나 외교적 인사가 아니며 우리의 의리는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각오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최준걸의 충성심의 원천이였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시여 전체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로 합쳐 세상에서 제일 크나큰 인민대중의 힘을 마련하시고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분,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형상적 화폭들은 참으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이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칠 때 비로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있다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깊이깊이 새겨보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측면은 소설의 전반적인 형상체계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하시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의 크나큰 견인력을 잘 형상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공장의 주인이 된 로동계급의 혁명적 열의와 성취미운동에 한결같이 참가하는 애국적 농민들의 소행, 흥남으로 달려가는 지식인들의 형상, 평양공업전문학교와 종합대학 창설을 위한 기성회성원들의 애국지성이 생동한 개성으로, 혹은 시대적 흐름의 기백있는 묘사를 통하여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괴된 우리의 공업을 5년이 아니라 단시일내에 복구할수 있다고 확언하시는것도, 완전히 령의 상대에서 1년안으로 공업대학창설을 결심하시는것도 오로지 인민의 애국심,

그림을 믿으시였기때문이다.

강선땅을 찾으시였을 때, 싸늘하게 식은 강철로를 보시면서도 장군님께서 해방된 조선의 노동계급,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그들의 높은 계급적 자각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반동놈들의 책동에 속아 철도공장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에도 우리는 산에서 싸우다 왔기때문에 빈 배낭밖에 메고 온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주인된 노동계급의 혁명적 량심에 호소하신다.

가시는곳마다에서 보시게 되는 파피의 흔적과 흔잡된 흐름속에서도 그 밑바탕에서 강하게 소용돌이치는 해방된 인민의 애국열의를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여 모든것을 우리식으로 새롭게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 그래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은 간고하면서도 또한 재미가 난다고 동지들은 말하는것이다.

장군님께서 오직 그 인간자체를 믿는다는 절대적인 담보하나로써 새 나라의 강철을 위해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벽돌을 축조했고 대두박을 화독에서 삶아먹으며 일한 강병철의 그 귀중한 애국의 량심을 높이 사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며 양춘만이 버리고 달아난 처자에게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신다. 그리고 전 제국대학 교수였던 안동권을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로 내세워주시고 남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존함을 새긴 위촉장을 보내시여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으로 불러주신다. 소설은 장군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갈길 몰라 방황하다가 남으로 나간 원시범이도 반드시 그이의 위대한 품에 안기리라는 확신을 강하게 주고있다.

소설은 지식인들의 시점과 지성인들의 특성에 맞는 내면독백을 통하여 장군님을 흠모하고 그이의 위대성에 감복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일반화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들에게 가장 존엄있는 삶과 인생의 보람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화하고있다.

소설은 여기서 강병철, 양춘만, 안동권, 최준걸, 한명구들의 심정을 요소요소에서 적중하게 토로시키면서 그것을 평균주의적으로 라렬하지 않고 강병철의 시점과 내면심리형상에 많은 비중을 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창조에서 강병철의 운명선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때문이다.

장군님께서 강병철이 기사장으로 일하고있는 성진제강소를 찾으시여 지금 우리에게 강철이 천금같이 귀중하지만 강철과 노동자의 생명을 바꿀수 없다고 하시면서 전기가 흐르는 위험한 로를 없애버리며 그대신 인명피해를 주지 않는 새 방법을 연구해내도록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을 때 강병철의 내면독백, (그렇다! 그이의 가르치심

대로 나는 인간을 위한 새 강철을 만들어야 한다.

여직까지 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품성과 인자함을 다만 나의 과거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합금로에서 저지른 과오를 아량있게 용서해주시는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제 와보면 만인에게 베풀어지는 그이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찬란한 해빛의 한줄기가 나에게도 와닿았던것이다.)

이것은 실로 기습이 없고 구석이 없는, 폭과 깊이에서 끝이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최상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열정의 분출이다.

출강의 장쾌한 장면을 보시며 통쾌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는 강병철의 심리묘사,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김일성** 종합대학 개교식과 연회에 참가했던 그 흥분을 안고 그 날저녁 대동강반을 거닐며 남으로 나간 친구 원시범에게 하는 강병철의 내면독백, 이 모든것들은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고 인간을 그토록 믿으시는분 온 겨레를 하나의 초점에로 단합시키는 구심점이며 불가극복의 견인력인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간적 매혹과 절대적인 숭배의 사상감정을 터친 심장의 뒤흔치이다.

소설은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북 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형상의 여러 계기들에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그것은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김일성** 장군환영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도처에 **김일성** 장군의 서울개선을 환영하는 글들이 나붙은 서울풍경에 대한 묘사와 장군님의 서울개선을 두달도, 석달도, 아니 10 년이고 20 년이고 기다리겠다고 하며 그 심정을 장군님께 전해줄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홍명희의 딸 그리고 평양공설운동장과 평양공업전문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개교식에서 울려퍼지는 **김일성** 장군 만세의 환호성과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연회장면들에서 잘 찾아볼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사랑과 믿음의 철학사상으로 관통시킴으로써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영향력, 탁월한 정치적 수령으로서의 품모와 위대한 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소박하고 겸손하며 인간애가 풍부한 인민적 수령으로서의 품모를 다면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창조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는 다음으로 인간관계와 심리묘사, 세부형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상요소들을 작품이 제시한 문제해명에 집중시키고 심화시켜 그 형상적 깊이를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진 인간관계의 중요한 특성은 방계인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장군님의 인재문제해결의 위대한 사상의 실현과 관계되고 장

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한결같이 복종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하는 김책, 항일혁명투사 박원식, 지식인들인 강병철, 양춘만, 안동권, 최준걸, 한명구, 로동계급들인 박창술, 리운봉, 최환덕 등 인물들은 장군님과 필연적인 인연관계로 맺어져 그이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하는데 충실하게 복무하고있다.

반당종파분자 오기섭이와 신념없이 그에 추종하는 공장장 리연수는 장군님께서 극좌적인 사상과 견해에 타격을 주시고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는 숭고한 모습을 형상화하는데서 자기의 형상적 과제를 맡고있다.

방계인물들인 미군정의 앞잡이 민기환이와 그 졸개들인 《집계다리》와 방문성은 강병철, 안동권, 양춘만, 원시범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면서 장군님의 인테리방침의 승리를 반증하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심화를 통하여 복잡한 해방직후의 정치정세와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들을 펼쳐면서 장군님의 독창적인 인재전략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를 격에 맞게 그림으로써 웅심깊고 다정다감한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냈다.

사상, 감정, 의지가 한데 어울린 인간의 내면심리세계를 떠나서는 산 인간의 개성을 진실하게 형상할수 없다.

내면심리세계의 묘사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도 레외로 될수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복잡한 내면세계가 있지만 특히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로동계급의 수령에게 있어서 그것은 보통 인간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렇듯 높은 차원에서의 숭엄한 사색과 활동의 세계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과 래일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옳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그 관철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사상리론활동과 령도과정에서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파고들지 않는다면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을 진실하고 격이 높게 형상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수령형상은 격식화된 틀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해방직후 인재문제를 비롯하여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치는 과정에서 장군님께서 불가피하게 체험하게 되시는 고충과 사색의 심원한 세계를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평양철도역장으로 임명된 한명구를 때라는 요구들이 련속 제기되는데 이어 강병철의 로폭과사고, 서울에서 박원식이와 함께 오던 양춘만의 도주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묘한 사태들을 놓고

장군님께서 일손을 잡지 못하시고 방안을 서성거리시는 장면, 장군님께서 평양역에 나가시였을 때 사흘이고 나흘이고 기다렸다가도 우리 기차가 다니니 좋기만 하다고 하는 군중들의 설레이는 모습에서 인민의 기세를 보시며 그 힘을 한껏으로 모아 대하를 이루실 결심을 마음속깊이 다시시는장면, 여러차례 강병철과 만나시는 과정에 느끼시는 감정을 묘사한 부분들, 박원식의 희생을 두고 그이께서 체험하시는 쓰라린 심리세계를 묘사한 장면, 열명안팎에 있는 지식인들 모두를 믿음성없이 쓰지 못하겠다고하는 오기섭의 말에 격분을 금치 못하는 장면, 양춘만이 만들어온 강편을 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어 이것이 우리의 강철이라고 하시며 두팔을 허공에 들어올리신채 호탕하게 웃으시는 장면 등 소설의 여러 장면과 정황, 세부들에서는 장군님의 숭고한 내면심리세계가다양하게 펼쳐지고있다.

특히 박원식이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양춘만이 제발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응당 기뻐했어야 할 장군님께서 그보다 분노와 슬픔을 앞세우시는 심리세계의 묘사는 정황에 따르는 순간심리의 포착과 감정의 생활적 전제들을 동시에 드러내는데서 커다란 형상적 의의를 가지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흘리시는 값높은 눈물에도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이께서 체험하시는 기쁨과 슬픔의 대조되는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묘사하고있다.

《원식이, 양춘만이 찾아왔소. 양춘만이.》이렇게 떠나간 전사를 부르시며 연방 눈물을 흘리시는 장군님, 그런가 하면 공업전문학교 개교식때는 이 나라에 문명의 첫 포성을 울리는 감격을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군님, 그누가 이 눈물의 심오한 의 미들을 깊이 깨달을수 있단 말인가. 소설은 이렇게 사색의 여운을 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생동하고 의의있는 세부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심리와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고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세부형상이 주는 매력은 크다.

소설에서 박창술이 허리에 차고다니는 금고열대와 박원식이 만들던 놀이감편충은 작품에 여러차례 반복되어나오면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창조에 의의있게 복무하고있는 인상적인 세부들이다.

놀이감충만해도 소설에서는 적어도 7번이상 나오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박원식의 성격적 특성을 보여주다가 점차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형상화하는데로 지향되고 심화되고있다.

여러차례에 걸쳐 박원식의 미완성품인 나무권총을 보시며 그를 추억하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사의 자그마한 뜻도 다 풀어주시려고 생전에 박원

식이 아이들과 약속했던대로 연발사격장치를 하여 총을 완성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안겨주신다.

소설에서 의의있게 형상된 세부는 양춘만의 책 세부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놀이감총세부는 그자체가 여러번 반복되어 나오면서 형상을 심화해나가는 특성을 띠고있다면 양춘만의 책세부는 그와는 달리 인간관계와 사건을 맺어주고 심화시키고 생활의 중심을 깊이있게 파고들게 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사창장마당에서 팔리던 양춘만의 귀중한 기술 도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강병철, 양춘만, 김책과 강병철, 양춘만, 강병철과 안동권의 관계를 맺어주고 심화시키는데서와 사건을 진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세부에는 당시 귀중한 기술서적들이 파지로 팔리던 우리 나라의 현실이며 애국심을 간직한 지식인들의 모습도 비껴있고 더우기 그 책의 주인인 지식인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가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이 소설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일가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형상된 혁명적 가정의 전통적인 가풍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숭고한 인정세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장군님께서 고향 만경대에 들리시였을 때 장군님과 할아버님, 할머니님, 삼촌분 사이에 오고가는

후더운 인정미, 장군님을 받들어나가는 일가분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모습, 가슴아픈 추억도 있고 눈물겨운 정서도 깃들어있는 이 장면은

매우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소설에서 박원식의 결혼식장면이 그토록 인상 깊고 걱정을 불러일으키며 오래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것도 중요하게는 위대한 장군님과 장군님의 할머니께서 몸소 이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된 뜻깊은 사연과 련관되어 감명깊은 정서를 타고 흐르기때문이다.

소설은 이외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 창조에서 능숙한 언어구사와 높은 수준의 분석적인 묘사, 독특한 구성의 숨씨들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소설이 거둔 이러한 성과와 귀중한 창작적 경험들은 앞으로 이 주제 작품창작과 우리 문학의 전반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그가 가지는 거대한 예술적 감화력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위업수행을 위한 혁명의 한길에서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살 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반파쑸민주화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에게도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주는 참다운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될것이다.

언제나 한숨결로

주광남

바로 여기였다네
파도치는 불흐름따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만족하여 걸으시던 압연장

아직도 열을 뿜는 강판더미
높이 쌓인 그앞에
가까이 다가가시였던곳

일군들도 압연공들도 우러러 따라섰는데
그이께선 손들어 가리키셨다네
강판우에 씌여진 《서해갑문》 흰 글자를

금시 환하게 밝아지시는 얼굴
인민군 한 장령을 부르시더니
말씀하셨다네, 기쁨에 넘치시여
이게 다 서해갑문에 쓸거라고

그 무슨 진귀한 보물인듯
허리굽혀 두터이도 헤아려보시더니
웃으시며 우리 어깨 두드려주셨다네

-당의 의도를 잘 아는 동무들이요!

아, 그 감격 못잊어 오늘도 더듬는 생각
어데인가, 강판흐름 잇대일곳-
강판의 규격과 용도는 달라도
보내는 마음은 그 하나라네

번쩍이는 강판통구리에 다가설 때면
내 마음 헤아려보시는듯
오늘도 나는 새기네 자신있게
흰글자 또박또박 《광복거리》라고

버릇되었다네
강판의 규격과 용도도 수백가지
보낼곳도 온 나라 수천고장이건만
친애하는 그이께서 제일 기뻐하실 그곳
먼저 생각하는 마음

물어서 알겠나, 강판 흐름 잇대일 그곳-
압연공의 심장은 언제나 한숨결로
그이와 한숨결로 고동치고있다네

불멸의 업적, 빛나는 령도

- 문화예술부 혁명사적관을 찾아서 -

오대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적 문학예술건설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고수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적지에 건립된 문화예술부사적관을 찾아서 우리는 열매전 참관의 길에 올랐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 월의 명절을 앞두고 가슴마다에 끝없는 흥분의 정을 안고 이른아침부터 찾아드는 참관자들속에는 머리 희숙한 작가들이며 평양 시내 여러 문화예술기관의 낮익은 얼굴들도 많이 보이였다.

1만 2, 000여평방미터의 부지면적에 두개의 건물로 일떠선 사적관건물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현대적으로 정중히 꾸려져있었다.

우리의 눈길을 먼저 끄는것은 사적관건물벽의 벽화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적이 전시된 1 판의 정면벽에는 혁명의 고향 만경대고향집을 형상한 벽화가 아침해빛을 받아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었고 측면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형상한 족무이대형벽화가 한가득 채워져 있었다.

강사의 안내를 따라 자동나들문을 통해 총서관으로 들어서니 밝은 불빛속에 자애깊은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이 안기여왔다.

몇송이의 흰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맑은 하늘아래 하얀 살구꽃들이 만발하여 그윽한 꽃향기를량껏 풍겨주는 화창한 봄날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문학예술인들과 함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수령님!

우리 주체적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눈시울은 자꾸만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위대한 령도의 자욱자욱인가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요지도일지 전시관이 넓다란 측면벽을 한가득 채웠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세상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걷고 걸으신 령도의 자욱자욱...

해방직후부터 1987년 4월 15일까지 사이에 무려 500여차례의 현지지도와 2, 800여차례의 정력적인 지도.

생각할수록 뜨거움이 가슴속에서 솟구치게 하였다.

우리는 층층 대리석계단을 밟으며 2 층에 자리잡은 2 호실로 참관의 길을 이어나갔다.

2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문예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민주주의민족문화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 그리고 그들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여 해방을 맞은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해방직후 위대한수령님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모두 찾아내시여 하나의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 그리고 문학예술의 후비육성과 민족유산을 발굴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옹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감동적인 사실들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또한 전시된 신문자료들을 통하여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국립교향악단, 중앙예술공작단, 국립음악학교 등 수많은 문학예술단체와 교육기관들이 창립되던 나날들을 감회도 깊게 돌이켜보게 되었다.

3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에 우리 문학예술인들의 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신 내용의 사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품을 봐주는것은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국가》를 비롯하여 장편소설 《땅》, 장편서사시 《백두산》 등 수많은 문학작품창작을 지도하여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3 호실 참관을 마친 우리는 싸우는 고지의 경도를 그대로 련상시켜주는 굴길을 지나 4 호실로 옮겨갔다.

이 호실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수령님께서 문학예술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신 귀중한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이 많이 전시되어있다고 하면서 강사는 하나하나의 사적물마다에 깃든 이야기들을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인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와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문학예술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과 전투적 임무를 명백히 밝혀주시었을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전화의 나날에도 문학예술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존함이 모셔져있는 종군과전장을 가리키며 우리의 수많은 작가, 예술인들은 이 과전장을 가슴에 안고 용약 전선으로 달려갔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입었던 포연에 얼룩지고 그슬린 군복과 그들이 사용한 취재수첩과 지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서울과 대전거리로, 불타는 락동강과 1211 고지에도 싸우는 병사들과 함께 전선길을 걸으며 적탄알이 우박치는 전호가에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전쟁승리를 위하여 싸워온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눈앞에 방불히 그리며 뜨거운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러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 예술인들이 원썬들의 포위망을 헤치고 찾아온 작가, 예술인들을 따듯이 맞아주시고 우리 당을 믿고 사신을 헤쳐왔는데 모두 아끼고 사랑하며 아무런 불편없이 일할수 있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하여주신 일이며 솜옷과 솜신, 솜모자들을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먼저 공급하여주신 은정깊은 사랑이며 것처럼 어렵던 전화의 나날에 인민배우, 공훈배우, 공훈예술가 칭호를 제정하고 무대예술인들을 우대할데 대한 내각결정까지 채택하여주신 일들을 가슴벅차게 회고하였다.

전화의 나날, 종군의 길을 걸어온 체험자들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그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져서인가 두툼한 솜옷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는 참관자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업적들이 전시된 다음호실로 참관의 길을 이어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등을 발표하시어 우리 문학예술이 나갈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10 호실에 이른 강사는 우리 소설문학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인 소설은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의 하나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장편소설 《평양시간》,

《새 봄》, 《생명수》를 비롯한 수많은 소설들의 창작방향까지 주시였을뿐만아니라 소설책들이 출판되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었고 그것을 모두 읽어보시고 세심한 지도까지 하여주시었다.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습니다.》의 명제관앞에서 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인 소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출판부수와 배포정형까지 일일이 료해하시고 소설책들을 더 많이 출판하여 인민들이 광범히 읽을수 있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리시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쓴 덕성실기자료들과 그이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창작한 수많은 소설작품들을 돌아보며 크나큰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마감호실인 12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80 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신 사적내용이 전시되어있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촬영거리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앞에서 강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해설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4 년 12 월 8 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야외촬영거리의 중요성을 헤아려보시고 간판이나 바꾸어가면서 필요한 영화들을 촬영할수 있는 영화거리와 마을을 건설하여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리하여 무려 70 여만평방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부지에 훌륭한 대야외촬영거리가 일떠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 발전에서 뿐만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문학 예술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계신다고 하면서 강사는 해설을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86 년 9 월, 《평양국제문학토론회》와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현대문학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어 세계 진보적 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환히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현대문학은 오늘의 시대상을 옹계 반영함으로써 인민들을 정의의 위업으로 고무하는 화불이 되여야 하며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는 철추가 될 때야만 현대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 자기의 시대적 사명을 다 할수 있으며 작가는 사회생활의 대변자이고 인간정신의 기사이기때문에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면 현실발전의 단순한 관조자가 될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활의 직접적인 체현자로, 정의를 위한 견결한

투사로 되어야 한다는 강령적 교시를 주시었다.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나날을 하루와 같이 우리 문학예술의 발
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시는 탁월한 수령
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하기에 오늘 우리의 주체적 문학예술이 자기
발전에서 대전성기를 맞이하고 대화원을 마련하
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을 떠나서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문학예술
발전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되
고 발전되어 우리 나라는 찬란한 주체의 문학예
술로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을 떨치고있다.

뜻깊은 산천아!

김 호

수정천
내 고향의 맑은 흐름아
너 그 어떤 사연 지냈기에
때없이 나를 불러
하많은 말을 속삭여주는것이나

기암바위
내 고향의 푸른 기상아
너 또 그 무슨 뜻 새겨안았기에
이렇듯 내 발걸음 멈춰세우고
못잇을 그날을 전해주는것이나

수령님 딛고 오르실 큰돌이
흔들릴세라
정히 조약돌 고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
뜨겁게 어려있는 강변

물소리에 담아
수정천은 들려주누나
물쿠는 한낮의 피약별 맞으시며
쉬임없이 걸으시는 수령님 안녕 위해
친애하는 그이
몸소 정하신 세수터가 여기라고

언뜻 스쳐지나는 바람결에도
울려나는듯싶구나
기암바위우 송이구름 불러다
꽃우산 만들어
수령님 가시는 걸음걸음
서늘한 그늘을 펼치면

얼마나 좋으라고
진정담아 하시던 그날의 그 말씀

내 태어난 고장이여서만
이리도 정답고 자랑스러운것이더냐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운곳이어서
온 나라에 이름난것이더냐

한포기 풀
하나의 돌도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으랴
가슴에 다 안기엔
너무도 숭엄한 뜻
너무도 지극한 마음이
깊이 새겨져있는 고향산천이거니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아버이수령님 모시는 길에
그 뜻 영원히 따르자고
그 충성 영원히 받들자고

고향아
뜻깊은 산천아
너는 친애하는 그이의 뜻으로
수천의 충신
수천만의 효자들을 안아키우며
뜨거운 그 사연
그날의 그 이야기
노래불러 전해주는구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의 나날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

(제 4 회)

무대에 나타난 인력거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계급교양작품이다. 극의 중심에는 꽃분이를 비롯한 긍정적 주인공들이 서있으며 그들과 대치되는 적대적 인물로는 지주와 백만이 등 부정인물들이 서있다.

작품의 형상과제는 다름아닌 이 공부정인물들간의 치열한 계급적 갈등의 해결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창조하시는 전과정에 이 작품의 심오한 계급성을 높이 부각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주인공들과 함께 지주를 비롯한 부정인물형상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1972년 10월초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창조현장을 찾아주시였다.

이날저녁 가극의 여러 장면들을 보시고 나타난 부족점들에 대하여 일일이 수정방도를 가르쳐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정인물들의 형상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지주를 비롯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모순을 두드러지게 그려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지주가 그저 매나 몇대 때리다가 꽃분이를 팔겠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지주의 악랄성과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모순관계를 똑똑히 보여줄수 없습니다. ...

노래는 그냥두고 구성을 다시 토론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마름과 지주선을 더 넣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지주와 마름이 흥계를 꾸미는것을 비롯하여 생활의 이모저모를 보여줄수도 있을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창작자들은 크나큰 자책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창작자들은 긍정인물들의 형상에 힘을 넣으면서 지주를 비롯한 부정인물들의 형상에 대하여서는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했

다. 지주집이나 요란히 꾸리고 약탕관이나 놓는 등 외형적인 장치나 했을뿐 부정인물들에게 맞는 생활과 형상과제를 제시해준것이 별로 없다보니

놈들의 악랄성이 안겨오지 않았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극의 1, 2장이 감동을 주자면 우선 어린 순희가 눈머는 장

면에서 지주의 악착하고 잔인한 계급적 본성을 예리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에 덴 두 눈을 싸쥐고 애처롭게 몸부림치는 어린 순희를 지주가 사정없이 때리고 차고 꼬집는 행동들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명철한 가르치심이었다.

가극의 전반부에서 가장 크게 노리고 형상의 초점을 두어야 할 장면은 귀여운 어린 순희가 지주놈들에 의하여 눈머는 장면이다.

사람들의 가슴을 가장 쓰리고 아프게 하는 장면도, 지주년놈들의 귀족같은 만행과 악랄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장면도 바로 이 순희가 눈머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 대한 강한 인상은 이미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통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으므로 가극창조에서는 보다 더 무거운 형상과제를 제기하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군들과 창작자들은 가극의 특성을 놓고 운운하면서 이 장면 형상에 대한 명확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새로운 형상방도를 찾아안고 기쁨에 넘쳐있는 창작가들을 바라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화제를 바꾸시여 이번에는 지주가 빗값으로 꽃분이를 끌어가겠다고 호통치는 장면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장면에서 백만이가 나울것이 아니라 지주가 같이 나오도록 하여야 하며 지주가 직접 빗을 계산하게 하고 꽃분이를 끌어가는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백만이의 노래가 시작되던 이 장면에서 지주가 직접 나와 노래를 먼저 하도록 설정해주시였다. 그리고 노래를 한절만 할것이 아니라 세절로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지주가 독창도 하고 백만이가 이중창도 부르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창작가들을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지주가 호통치면 백만이가 아첨하면서 꽃분이네 일가에게 더 집요하게 달려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책상앞에 걸어나오시여 지주가 단장을 팔에 거는 동작, 단장을 휘둘러대며 울러메는 동작, 큰기침을 해가

며 허세를 부리는 동작 등을 자신께서 직접 해보이시며 호당하게 웃으시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도 따라웃으며 그이께서 친히 가르쳐주시는 배우의 연기형상을 가슴깊이 새겼다.

이날에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은 부정인물들이 출연하는 장면들의 극구성과 연기형상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으로 되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극장을 다녀가신후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순회가 눈머는 장면의 형상을 새롭게 하였고 2장 1경에서 부른 3절로 된 지주와 백만이의 노래《삼년전에 가져온 장리쌀 서말》을 새로 창작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창조현장을 찾으실 때마다 지주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으로 되어야지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지주의 노래 형상, 몸가짐과 얼굴표정, 의상과 분장, 지어 소도구에 대하여서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극장에 나오시어 무대관통작업을 지도하여주시었다.

무대에는 1장이 끝나고 2장이 흘러가고있었다.

가난과 설움이 엉킨 초라한 꽃분이네 집마당으로 지주와 백만이 허세를 부리며 들어오고있었다.

의미심장한 안색으로 한동안 무대를 지켜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볍게 책상을 손으로 치시며 뒤에 서있던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향하여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지주가 걸어들어오게 하지말고 인력거를 타고 들어오도록 하시오.

순간 창작가들은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형상창조에서 제기되었던 난문제의 하나가 바로 이 지주와 백만이의 등장이었다.

순회는 눈이 멀고 오빠는 잡혀가고 어머니는 병들고 이제 꽃분이마저 빗값으로 끌려가기 위해 달려드는 지주놈의 등장은 꽃분이네 가정의 불우한 운명과 파멸을 말해주는 최후의 선고였다.

그런데 지주가 백만이를 데리고 걸어서 등장하는것은 착취자, 략탈자로서의 포악성이 풍기지 않고 무대적 공간으로 볼 때도 허전하였다.

이런 부족점을 느끼면서도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던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 묘안을 받아안고 한없는 기쁨에 넘쳤다.

인력거, 이 하나의 소도구가 착취사회의 본질을 그 얼마나 예리하게 발가놓으며 지주의 형상창조에서 얼마나 많은 과제를 해결하여주고있는

가.

홍분된 마음안고 어쩔줄 모르는 창작가들을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하나의 형상방도를 튕겨주시었다.

…3장 유흥거리장면에서 술집앞에 인력거를 세워두면 지주가 첫장면에 나오지 않아도 관중이 지주가 술집에 와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전화로 가극창조정형을 료해하시다가 지주가 인력거를 타고 가다가 꽃분이의 집에 들리는 대목에서 지주의 악랄성을 더 보여주는것이 좋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그런데 착취사회의 유물인 인력거를 얻어낼수가 없었다.

온 나라 여기저기에 알아보았으나 인력거는 단 한대도 없고 다만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촬영용으로 둔 그것도 고무바퀴가 없는것이 한대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극창조집단의 요구라면 무엇인들 못해주겠는가고 하시며 그다음날로 인력거와 고무바퀴를 해결하여 보내주시었다.

그리하여 가극무대에 드디어 인력거가 오르게 되었다.

무대에 오른 인력거는 가극의 여러 장면들에서 몇마디의 대사나 설명으로써는 대신할수 없이 지주의 형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인력거는 착취사회를 재현하여 형상한 무대적 생활을 보다 진실하게 펼쳐주며 착취자, 략탈자로서의 배지주놈의 《위풍》을 한층 더 돋구어주었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의 가극무대들에서도 굵주리고 험뻐한 황로인이 배지주가 틀고앉아 호통치는 인력거를 끌고 휘청거리며 나올 때마다 관중들은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참지 못하며 《저 지주놈을 잡아치우라!》고 주먹을 휘두르며 웨치곤하였다.

지주의 연기가 포악하면 포악할수록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꽃분이의 감정이 승화되고 연기형상이 보다 진실하게 살아났으며 원작의 심오한 사상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혁명가극《꽃과는 처녀》를 계급교양의 참다운 교과서, 본보기작품으로 형상하기 위하여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예지로운 착상으로 찾아주신 소도구 인력거, 지난날 천대받는 인민들을 압박하고 멸시하는 도구로 되었던 인력거가 오늘은 가극무대에 올라 지주의 악랄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증거물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주는 교양수단으로 되었다.

빛나는 글발

김성철

버들아지 움트는 보통강 기슭
아담히 일떠선 제 1 고등학교
아직은 개교전이건만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봄빛 넘친 교실에 이르셨네
푸른 빛 칠판앞에 조용히 서시였네

흘러가던 흰 구름도 창가에 내린듯
교정에 설레이던 잎새들도 숨죽이는 이 순간
다투어 떠오르신 글발도 많으시련만
필묵끝을 고루시다 활달히 쓰신
아 《조선》!

추녀 멀리 새무리 날아오르네
창너머 맑은 물결 감취네
희망의 돛을 올린 푸른 꿈들이
과학의 나래 활짝 펼치라고
그이 언제나 소중히 안고계시는
조국의 하늘과 땅
온통 교실에 다 옮겨주신듯

아이들의 눈빛에
창창한 우리의 하늘이 비끼라고
하나의 집을 지어도

세상에 으뜸가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새겨주신 글발

나래치는 희망을 엮어주시며
부푸는 꿈을 펼쳐주시며
《조선》
기대 크신 마음으로 한자
뜨거우신 믿음으로 한자
조국의 미래를
그 총총한 눈빛들에 다 담아주시는 위대한 사랑

창가에 노을이 비껴드네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라-
그날의 통남산마루 맹세속에 불타던 그 노을이
슬기로운 눈동자들 밝게밝게 열어주며
지혜의 꽃망울들 붉게붉게 꽃피워주며

아 첫 수업을 앞둔 이 봄날
위대하신 첫 스승이 되시여
과학도 기술도
무엇을 위해 배워야 하는가를
누구나의 가슴속에 첫 강의로 새겨주신 글발
아아 《조선》!

만경대로 가시던 날

황송명

가시는 걸음걸음
생각도 많으시여
김정숙어머님은 또다시
발걸음을 멈추시였네

아, 만경대
차를 타면 지척이건만
꿈결에도 못잊어 그리시며
그토록 걷고싶던 길

눈보라 울부짖던
숙영의 우등불가에서도
장군님을 모시고 이길을 밟아볼
그날은 과연 언제일가

사향가를 부르시며
마음속에 열백번
걸어보시던 이길

항일의 혈전만리
고난의 그 행군도
오늘을 위하여 헤쳐오신
그날이 아니었던가

이길에 나선 어머님의 마음인듯
설레이며 반기는 가로수
목매여 따르는
대동강의 물줄기

갈마드는 하많은 생각
 반아안을 하많은 기쁨에
 걸음은 더디어도
 마음은 앞서
 고향집 사립문을 열며
 들어서던 날

누를길 없는 환희에 가슴설레이며
 이 길우에 자욱자욱
 어머니 발걸음을 옮기시던 그날은

한생을 장군님을 받들어
 걸음걸음 충성을 다한
 어머니의 평생소원이 풀린 날

어머님과 함께 장장 만리
 백두의 눈보라를 헤쳐왔고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시고
 영원히 함께 갈
 온 나라 우리 인민의
 천만소원도 이룩되는 날이었네

소사하 깊은 밤에

박래설

음산한 동만의 하늘
 쪼각달은 외로이 흘러갔다

바람 사나운 이국의 별판
 어찌다 들리던 뜨내기 길손의 발자국소리도
 처량히 울리던 별판의 말방울소리도
 이미 끊긴지 오래인
 소사하의 밤

강반석어머님은
 조용히 울바자가에 나오시여
 잔별들 반짝이는 남쪽하늘
 오래도록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네

이제 날이 가고
 다시 보름달이 둥글면
 유격대를 못고 남만으로 떠난
 조선의 아들들은 돌아오리니

가리마 정히 빗어넘긴
 정갈한 이마
 아침해살마냥
 고요히 물결치는 미소
 어찌하여 그리도 설레이는가

밤이면 사립문을 나서
 첫새벽 이슬젖어 돌아오면
 김형직선생님의
 귀익은 발자국소리인가
 아니면
 나서자란 땅에 두고오신
 못잊을 이들의 추억인가...

떠나온 만경대는
 예서 천리 또 수천리

사랑하는 사람들
 정든 고향산천은
 그림도록 품에 안기는데

그리움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휩싸안은것-
 그것은 이 시각도
 대오앞에 붉은기 펄펄 날리며
 광복의 길 헤쳐가시는
 아드님의 림름한 모습...

아 얼마나 기다리시던 그날인가
 얼마나 바라시던 장한 모습인가
 - 장하다 암 장하지...
 수만 물방울 해빛받아 빛나는듯
 어머니의 안광에 넘치시는
 그 밝은 미소여

오 원썩을 모조리 베어눕히고
 승전나팔소리 강산에 울리며
 아들들-영웅들은 돌아오리니

어머님은 진정 눈앞에 보시네
 잊지 못할 진달래
 활짝 핀 만경대의 진달래
 눈앞에 방불히 안겨드는 시내가

김형직선생님의
 그리운 노래소리 들리는
 해방된 만경대 고향언덕으로
 어머니는 아드님과 함께 걸으시네

태양은 그 앞길에 빛을 뿌리고
 대지는 천만꽃송이 흔들여
 설레며 반겨웃어라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여섯해전 다정하게 심은 꽃나무
무궁화는 자라서 키를 넘건만
그리운 오빠는 오지를 않네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침저녁 정성다해 가꾸어왔네
머나먼 감옥에서 고향 그리며
오빠도 우리를 생각하겠지

명가사평(제 4 회)

작고 평범한 생활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철학적 세계를 밝힌 명가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에 대 하여-

최윤섭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여섯해전 다정하게 심은 꽃나무
무궁화는 자라서 키를 넘건만
그리운 오빠는 오지를 않네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는 나라 잃고 수난당한 불우한 민족이 피눈물속에서 그려 보게 되는 자주성에 대한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작고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그 형상세계를 완벽 한 경지에 끌어올린 명가사들중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의의있는 종자를 잡는다고 하여 이름난 사람의 생활이나 큰 사건에만 관심을 돌리고 평범한 사람의 생활이나 작은 사건을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 훌륭한 종자는 이름난 사람의 생활이나 큰 사건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생활이나 작은 사건에도 있습니다.》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자면 이름난 사람의 생활이나 사건에서만 아니라 작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문제를 담을수록 그 감화력은 더욱 커진다.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에는 설움과 불행속에서 앞날을 그려보는 랑만적인 생활도 있고 가혹한 학대와 굶주림속에서 모대기는 한 일가의 가슴아픈 심각한 체험세계도 있으며 그들이 눈물겹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심오한 뜻으로 표면화된 철학적인 생활이 탐구되어 있다.

참으로 가사에 탐구된 이러한 뜻깊은 생활은 나라잃고 수난당한 민족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도 유린당하게 된다는 커다란

사상이 한껏 서정화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 든다.

가사는 무엇보다먼저 온갖 설움과 가혹한 불행속에서도 자주적인 생활을 눈물겹게 동경하는 인간의 체험세계가 랑만적인 생활정서적인것과 철학적인것과의 밀접한 통일속에서 깊이있게 시화되고있다.

가사는 꽃분이네 일가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을 찾아내어 거기서 불행과 고통속에 눈물짓는 그들의 비극적인 체험세계와 자주성을 갈망하는 절절한 지향이 선명한 색깔로 부각되고있다.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여섯해전 다정하게 심은 꽃나무
...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침저녁 정성다해 가꾸어왔네

여섯해전 꽃분이네 삼형제가 심은 무궁화꽃나무는 가사의 기본형상바탕으로, 서정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무궁화꽃나무에는 실로 꽃분이네 일가의 심각하고 간절한 운명적인 체험세계가 놓여 있다.

무궁화꽃나무, 여기에는 꽃분이네 삼형제사이에 맺어진 순결한 인정세계가 놓여있고 또한 한 집안에 모여 행복하게 살려는 그들의 지향과 념원, 삶을 잃은 인간이 그것을 되찾으려는 생활의 세계가 담겨져있다.

감옥에 갇힌 오빠를 기다리며 아침저녁 정성다해 무궁화꽃나무를 가꾸는 꽃분이네 형제의 인정세계, 그속에는 벌써 눈물과 랑만의 서정이 굵이

치고있으며 여기서부터 형상의 철학적 심도가 담보되고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명가사들은 시종 자주성을 빼앗긴 인간과 그 운명에 대하여 노래하면서도 그 표상과 내용이 비반복적이고 생활적인 양상에 있어서도 개성적일뿐아니라 그 모두가 매우 작고 평범한 생활소재들인것으로 하여 특징된다.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가 명가사의 본보기로 빛나게 되는 원인도 이와 관련된다.

이 가사에는 무궁화꽃나무와 관련된 꽃분이네 삼형제의 평범한 인정적인 생활이 놓여있다.

가사는 여섯해전 오빠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한 집에 모여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기념하여 정성다해 심었던 무궁화꽃나무에 대한 자그마한 생활을 포착하여 거기서 꽃분이네 일가가 눈물겹게 동경하는 생활이 무엇이었던가를 랑만적인 정서로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가혹한 굶주림과 학대속에서도 꽃분이네 삼형제의 가슴속에서는 남모르게 조용히 움터서 자라나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오빠 철용이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한집안에 모여 행복하게 살려는 꿈이었다. 무궁화꽃나무에는 바로 이들 삼형제의 소중한 꿈이 깃들어있다.

주인공 꽃분이와 순희는 아침저녁 정성다해 무궁화꽃나무를 키웠다. 6년세월이 흘러 무궁화꽃나무는 키를 넘게 자라났다. 했으나 감옥에 갇힌 오빠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와서 무궁화꽃나무는 이들의 가슴속에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설음의 향수만을 더해줄 뿐이다.

이처럼 가사에 탐구된 생활은 작고 평범한것이지만 거기에는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려는 인간의 지향과 의지가 있으며 자주적인 생활을 향유하려는 심오한 철학적 세계가 흐르고있다.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는 작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종자를 골라 잡고 심오한 사상을 밝힐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한 명가사로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가 명가사로 되는것은 또한 생활론리적인것과 생활정서적인것이 하나의 형상적 화폭을 이루면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밝혀낸데 있다.

가사가 담아야 할 생활은 언제나 생활적인 논리성을 가진 구체적인 생활이면서도 반드시 품만한 정서가 배여있는 생활이어야 한다.

가사에서 탐구된 생활적인 논리성은 언제나 생활정서적인것과 결합되면서 서정화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총화되어야 한다.

인물의 외형적인 모습을 그릴것을 요구하지 않는 가사에서는 생활적인 논리적 흐름의 변화속에

서 체험되고 서정화된 주인공의 내면세계가 깊이있게 개방될수록 더욱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게 된다.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는 생활론리적인것과 생활정서적인것과의 결합을 통하여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서정화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가사에는 꽃분이와 순희의 눈물겨운 운명적인 체험이 놓여있으며 이 체험은 무궁화꽃나무가 키넘게 자라난 생활변화의 논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있다.

무궁화는 자라서 키를 넘건만
그리운 오빠는 오지를 앓네

가사에서 보는것처럼 생활을 찾고 그 생활론리적인 변화와 그의 모순에서 커다란 사회정치적 문제가 해부되고있다.

여섯해전에 심은 꽃나무가 이제는 키를 넘게 자라났다는 세월의 흐름과 감옥에 갇힌 오빠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반되는 생활적인 사실에서 환원되는 주인공의 체험은 심각하며 그 체험속에는 자주성을 갈망하는 철학적 논리가 흐르고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6년세월이 흘러 키넘게 자라난 무궁화나무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오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생활론리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면 2절에서는 이러한 생활에서 환기된 인물의 운명적인 체험세계를 보다 절절한 양상으로 서정화된 주인공의 내면세계가 개방되고있다.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침저녁 정성다해 가꾸어왔네
머나먼 감옥에서 고향 그리며
오빠도 우리를 생각하겠지

가사는 인정적인 행동의 세부와 그에 기초한 심리적 및 정서적 체험세계가 생활론리적으로 결합되면서 주인공의 인정심리적인 내면을 정서적으로 더욱 예리화하고있다.

보는것처럼 그리운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침저녁 무궁화꽃나무를 정성다해 키우는 꽃분이와 순희의 행동적인 생활세부에서는 온갖 학대와 굶주림속에서도 새 생활을 지향하는 그들의 생활적인 정서가 굽이치고있다. 또한 머나먼 감옥에 갇힌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환원되는 생활감정에서는 자주성을 빼앗긴 한 일가가 설음과 불행에 눈물짓는 고통의 정서가 예리한 서정으로 시화되고있다.

가사는 이처럼 무궁화꽃나무를 키우는 꽃분이네의 생활과 감옥에 갇힌 오빠 철용이에게로 번져지는 시공간상의 이야기를 생활론리적으로 펴나감으로써 형상의 논리, 형상의 철학성을 훌륭

히 보장하고있다.

이 가사에는 작고도 평범한 생활, 가장 생활적이고 통속적인 생활이 있을뿐이다.

가사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는 혁명

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옥같은 수집편의 명가사들과 나란히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명가사로 우리 문학예술의 문화적 재부로 빛날것이다.

대동강 맑은 물결아

신국봉

아침저녁 정겹게도 가까이 불러주는

대동강 맑은 물결아

물결에 정이 깊어 밤모르고 또 나오니

맑은 마음 더 맑아지고

너는야 나더러

밤도 모르느냐고

물을듯물을듯 감돌아드누나

어이 모르리

오늘은 밤을 몰라도

그날의 밤이야...

빛없이 어둡던 그 세상

몸 하나 가리울 집이 없어

대동강다리아래 거적을 펼 땀

어두운 마음 더 어두워 낮도 밤이었더라

대동강 동쪽너머 기계소리 소란턴

일본놈의 《하야까와》철공소도

나를 내쫓았다

온몸이 쇠가루되어

선반기의 바이트날 지켜보던 눈마저

칼날에 찢려 피가 흘러도

약물 한방울 넣을 돈이 없어

강물을 약이 되라

손에 움켜 피눈물 씻을 때

대동강물결아

너도 피눈물 흘리며

목이 메어 소리없이 흘러갔고

나는 강가에 홀로 남은 몸

고개들어 쳐다보면 하늘도 캄캄

고개숙여 굽어보면 강물도 캄캄

어두운 마음 더 어두워 낮도 밤이었더라

세상은 바뀌어

락원의 강반우에

오늘은 주체의 탑이 높이도 솟아

맑은빛 온 누리를 비쳐주고

다리들도 빛을 받아

충성의 다리, 룡라다리, 옥류교, 대동교

다리마다 넘칠듯 흘러가고 흘러오는

사람들의 맑은 웃음 물속에 비쳐

대동강물결도 더 맑아지고

룡라도경기장도 빛을 받아

15만석의 자리를 보란듯이 차려놓고

세계를 향해 밤을 모르고

금지높이 자랑하나니

대동강 맑은 물결아

밤을 모르는건 나만이 아니구나

새로운 200일전투의 나날들도 밤을 모르고

이천일, 이만일로 이어가나니

묻지 말자

빛을 잃으면 낮도 밤

빛을 받으면 밤도 낮

온 세상이 주체의 빛발아래 밤을 모르고

빛나누나

백두산을 찾아서

최지영

근로자답사단체에 망라된 우리는 혜산을 떠나 보천보, 리명수, 청봉, 백두산밀영을 거쳐 삼지연속영각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서 3일간 묵으며 될수록 날씨 좋은 날을 택하여 백두산에 오르게 되어있었다.

드디어 그날은 왔다.

기다리고기다리던 날이어서인지 답사소는 이른 아침부터 설레었다.

미리 준비해온 비옷을 다시 꺼내보는 사람들, 혈압이 높아 어제저녁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자 다시 한번 혈압을 재겠다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백두산으로 향한 마음들이 끝없이 설레이는 아침이다.

어제부터 지뽀뽀하던 날씨는 개이는듯하더니 끝내 말썽을 부려 비가 내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백두산으로 가려는 마음을 단념하지 않는다. 멀리 백두산쪽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때때로 한줄기 비끼는 아침해빛에 위안을 안고 갈길을 재촉한다.

드디어 4대의 답사용 뺄스에 나누어 탄 우리는 삼지연속영각을 떠났다.

밀림속으로 뻗은 그전날의 《갑무경비도로》에 들어서니 차창밖으로 천고의 밀림이 설레이며 끝없이 지나갔다.

일망무제한 밀림의 바다 한복판으로 곧추 뻗은 《갑무경비도로》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고급뺄스를 타고 달리자니 잊을수 없는 50년전 역사의 그날 장군님을 따라 일행천리전술로 이 길을 걸은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숭엄한 모습에 안겨와 눈시울이 더 뜨거워진다.

뺄스가 《갑무경비도로》를 벗어나서부터는 이 짙나무도 없고 무연한 등판에는 고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이름모를 파란 풀들이 듬성듬성 보일 뿐이다.

사람들은 백두산을 가까이 할수록 더 차창가에 바투바투 다가선다.

예순살이 가까운 농업출판사 일군이며 몇년전 무두봉까지 갔다가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백두산을 오르지 못하고 되돌아간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어 그동안 안정치료를 받고 다시 백두산답사의 길에 나선 평양신문사 론설원아바이, 그런가 하면 처녀들은 앞으로도 갈 기회가 많으니 더 늙기전에 자기가 가야 한다면서 직장에 나온 답사

권을 쥐고 아이들도 가정일들도 세대주에게 다 맡기고 왔다는 어느 상점 책임자아주머니...

이들모두가 나처럼 비바람속에 차창가에 가까와지는 백두산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잠겨있는것이다.

아, 백두산, 백두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나라의 높낮은 산봉우리들과 천만산줄기들을 거느리고 유구한 세월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만고풍상을 다 겪어온 역사의 증견자 백두산, 어둡던 이 강산에 장엄한 해돋이를 불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세상에 전하며 혁명의 성산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백두산,

차창가에 흘러가는 백두의 비바람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잠기는데 앞길 굽이엔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보위색 군복에 배낭을 메고 대오앞에 붉은기를 날리며 씩씩히 행군해가는 대오가 나타났다.

《아니 저 동무들이 우리와 함께 답사입소식을 한 금성정치대학 학생들이 아니요?》

신포수산사업소 어로공 박동무의 말이다.

《그렇구만요. 벌써 50리길을 왔으니 새벽에 떠난 모양이군요...》 곁에 앉은 한 아주머니의 대답이다.

그들은 이번 답사에 항일혁명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줄곧 걷는다고 한다.

그런데 앞산언덕길엔 답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조선인민군 답사대오가 마주온다. 앞뺄스에 탄 원산 갈마고등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소년단넥타이를 흔들며 환호하자 군인들도 백두의 꽃들을 마주 흔든다.

참으로 백두산으로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끝없이 굽이치는 이 길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고급뺄스를 타고 답사하는 근로자들과 소년단원들, 항일혁명투사들이 걸은 로정을 따라걸는 대학생답사, 조선인민군답사행군대오들, 때로는 외국인들을 태운 승용차와 뺄스들이 엇갈리며 백두산으로 짹 차 흐른다.

어느덧 뺄스는 백두산쪽으로 굽어들며 무두봉 어귀에 들어섰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명제비앞에 이르렀다.

화강암 명제비에는 《밀림속을 지나 이렇게 백두산을 눈앞에 바라보며 걸으니 고향집대문을 열

고 돌안에 들어서는것만 같습니다.》라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붉은 글발로 아로
새겨져있었다.

고향집 뜰안!

이 얼마나 뜻깊은 말씀이신가!

백두산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리움과 뜨거
움이 더해지는 마음을 안고 다시 얼마간 더 달려
드디어 백두산밑 백두다리에 이르렀다.

삼지연을 떠나 달려온 100 여리, 이제 여기서
한참동안 걸어 오르면 것처럼 그리던 백두산정점
이 있다.

그러니 여기는 백두산턱밑인것이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아직도 멎지 않고 우리
앞길에 더 세찬 비발을 뿌린다.

차창밖을 내다보니 이 높은곳에도 건물들이 있
고 그옆에는 문열고 들어서면 뜨끈한 아래목과
온돌이 있을 살림집이며 기상관측소건물이 있다.

그 앞마당아래 우묵진곳에는 이곳 사람들의 생
명수인 박우물이 있다.

비바람이 어찌나 세찬지 머리를 들수가 없다.

그래도 백두산밑에 가면 날이 좀 좋아지리라던
희망은 점점 흠어지는것이였다.

참으로 이곳에 아침 9 시에 도착하여 기다리는
마음에 비하면 날씨는 너무도 무정하였다.

어떤 때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렵게 주
위가 온통 어두워지며 당장이라도 하늘이 내려앉
을듯 창살같은 비줄기가 서다가도 잠시후 가뭇없
이 사라진다.

그러면 하늘 한귀퉁이가 빠금이 열리며 두터운
구름의 장벽을 뚫고 한줄기 해살이 백두다리 한
끝을 비치고 그 해빛을 받아 고산지대 풀들이 파
란 잎새들을 한들한들 흔들며 춤을 춘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주위가 천길나락에 떨어지
듯 어두워지며 광풍을 몰아오고 비발을 뿌린다.

참으로 백두산의 날씨란 천태만변이라더니 도
저히 언제 해가 비치고 언제 비가 올지 알수 없
다.

이렇게 저렇게 천지조화를 부리던 날씨는 오후
4 시가 되도록 끝내 하늘을 열어주지 않았다. ...

백두산은 땅속에서 용암이 분출하여 생겨난 불
산이다.

백두산의 제일높은 봉우리는 2,750 메터의 장군
봉이고 높낮은 봉우리들이 천지를 병풍처럼 장엄
하게 둘러싸고있다.

천지의 넓이는 9,165 평방키로메터이고 둘레는
14.4키로메터이며 제일깊은곳은 384메터나 된다.

백두산의 최고기온은 18℃이고, 최저기온은 -
47.5℃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추운곳이다.

부석이 덮인 산정에 사시장철 흰눈을 이고있다
고 하여 백두산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교양실에서 강사의 강의가 끝나자 우리는 험한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두다리를 떠나 백두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비바람에 한치알도 가려볼수 없고 다만 옮기는
앞사람의 발꿈치만이 눈앞에 보일뿐이다.

비바람은 몰아쳐도 바닥은 부석들이 깔리어 별
로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가 좋았다.

변화무쌍한 날씨는 오르는 길에 비발을 뿌리고
머리우에선 안개와 비구름이 종횡무진하며 수시
로 번개를 일으키다가도 가뭇없이 사라지며 날이
밝아지기도 한다.

그때면 순간에 눈썹리 아득히 백두산끝짜기가
나타나고 백두의 꽃들이 우리를 반긴다.

드디어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맞붙은것 같고 비
바람과 구름들만이 뛰노는 백두산마루 백두산사
적비앞에 올랐다.

《장군봉이다!》, 《장군봉이다!》 여기저기서
결승선을 앞에 두고 달리는 선수들처럼 예순나이가
다된 농업출판사 일군도 혈압이 높다던 평양
신문사 논설원아바이도 모두가 뛰여오르며 환성
을 올린다.

《백두산이다! 백두산아, 우리가 왔다!》 순간
그 소리에 하늘이 열려지는듯, 비바람도 숨을 죽
이는듯하다.

말만으로 들어오던 백두산 상상봉에 올라 하늘
을 쳐다보니 온통 하늘뿐이다. 둘러보면 거창한
하늘우에 우리 서있는듯, 둘러보면 발밑에 누운
듯 거창하게 펼쳐진 대자연, 백두련봉의 특유한
부석들이 눈길 모자라게 깔리였다.

천지쪽을 내려다보면 뿌연 비구름만이 오고갈
뿐 천지의 푸른 물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구름바다우에 까만점이 나타났다 사라
졌다 할뿐이다. 그것이 천치라 한다.

그 비구름이 갑자기 물러와 덮으면 백두산상에
그 무엇이 부딪치듯 요란한 천둥번개가 울며 비
발을 뿌리고는 순간에 사라진다.

들리는것은 머리우 발아래 그 어디서나 천둥번
개를 일으키는 요란한 우뢰소리뿐 그 혼한 새소
리 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커다란 감동을 안고
뛰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이곳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영상이 우뚝이 안겨왔다.

대를 이어 찬란히 빛날 주체혁명위업!

백두산에 오른 우리들은 모두 주체위업을 받들
어가는 당의 전사들이 아닌가.

이런 숭고한 자각을 다시한번 가슴뿌듯이 느끼
게 하는 백두산!

우리가 백두산에 오른것은 바로 이런 자각과
행복을 더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말해다오, 백두산이여!

노래해다오, 백두산이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르는 우리
의 공지, 우리의 영예를! ...

우리는 비오는 날이지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기 렌즈가 안개와 비물로 뿌옇게 흐려졌으나 닦고닦으며 찍는다.

저저마다 사진이 잘 안되어도 좋으니 비오는 백두산의 그 장엄한 모습을 영원히 가슴에 안고 남기자는 것이다.

맑게 개인 백두의 천지는 완전히 보지 못했어도 뜨거운 마음속에 이미 선명하게 자리잡은 백두산, 비바람속에 천태만상을 펼치며 조선의 억센 기상을 자랑하는 백두산을 본 자랑과 긍지를 안고 우리는 백두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걸음 한걸음 옮길수록 그날의 항일혁명투사들의 뜨거운 숨결이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백두

산!

그렇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철부지때 해지는 줄 모르던 고향의 그 들길이 아니다.

끝없는 행복이 물결쳐흐르던 유보도의 그 화려한 길도 아니다.

조국땅 한줌의 흙을 안은채 만리광야에 쓰러진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뜨거운 념원, 그들의 높은 숨결을 우리의 심장속에 새겨주는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해와 별 찬란한 주체시대와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나리라.

우리는 걸음걸음 마음 뜨거워지는 백두산을 심장속 깊이 새기며 백두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 온다. 비바람도 여전히 드세차다.

그러나 마음속엔 노을이 불란다.

대동강반에서

계 훈

나는 생각 못했노라
여기 해빛밝은 대동강반
봄물이 넘치는 유보도란간에 기대여 서서
내 이렇게 두볼을 적시며
눈물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될줄은

방금전... 러객선이 떠나자
물머리 치여돌고 달려드는 파도가 좋아
물결따라 까불며
유보도층계를 오르내리던 한 소년
그만 강물에 빠졌었네

하늘가의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황급히 나래치는데
사람들은 소년을 건져안았네
허나 어이하라
아이는 벌써 잠들었는가

빨간 불 켜고
다급한 경적을 울리며
구급차는 왔네
하얀 위생복차림의 의사선생
정한 손길로 소년의 가슴을 어루만졌네

죽음을 맞받아
기세를 올리듯
땀젖은 주먹을

꼭 틀어쥔 사람들
성벽마냥 둘러싸고 숨을 죽였네
그 작은 가슴에 숨결을 부어주고싶어...

순간-
소년의 흰가슴 가볍게 들먹이더니
첫숨을 터놓았네
그 고운 뺨에 피어나는 생명의 홍조...

그만 흑-
원예사아주머니는 감격을 터쳤네
남시군할아버지의 귀한 주름우에
주르르 더운 눈물방울이 흘렀네
유보도를 거닐던 처녀와 총각은
눈물젖은 손을 꼭 마주쥐었네

오, 봄빛이여 넘쳐라
오, 꽃이여 만발하라 향기넘쳐라
아름다운 마음 지닌 이 사람들에게
복받은 이 시대에 노래를 주라

얼음 풀린 저 강물마냥
가슴 터놓고 정나누며 사는 이 세월-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이 있다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눈물, 이런 눈물이 있다는것이!

알려지지 않은 위훈

김삼복

따뜻한 봄이 오면 이 계절과 함께 많은것이 시작된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흰김을 뿜어올리고 잔디가 파릇파릇 돌아나며 새들이 노래부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까닭모를 즐거움이 찾아들어 새로운 희망에 가슴 부풀게 하며 거리의 움직임도 한층 활기에 넘친다.

그러나 여기 광복거리 건설장에서는 이해의 봄과 함께 많은것들이 끝나가고있다. 공공건물들에 마지막 문을 달고 고층 살림집들이 한동, 두동... 련이어 완공되어 창문들에 불빛이 빛나며 지대들에 대한 정리도 끝나가고있다. ...

어느날 기자는 건설이 끝나가고있는 30 층 살림집을 찾아들어갔다. 그는 봄물이 오르는 은행나무들이 줄지어선 보도를 따라 걸어왔는데 봄기운은 내부 마감손질을 하느라고 분주히 움직이는 건설자들의 얼굴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기자도 즐거웠다.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으며 18 층까지 올라가서야 기자는 목적인 리상현대대장을 만날수 있었다 어디론가 급히 가는것을 복도에서 붙들었다.

눈이 크고 광대뼈가 푹 볼거진 사람인데 잠시도 진정할줄 모르고 울퉁거리기 잘하는듯한 인상이었다.

기자가 자기 소개를 하자 리상혁은 악수를 하며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데 별로 반기는 기색은 아니었다.

《시간을 좀 낼수 있겠습니까?》

《난 지금 좀 바쁜데... 우리 정치지도원동무를 만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기자는 대대를 잘 이끌어 지휘상까지 탄 리상현대대장과 이야기하고싶어서 온것이다. 그렇지만 바쁘다는데야 어찌겠는가?

기자는 그를 놔주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화창한 날씨에 밖에서와 안에 들어와서 느끼게 되었던 즐거운 기분이 흐려지기까지 했다.

기자는 취재계획을 바꾸어 려단정치부장을 찾아갔다.

려단정치부는 2 층에 있다. 기본적으로 완공된 살림집의 한 세대를 립시로 쓰고있었다.

키가 작고 몸이 쇠덩어리같이 단단해보이는 사람이 결상에서 일어서며 기자를 맞이해주었다. 기자는 이 정치부장과는 구면이다. 나이도 많고 매우 침착한 사람이어서 려단에서는 그를 아바이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다가 귀밀에 전쟁때 부상당한 상처자리가 있어서 더욱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방안에는 한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는 정치부장

에게서 무슨 과업을 받고있었다. 새로운 200 일전투의 마지막을 앞둔 때인것만큼 정치부에서도 그에 상응한 대책들이 취해지고있을것이다. 기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만큼 별로 눈여겨 보지 않았다. 키가 호리호리한 젊은 청년이었다.

정치부장은 그가 나가자 작업복 앞자락을 활해치며 미소를 머금고 기자에게로 다가왔다.

《기자선생, 오래간만이요. 어떻게 이렇게?...》

《리상현대대장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번 경쟁총화에서도 1 등을 했는지요?》

《여부가 있소? 그는 정말 큰 일을 해놓았소.

리상혁이를 만나오!》

정치부장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미 만났습니다. 두세마디의 말밖에 주고받지 못했지만!》

기자는 의아해하는 정치부장에게 방금전에 있는 일을 다 이야기하였다. 물론 기분이 흐려졌다는 자기의 심정까지 털어놓았다.

정치부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리상혁이는 성미가 원래 그렇소.》

《그런데 대원들이 그를 따릅니까? 내가 듣기에는 대대가 단합된 집단이라고 하던데요?》

정치부장은 이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그것을 열었다. 거리와 건설장의 소음이 먼저 날아들고 이어 훈훈하면서도 저오키 쌀쌀한 봄바람이 흘러들어왔다.

정치부장은 일에 열중하느라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고나서 다시 기자에게로 가까이 와 앉았다.

《리상혁이네 정치지도원을 아오?》 그는 대답대신에 이렇게 물었다.

《모릅니다. 지휘부선전분과에서는 대대장동무에 대해서만 말하던데요.》

《방금전에 여기 있다가 나갔는데, 명준이라고...》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저 새파랗게 젊다는 인상뿐입니다.》

정치부장은 웃었다,

《그렇소. 새파랗게 젊었소. 스물아홉살이요. 기자동무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리상혁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오. 그렇지만 그자신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들지 못할거요. 그는 자기 자랑을 하는 법이 없소. 그대신 그 젊은 정치지도원 이야기는 들을수 있을게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소. 이야기인즉 이렇소.》

담배를 집어들고 매만지며 정치부장아바이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초기에 리상혁대대는 다른 대대들과 함께 지금의 이 30층 살림집건설에 붙었다가 봉사망건물을 짓는 단독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리상혁대대가 그중 일을 제킬것 같아보여 러단에서 그 일을 맡겼다. 봉사망건물을 빨리 지어야 했던것이다.

리상혁은 러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해제끼기 시작했다. 골재와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실어들여야 했고 작업조직도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리상혁은 그 모든 일을 한어깨에 걸머지고 동분서주하며 일숨씨를 보이었다.

그는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할줄 알았다. 그는 소대장들에게 과업을 푹푹히 알려준 다음 자기는 작업장이 아니라 골재를 실으러 자동차를 끌고 나갔다. 《골재와 자재만 있으면 집은 올라간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대동강가에 꾸린 골재장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있었지만 모두 동시에 집들을 일떠세우고있으니 여간 이악하고 날래지 않고는 그것을 제때에 실어들일수 없었던것이다. 골재장이 복잡한데다가 자동차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기동러단에서 대대에 배당되는 화물자동차들은 언제나 만족스럽게 그리고 스스로 굴러오는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리상혁대대장의 사업적 수완과 열성이 은을 냈다.

그는 군대때 자동차운전사여서 그자신이 직접 차정비를 해주기도 했다.

어떻든 대대장이 보장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내민탓에 작업장에서는 일이 잘되어나갔다. 러단에서는 리상혁대대의 이름이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대대의 이름도 그 못지 않게 입에 올랐고 속보에도 났다. 리상혁이네는 더 전진을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리상혁대대장은 저녁총화때마다 소대장들을 추궁하였으나 큰 개선은 없었다. 특히 2 소대는 축조작업에서 계속 뒤떨어지고있었다.

어느날 성이 몹시 난 대대장은 대동강가에 가서 모래를 싣고와서 그것을 부리우는 사이에 2 소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는길에 정치지도원 영준이를 보았다. 영준이는 속보판앞에서 속보를 쓰고있는 직관원에게 무슨 지시를 주고있다가 대대장을 만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소.》

하고 대대장은 민도끝도 없이 툭 내쏘았다.

《뭘말입니까?》 영준이가 의아해서 물었다.

《2 소대말이요.》

대대장은 봉사망건물의 간벽을 축조하고있는 2 소대로 히히 걸어갔다. 영준이는 대대장의 기상이 좋지 못한것을 보고 말없이 뒤따라갔다.

마침 2 소대는 휴식시간이었다. 어제저녁에 대대장으로부터 몹시 욕을 먹은 2 소대장은 즉시 작업시작 구령을 내렸다.

모두 일어서서 분주히 돌아갔다. 그런데 한 청년은 그냥 앉은채로 두덜했다.

《휴식시간이 아직 10 분 더 있는데, 췌!...》

대대장이 그 소리를 들었다.

《동무, 이름이 뭐요?》

청년은 마치 못해 굼뜨게 일어서며 대답했다.

《박기호라고 합니다.》

《동무는 10 분간 마저 쉬고 일어나오.》

대대장은 더욱 기분이 잡쳤다. 물론 소대장이 지내 약삭빠르게 행동한것은 있지만 그러나 일단 구령이 떨어지면 일어나야 할것이다.

대대장은 소대장을 불러 작업추진정형을 알아 보았다.

《오늘중으로 여기 벽체축조를 끝내지 못하겠구만? 왜 이렇소? 동무, 안되겠구만! 일을 내밀지 못해. 소대를 틀어쥐고 전개할줄 모른단 말이요. 그리구 방금전에 그게 뭐요? 내가 나타났다가 시간도 되기전에 대원들을 일으켜세워? 내 얼굴이 다 뜨겁소. 그런 얄은 열성은 걸어치우란 말이요.》

2 소대장은 소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푹푹히 망신을 당했다. 일이 안되는 사람은 자빠쳐도 코가 깨진다더니 2 소대장이 어째서 그렇게 행동했겠는가? 대대장의 입에서 《계획도 제대로 못하면서 휴식이야?》 이런 말이 나올것 같아 겁이 났던것이다.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박기호가 소대장을 걸고들어서 다른 방향으로부터 대대장의 추궁을 받았다.

저녁에 2 소대장은 어깨가 축 처진채로 정치지도원 영준이를 찾아왔다.

《정치지도원동무, 저는 건설이란건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대대장동무가 소대에 자주 내려와서 실정도 료해하고 방법도 좀 대주면 안됩니까? 그저 내밀라는 독촉뿐이고 명령을 준 다음에는 총화만 엄격하게 하지요. 우리 소대는 좀 복잡합니다. 낮에 박기호가 노는 꼴을 보았지요?》

정치지도원 영준이는 2 소대장에게 누구는 건설을 해보던 사람들인가. 해봤다 해도 구역에서 작은 건물이나 지어보았다. 그러나 광복거리 건설은 최상의 질과 속도를 요구하는 그런 건설이다.

때문에 대대장이 요구성을 높이는것인데 동무는 눈치놀음이 있고 일에 몸을 잠그지 않는다 하고 비판을 해주어 보냈다. 그러나 그는 2 소대장의 제기를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대대장에게는 간과할수 없는 결함들이 있다. 2 소대장의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 특히 대대장이 나와 정상적으로 사업을 토론하고 의논하는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만 몇마디씩, 그것도 의논하는 식이 아니라 과업을 주는 식으로 말하곤하는것은 나를 실망케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대가 전진을 더 하지 못하게 된 주되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영준은 대대장과 담화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상대가 대대장인것만큼 심중성이 필요했다. 더구나 리상혁은 영준이보다 나이가 열뒤살우이다. 그래서 어렵게 대해오던 영준이었

다.

대대장은 나이 어린 정치지도원에 대하여 영준이라는 인간보다도 정치지도원이라는 위치를 존중하여 공식적으로 대하였다. 그는 꼭 《정치지도원동무》라고 불렀다. 당사업경험이 어려서 별로 도움받을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까?

영준이는 지금 저으기 긴장되었다. 어차피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잡아야지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대대는 지금의 답보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대대장에게 충고를 주자면 정치지도원의 방에 정중하게 불러다가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영준이는 시공참모가 왔다갈 때 대대장을 자기 방에 좀 와달란다고 부탁했다.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의 침실겸용의 사무실은 나란히 붙어있었다. 그때는 야외에 가설건물을 짓고 일하던 때였다. 문을 열고 나와 두발자국만 땀면 된다.

그러나 이런 때는 정치지도원이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준이는 앉아서 기다렸다.

한동안 기다렸다. 무엇때문에 오지 않을까? 하루 총화는 이미 끝난 것이고, 지금 정치지도원과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하거나 중요한 용건은 없을 터인데...

손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었다.

대대장 리상혁의 광대뼈 두드러진 철색의 얼굴에서 두눈이 번쩍거리어었다.

《정치지도원동무, 나를 찾았소? 무슨 일이요? 기동려단에 가봐야 하겠는데?...》

영준이는 대변에 얼굴이 해색해졌다.

《좀 들어오십시오.》 하며 그는 몸을 일으켰다.

리상혁은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으며 담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말을 하시오.》

결상에 다시 앉은 영준이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물었다.

《기동려단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시내 기관, 기업소에 있는 운전사들이 야간 지원로동을 나오는데 차 몇대를 받아서 골재를 나르려고 하오.》

《혼자서 말입니까?》

《내 혼자 하지 밤에 대원들을 일시키겠소?》

《무슨 일이든 의논을 하고 군중을 발동시켜 해야지 혼자서야 힘들어서 해냅니까? 더구나 밤에...》

《골재보장은 일없소! 걱정 마오.》

《아니, 나는 걱정이 됩니다.》

대대장은 놀라며 영준이를 바라보았다.

《뭐가?》

《대대장동무는 골재와 자재만 보장해주고 소대장들에게 지시만 하면 집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보다 큰 성과

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소대가 왜 축조계획을 미달하였습니까? 자재는 충분했는데...》

대대장의 광대뼈와 볼의 근육이 움찔거리어었다.

그는 내뱉듯이 말했다.

《2 소대장이 야단이요. 대원들을 틀어쥐지 못하고 주대가 없어!》

《그러니까 대대장동무가 도와주어야지요. 명령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바라오?》

《모르겠습니까?》 영준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떨리었다. 《요전에 2 소대에 나가서도 2 소대장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대대장은 입을 약간 찌글서하고 영준이를 쳐다보며 듣기만 했다. 책상물림으로 보았던 영준이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있지 않는가. 아주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것보오, 정치지도원동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나더러 작업장에 붙어있으라는 소린데, 그러면 골재는 정치지도원동무가 대신 해주겠소?》

《내 말이 납득되지 않습니까?》

영준이는 진지한 얼굴로 되물었다. 그는 끝까지 정중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바로 그 작업장에 붙어있는것, 정치사업은 정치지도원동무의 몫이 아니요? 그래서 하는 소린요.》

《내 말을 이해 못했군요.》 영준이는 서운했다.

《나는 이해했소.》 하며 리상혁은 일어섰다.

그는 정치지도원의 말에 리해가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영준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골재도 보장하고 작업장에도 붙어 있고, 몸은 한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도 빈구석이 있을 수 있다. 정치지도원의 요구는 리론상의 요구다. 일이 잘 안되면 아무래도 대대장이 책임져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애당초에 정치지도원이 자기 방에 앉아서 자기를 불러다가 어찌구저찌구 하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더욱 엇서게 되는 것이었다.

《다른게 더 없소?》 대대장은 나가려고 하였다.

《한가지 더 말한다면》 영준이가 그를 멈추어 세웠다. 《앞으로는 저와 협의를 자주 했으면 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상혁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소. 그러나 대대장은 자기의 주권이 확고해야 하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영준은 오래동안 까딱 움직이지 않고 결상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입술에 피가 지도록 짙게 물었다.

(뜻밖이다. ... 설마 이렇게까지 나을줄은 몰랐다. 내 말이 어디 하나 그른데가 있는가. 나는 진정을 다하여 말했다. 그런데 그는 푸르딩딩해서 나의 동의도 없이 훌쩍 나가버렸다. 사실 이 건 너무하다. 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양문제가 아니겠는가.)

성미드세고 자존심이 강한 대대장과 앞으로 같이 일해나가기가 매우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혹시 마음이 맞겠는지... 아니, 그렇게 마음을 맞추는것은 그에게나 나에게나 다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다.

정치지도원 영준이는 온몸이 서서히 달아오르는것을 느꼈다.

려단정치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뒤끝에 정치부장아바이는 영준이를 좀 남으라고 하였다.

《동무네 대대가 어떻게 된거요? 어떻게 되어 일이 잘 퍼나가지 못하오?》

아바이는 물론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의 그 합의 점에 도달하지 못한 담화해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과로 인한 이러저러한 현상들, 합심이 못되고 실적이 떨어지고 언쟁들이 벌어지는 등 크고작은 일들은 더러 알고있었다.

깊은 숨을 돌이키고나서 영준이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다 말하겠습니다.》

《말하오.》

《이렇게말하게 되는것이 괴롭고 쓰리긴 하지만 정치부장동지. 우리 대대장동무는 판로주의가 심하고 행정만능, 독단이 강합니다.》

《음-, 계속하오.》

아바이는 뒤짐을 지고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저는 구역당지도원으로, 다시말하여 전문 당일군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겨우 한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힘에 부칩니다. 리상혁동무와 일을 같이 못하겠습니다. 다른 유능하고 경험있고 나이도 좀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제기하렵니다. 이 건 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원래 구역당에서 대대를 편성하면서 저를 정치지도원으로 임명했을 때 저는 책임비서동지에게 이런 제기를 했더랬습니다. 당사업경험도 어린데 어떻게 한 집단의 정치책임자로 단독임무를 수행할수 있겠는가. 더구나 당의 구상따라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광복거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건설에 참가하는데 만약 내가 정치사업을 서툴게 해서 대대가 일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 파오는 영영 씻을 길이 없지 않는가. 심중히 고려해달라...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책임비서동지는 심중한 얼굴을 하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고려없

이 동무를 정치책임자로 보내겠는가. 물론 힘이 들것이다. 그러나 대대장을 좋은 동무로 정했으니 마음 놓을수있다 하는것이였습니다. 구역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에서 과장으로 일하고있는 리상혁동무에 대해서는 저도 어지간히 알고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에 대한 통솔력이 있고 일을 내미는 솜씨가 있어서 구역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건설사업에 돌격대 대장으로 자주 뽑힌 능력있는 일군이였습니다. 뺨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며 과묵하지요. 더구나 한때 구역당지도원으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대장으로 선정했으니 아마 구역당에서도 마음을 놓고 나처럼 경험미 어린 사람을 정치지도원으로 달아주었겠지요. 나는 리상혁동무가 대대장으로 같이 간다는 책임비서동지의 말을 들었을 때에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자! 내 힘껏 대대장동무를 뒤받침해주리라. 이처럼 영예로운 수도건설자의 대오에서, 유능한 대대장을 가진 유리한 조건에서 내자신이 배우며 당사업경험을 축적해가리라... 이렇게 마음다졌습니다.》

《음.》 정치부장은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영준이는 리상혁대대장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허물어지게 되었으며 실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래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나를 교체시켜 달라, 이거겠소?》 정치부장이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물었다.

《예!》

《내 결심부터 먼저 말하겠소.》 정치부장의 엄한눈이 영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동무를 여기에 그냥 놀려두어야 하겠소. 동무는 경험이 어리오 뭐가 어리오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게 아니요. 동무는 아주 나약하오. 시련을 겪어보지 못했소. 군대 나갔겠소?》

《예...》

《모르겠소. 동무에게 무슨 제대군인다운데가 있소?》

영준이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그러면 제가 대대장동무와 맞서서 싸웠어야 했습니까?》 하고 그는 반발했다.

《그러면 동무는 정치일군이기전에 인간이 아니지. 동무네 대대장은 일군이요. 일을 제किन말이요. 물론 그에 대한 의견이 더러 제기되고있소. 완성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럴수 있지. 때문에 동무가 그를 도와주어야 한단 말이요. 합심해서 대대를 잘 이끌어야 해!》

이러한 담화는 영준이를 몹시 가슴아프게 했다. 사실 자기도 그러자고 하지 않았던가.

어떻든 물러설 길은 없다. 영준이는 아바이의 말을 들으며 바로 이것을 절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아바이가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려단에서 보면 정치일군들이 사람

들을 교양하고 가르치는 일은 잘하는데 자신들도 교양되고 수양을 쌓아야 한하는데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있소. 영준동무, 동무도 대대의 일을 근심하고 대대장은 생각했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있소. 동무네 속보내용이 과장되기도 하고 주인공을 바로 정하지 못하게도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소.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겠소. 그리구 심중한 충고를 준다고 해서 동무가 꼭 대대장을 자기 방에 불러들여야 하겠소?》

이 말에 영준이는 얼굴이 다시 화끈해졌다. 그때는 그것이 옳아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유치하고 졸렬한것이였다. 정치일군의 권위는 틀을 차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성실성과 자기 희생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 등에 있다는것을 배웠고 듣기도 많이 했지만 실천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항차 리상혁에 비하면 내따위가 뭐란 말인가.

아바이의 충고는 심각한것이였다. 다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 대대로 내려가서 다시 대대장과 얼굴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저절로 울적해지는것이였다....

정치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기자가 참다못해 한마디 했다.

《사실을 말하면 대대장동무가 옳지 않지요. 나는 아까 그 동무가 나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구역당지도원도 했고 세상 물정에 뻔하겠는데 정치지도원의 충고를 그렇게 대한다는건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부장동지는 정치지도원에게 것처럼 가슴에 맺힌 말로 아픈 지적을 했던 말입니다. 옹호해주고 힘을 줄 대신에...》

정치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옹호해주고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소? 그러나 나는 영준이를 구역당에서 정치지도원으로 공연히 보내지 않았다는걸 생각하게 되였소. 별처럼 반짝이는 그의 맑은 눈을 보느라면 나 자신이 나의 생활에서 무슨 때가 물어있지 않는가 하고 부끄럽게 돌이켜보게 되요. 나는 그가 마음에 들었소. 훌륭한 당일군으로 키우고싶었소. 그래서 아픈 매를 안긴거요. 그리고 그에게 아직까지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소. 또 사실 그는 미숙한데가 많단 말이요. 열성은 있는데...》

대대장과 단들이 얼굴을 마주하는것이 어색하고 또 무엇해서 영준이는 될수록 현장에 나가있으려 했다. 그리고 응당 그렇게 해야 할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정치일군이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하겠는가.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정치부장도 그것을 강조했다. 대대장이 현장에 잘 붙어있지 않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하든지 대대장의 빈 구석을 자기가 힘자라는껏 메꾸어야 했다. 어찌겠는가. 대대의 일이 잘되어야 하지 않

겠는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대대장을 돕고 일깨워주자. 아니, 우선 나자신을 수양하자. 나자신이 사람들도 잘 알고 정치사업도 잘하는 유능한 정치일군으로 되자. 영준이는 이렇게 각오를 굳게 했다.

영준이는 우선 2 소대에 나가서 소대원들과 같이 생활하기로 하였다.

대대는 그사이에 봉사망건물의 2층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2소대는 외벽 조립을 맡았다. 부재를 기중기로 들어올려서 조립을 한다.

부재를 붙잡아서 제 위치에 세우는 조립작업이 제일 기술을 요하며 또 어려운 작업이다. 영준이는 거기서 일하고있는 박기호를 보았다.

영준이는 부재를 바로세우느라 붙잡고 돌아가는 박기호옆에 가서 그를 거들어주었다. 박기호는 한번 흘끔 돌아볼뿐 더 말이 없었다. 그는 두덜대는 버릇이 있었다.

《현장에 침투하셨습니다까?》

다른 부재를 기중기가 들어올릴 사이의 시간을 타서 담배들을 피워물었을 때 그가 영준이 보고능청을 부렸다.

《2소대와 함께 살아보자는거요.》

《우리 소대를 추켜세우자는거겠지요?》

《아닌게아니라 동무네 소대가 일을 잘 못해, 왜 그렇소?》

박기호는 입을 삐죽했다.

《내가 뭐 압니까. 제가끔 자기 생각이 있지요.》

그는 대답을 피했다. 그는 분명 무슨 불만과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영준이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과 함께 현장의 전반적인 형편도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간벽 축조에 쓸 규격블록크가 얼마 없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현장에서 대대자체가 찍어서 쌓아야 하는건데 그것이 딸리게 되면 간벽 축조가 뒤떨어지게 되며 따라서 전반적인 작업속도와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대장이 현장에 침투하지 않으니 이런것을 보지 못한것이라고 영준이는 생각했다.

영준이는 2 소대장에게 한개 분대의 인원을 당장 축조작업에서 떼내어 블록크를 찍으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말썽거리로 될줄이야...

저녁총화때 대대장은 기상이 엄엄했다. 그는 2 소대장을 일으켜세워놓고 왜 도중에 작업변동을 시켰는가고 따졌다.

《빨리 블록크를 찍지 않으면 다음 공정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 소대장이 대답했다.

《그 생각은 옳게 했소. 그런데 대대장은 뭐 그런 생각이 없으줄 아오!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작업조직을 하는줄 아는가! 그건 다른데서 같은 규격의 블록크를 실어오기로 되어있소. 거기서 쓰고 남은거요. 알겠소? 오늘저녁에 뒤차

분이 들어오오. 오늘 밤교대인 3 소대에서 한게 분대가 이 작업을 하게 될게요.》대대장은 눈알을 펴 펴 굴리었다. 《2 소대장동무, 그런데 동무가 도중에 자의로 작업변동을 시켰으니 다른건 둘째치고 새 작업준비를 하느라고 어물거리며 랑비한 시간은 어떻게 하겠소? 결국 외벽조립작업도 제대로 못했고 블로크도 좀 찍다 말았던 말이요!》

리상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두들겨댔다.

일어선 2 소대장보다 앉아있는 정치지도원 영준이가 더 바빴다. 대대장의 말을 듣고 보니 잘못되었다. 그는 등골로 땀이 흐르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한 영준이는 불깃해진 얼굴로 대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대대장동무, 2 소대장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내댈때는 창발적으로 지시한것입니다, 대대장동무는 끝재장에 가서 없고 해서...》

《...》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앉아있었다. 영준이에게는 그러한 침묵이 더 괴로웠다.

얼마후 리상혁은 좀 완화된 얼굴로 2 소대장에게 말했다.

《앉소. 내 자주 동무를 욕하는데 뭐 특별히 미워서 그러겠소? 일을 창발적으로 하려는건 좋아. 대대장이 동무곁에 밤낮 붙어있을순 없으니까. 그렇다고 왕창같은 일을 벌려놓으면 안돼! 이만 합시다.》

작업총화는 끝났으나 영준이는 대대장이 블로크를 다른데서 실어오겠다는 말 한마디만 미리 자기에게 했더라도 이런 실수, 이런 망신은 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에 멎혀 좀처럼 삭일수 없었다.

(정치부장동지, 자, 이렇습니다! 그가 정치지도원을 얼마나 무시하고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정치부장아버이의 엄한 눈이 그를 바라보는듯했다.

(동무가 잘못하지 않았나? 본의아닌 행동이라 해도 어쨌든 행정대행을 했어! 진실이 리해될 때까지 행동으로 잘못을 씻소.)

머리를 부둥켜쥐고 모대기던 영준이는 천천히 일어섰다. 소형규격블로크를 날라오는 3 소대나가보려는것이였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집들에서 기증기들이 부채를 물어올리고 신호공의 호각소리가 들린다.

용접불꽃이 된다. 밤을 모르는 건설장! 차라리 정치지도원을 그만두고 평범한 대원으로 온몸이 피로에 지쳐 노그라질 때까지 한껏 일하고싶다. 그렇게 일하고 목욕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 동무들과 같이 침실에서 덩굴며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신없이 잠에 빠져드는 그 단순하고 시름모르는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좋으랴. 얼마전

에 3 대대와 휴식일에 축구를 했는데 영준이는 10 번 위치에서 공격수로 맹활약을 했다. 그때는 정말 좋았다. 나이는 젊지, 힘은 남아돌아가지 영준이는 아이들처럼 소리를 치며 뛰어다녔고 심판이 저쪽에 편심한다고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까지 했다. 정치지도원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공격수 10 번으로서 우리 대대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였다. 그래서인지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

영준이는 블로크를 운반해오려고 자동차를 타는 3 소대동무들에게로 갔다.

《정치지도원동지, 저희들하고 같이 가실래요?》

처녀의 쟁쟁한 목소리가 적재함우에서 들려왔다. 이 처녀는 노래를 잘 부르는 김명옥이였다.

영준은 자동차에 올라탔다.

《자, 떠나자구.》 소대장이 소리쳤다.

자동차가 달리자 김명옥이가 노래를 불렀다.

영준이는 3 소대원들과 같이 블로크운반작업을 하며 땀을 흠뻑 뺐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그 처녀의 노래를 듣기란 참으로 즐거운 일이였다. 아프던 머리가 다 거뿔해졌다.

대대는 각이한 취미와 개성을 가진 사람들로 무어졌다. 그러나 그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 비슷비슷해보이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김명옥이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처녀가 있는가 하면 박기호처럼 두덜대며 능청스러운 청년도 있고 2 소대장처럼 늘 욕을 먹으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아직 영준이가 모르는 대원도 많다. ...

이튿날 2 소대에 다시 갔을 때 박기호는 구면친구처럼 인사를 했다. 어제와는 판판이다.

《진짜 우리 소대와 함께 살아보자는겁니까.》

그는 우정 놀라는척하며 물었다.

《왜 내가 오게 싫소?》

《아닙니다. 왜 싫겠습니까. 로력이 하나 공으로 생겼는데요.》

그러자 옆에서 웃어댔다.

영준이도 웃었다.

《야 이 친구봐라. 나를 공로력으로 보는구만.》

《그렇지 않구요.》 하고 박기호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이런 통말로 인사가 시작되였는데 박기호는 얼굴이 빨개서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한낱쯤되어 박기호가 영준이에게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것이였다.

《정치지도원동지, 아까 내가 왜 공로력이라고 한줄 압니까? 지도원동지는 너무 고지식합니다. 우린 다 압니다. 건설자들이 모르는게 있는줄 압니까! 블로크찍는 일이야 뭐... 우린 지도원동지가 같이 있어주지만 해도 힘이 됩니다.》

영준이는 가슴이 뭉클해왔다. 박기호네는 어제 있던 영준이의 잘못을 두고 가슴아파하는것이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이것은 그가 영준

이를 믿고 아끼기때문일것이다. 아니, 집단과 조직을 아끼고있다.

영준이는 힘이 생겼다. 이 사람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느낌과 지향을 몸에 체현해야 할것이다. 하여 그들의 심장을 움직일 때 대대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것이다. 저것이 진짜 대대장을 도와주는것이다.

저녁에 영준이는 2소대가 든 숙소로 찾아갔다. 소대원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기타를 타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한쪽에서 장기도 두고있었다.

《서툴구만. 주오.》영준이는 기타를 타는 청년에게서 기타를 받아들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소대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를 둘러쌌다. 목달개를 달던 소대장도 입을 벌리고 영준이를 바라보았다.

중학교때와 군대때 배워든것이 은을 냈다. 영준이가 기타줄을 튕기자 아름다운 선율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황홀해서 듣고있던 소대원들은 박수를 치며 재청을 요구했다. 영준이는 서너곡을 더 랐다. 《달빛도 밝은 간석지의 밤...》 이렇게 시작된 노래는 여러 사람이 따라불렀다.

소대숙소안은 흥성거렸다. 오락회가 자연히 벌어졌다. 얼굴이 빨간 박기호도 마음이 어진 소대장도 독창을 했다.

밤이 깊었을 때 영준이는 이제는 취침할 시간이니 그만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이 받아주겠다면 나도 여기서 같이 자려고 합니다.》

박기호가 싱글거리면서 제일 좋아했다. 모두 찬성이었다.

영준은 소대장과 나란히 누웠다. 소대장의 잡자리는 한쪽에 따로 마련되어있었다. 영준이는 소대장과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대원들에 대한 소대장의 의견을 물었다.

《내가 옹졸했고 편협했습니다. 알고보니 박기호는 진실한 동무였습니다.》

영준이는 이 말에 감동되어 모포속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웁소. 마음만 돌아서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요. 소대장동무, 다시는 우리 대대장동무의 머리를 아프게 해서는 안되겠소. 소대장들이 자기 구실을 다 해야 한다는 소리요.》

2소대장은 무엇인가를 꿀꺽 삼켰다.

《어쩌면 정치지도원동무는 마음이 그렇게도 깨끗합니까. 대대장에게서 모욕을 당하고도 늘 대대장동무 생각이군요.》

《대대장동무도 일을 잘하자니까 때로 어성을 높이는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들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영준이가 아침에 2소대숙소에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세수를 하고있던 대대장 리상혁이

그를 놀랍게 바라보는것이였다.

2소대는 차츰 눈에 띄이게 개진되어갔다.

건설장에는 어느덧 가을이 짙어가고있었다. 겨울이 코앞에 왔다.

대대장 리상혁은 워낙 과묵한 성미이지만 요새는 말이 더욱 적어졌다.

대대에 내려왔던 정치부장과와 담화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그 일이 있은후 영준이에게 미안한 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것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는 쉽게 본래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리상혁은 여전히 일을 세차게 내미는 한편 작업총화를 더욱 엄격하게 지었다.

이러한 때 러단의 지시로 혁신자들을 추천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소대를 통해 후보자들의 명단이 올라왔고 사로청조직을 통해서도 제기되였다.

마지막으로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최종합의를 하기 위해서 마주앉았다. 영준이는 한개 소대에서 두명정도로 선발하여 만든 명단을 대대장앞에 내놓았다.

대대장은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똑해서 말했다.

《이건 좀 잘못되었소.》

《뭐가 말입니까?》

《2소대 박기호는 빼오. 그리고 왜 명옥이가 없소?》

《김명옥이는 제기됐는데 내가 라순희와 바꾸었습니다.》

《뭐요?》 대대장은 펄쩍 뛰었다.

그렇만도 했다. 김명옥이는 대대적으로 소문난 처녀이다. 그 처녀는 활동성이 있고 노래를 잘 부르며 일도 물론 잘한다. 러단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명옥이는 휴식시간에 노래로써 전투원들을 기쁘게 해주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처녀다.

그에 비하면 라순희는... 아니, 순희에 대해서 대대장은 아직 파악이 없다. 그 처녀는 무슨 뼈여난데가 없다.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도 않는다. 일은 괜찮게 한다고 한다. 그래 대대에서 누가 더 두드러지며 인정되어있는가? 정치지도원이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하고 리상혁은 주장했다.

다음, 박기호는 대대장에게나 정치지도원에게나 다같이 좋지 못한 인상을 준 청년이다. 아니,

그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다. 그는 늘 소대장과 다투며 두덜대면서 불평을 부린다. 이런 사람을 혁신자로 추천하다니. 그래 정치지도원동무의 견해는 뭐요?

영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대대 전투원들과 같이 일하고 때로는 같이 자는 과정에 보석같은 대원들을 보게되었습니다. 라순희는 말없이 성실하고 진실하며 소대의 자질구레한 뒤처리를 다 맡아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진짜지요. 거기에 대면 김명옥이는 잠자리라 할수 있

습니다. 물론 명옥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순회를 우선 추천합니다. 박기호는… 두덜대는 버릇이 좀 있지만 소대에서 힘든 모퉁이는 다 맡아서 제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에게 늘 의견이 있어서 그의 미움을 사다보니 대대에 옹계 반영되지 못했지요. 그랬는데 바로 그 2 소대장 자신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난 모르겠소!》 리상혁은 고집을 부렸다.

《특히 김명옥이를 빼는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소. 정치지도원동무가 바로본다면 나도 바로볼 수 있는것이고 내가 틀리게 본다면 정치지도원도 틀리게 볼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데 영준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대대장이 자기 견해를 고집할수 있다. 그도 보는 각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준이는 무턱대고 그의 견해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속보의 주인공들을 심중한 고려 없이 내던 그때와는 달라졌다. 이 명단은 대중의 눈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영준이 자신도 옳다고 확신하고있기때문이다. 다른데서는 양보해도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는 원칙을 양보할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 동의할수 없다는거지요?》영준이가 물었다.

《그렇소.》 한치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다.

난처한일이다. 결국 이 문제로 하여 그사이 그럭저럭 큰 일없이 지내온 그들사이에 다시 금이 가게 되거나 않겠는지? 근심되었다.

피로운 침묵이 흘렀다. 영준이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을 대대장에게 납득시킬수 없는 그것이 피로왔다.

마침 침묵을 깨뜨리며 전화종이 울렸다.

대대장이 받았다.

《난 려단에 가겠소. 찾는구만.》이렇게 말하고 대대장이 훌쩍 나가버렸다.

영준이는 현장으로 향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저녁에 소대장, 세포비서, 사로청위원장 등을 다 모이게 하여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그러나 다른정황이 생겨 영준이는 자기 계획대로 할수 없었다.

제 생각에만 빠져 머리를 수궁하고 작업장으로 걸어가고있던 영준이는 누군가 앞을 막으며 《허이사람, 앞을 좀 보라구!》 하는 말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려단정치부장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뭐… 별일 없었습니다.》영준이는 어물어물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은것 같은데… 동무는 속을 숨기지 못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 허허…》

영준이는 얼굴을 붉혔다.

《정치지도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머리를 쳐든게 아니요?》

《아닙니다.》영준이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대

중이 저를 지지합니다. 그 힘을 저는 느끼고있습니다.》

정치부장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요즘 일은 어때?》

영준이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눈을 내리깔고 서있다가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혁신자들의 명단과 관련한 의견대립에 대해서 말했다. 정치부장은 그 이야기를 심중하게 들었다.

《어쨌든 합의를 보오. 내 참고적으로 하나 말하겠소. 나는 동무네 대대장을 몇번 만났댔소. 그런데 그는 영준동무에 대해서 아직 다르게 말한적이 없소. 좋게만 말했단 말이요. 동무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앞에서는 좀 울퉁거렸겠지만 속은 큰 사람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동무도 대대장에게서 우점을 많이 보고 그에게서 배울건 배우라는거요.》

영준이는 무엇인가 든한것이 가슴에 와서 부딪치며 쿵 소리를 내는것 같았다. 리상혁대대장, 그는 그런 사람이였다! 나는 그에게서 좋은 점을 하나라도 더 찾아보려고 노력했는가?

정치부장은 또 얼마나 속이 깊은 사람인가! 언제면 나도 정치부장동지처럼 여유있고 속이 깊은 당일군으로 될수 있겠는지. …전쟁,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 당과 수령을 따라 이 긴 로정을 거쳐오면서 시련을 이겨내고 단련된 정치부장동지이다. 40 대의 저 대대장에게서도 그러한 력사를 읽을수 있을것이다.

대대장동지를 더욱 존경하고 잘못이 생기면 자기의것처럼 아파하며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도와주자. 나는 아직 멀었다. …

대대장 리상혁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려단에서 돌아왔다. 무슨 무거운 과업을 받았는지 생각에 잠겨 묵묵히 식사를 했다. 사실 그는 어려운 전투임무를 받고 그 해결방도를 모색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영준이가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 담배를 한대 태우는데 대대장이 참모회의를 소집해놓고 기다린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서둘러 대대장방에 들어가니 어느새 소대장이상이 다 모였다.

리상혁이 긴장한 얼굴로 서있었다.

《긴급히 토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려단에서는 우리 대대에 새로운 긴급전투임무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는 부속건물을 하나 속한 기일내에 지어야 합니다. 원래 매년 봄에나 가서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공사기일이 앞당겨지면서 이 부속건물도 곧 착수하게 된것입니다, 큰 건물은 아닙니다.》

리상혁의 큰눈이 열기를 띠고 번쩍거려였다.

그는 부속건물의 규모, 특성, 위치 등을 설명하고나서 계속하였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동무들도 느끼고있겠지만 벌써 추위가 시작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

에서 땅이 팡팡 일어불기전에 기초를 파고 축조를 끝내야 한다는것입니다. 설전에 그것을 끝내야 합니다. 인원이 많이 붙을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있는 봉사망건물을 기본으로 내밀면서 부속건물을 적은 인원으로 최단기간내에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문제점이고, 둘째로는 첫 공정인 기초파기가 대단히 난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이 기초는 다른 기초와는 달리 기계를 놓아야 하므로 반지하실로 되게 깊이 파야 합니다. 축지대에서 조사해본데 의하면 암반인데다가 지하수가 터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하실과 기초파기를 우리는 열흘내에 끝내야 합니다.

동무들! 려단에서 우리 대대를 믿고 맡긴 전투임무입니다.》

방안에 긴장한 공기가 흘렀다.

영준은 머리속이 착잡했다. 대대장의 말을 들으며 먼저 머리를 치는 생각은 (이처럼 중요한 전투임무를 받았으면 나와 사전토론이 웅당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준비있게 참가하여 대대장을 도와줄게 아닌가. 시간이 촉박했기때문일까? 아니면?...) 하는 서운한 감정이였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님처럼 앉아있을순 없다. 좋은 방도, 대책안을 찾아내야 한다.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구구한 의견들이 제거되였다. 한개 소대를 떼내어 3교대로 전투를 벌려야 한다느니, 착암기부터 준비해야 한다느니...

영준이는 대장을 보았다. 대대장은 좋은 안이 떠오르지 않아 컴컴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이 어려운 국면을 내가 나서서 타개해보자. 착암기가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다. 정치지도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영준이는 3소대 숙소에 가서 보냈던 밤의 일이 생각났다. 문제는 십장이다. 전투원들의 충성의 열정이다. 그러한 열정과 담력과 힘은 지휘일군들이 어떻게 조직하고 동원하는가 하는데 따라간다. 락후했던 2소대가 요새 어떻게 앞서나가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하여 영준이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결심을 말할수 있었다. 그가 입을 열자 모든 얼굴들이 그에게로 향해졌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요는 반지하실과 기초파기입니다. 이것이 돌파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이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데 모를 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 나갈것인가. 어느 소대, 어느 분대에 명령을 떨어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각적으로 동원된 사람 10명은 명령받은 사람 20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체 대대앞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희망자 10명으로 돌격조를 못자는것을 제기합니다. 그 돌격조에는 우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불이 이글거리는듯한 대대장의 눈이 영준이를

바라보았다. 둘의 시선이 부딪쳤다.

영준이는 그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함께 그 어떤 믿음의 섬광을 포착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힘있게 일어섰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대대장이 말했다. 《돌격조를 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연 다음에는 한개 소대를 붙이겠습니다. 1소대장동무, 전체 대대를 모이게 하시오. 시간이 없소. 돌격조를 곧 편성하여 오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하겠소!》

몇분후에 대대가 봉사망건물앞에 정렬하였다. 그들이 모여선 공지는 이 넓은 건설장에서 손바닥만하게 느껴진다. 사방으로 30층, 35층 살림집들이 탑처럼 혹은 산악처럼 솟아오른다. 높은 공중에서 용접불씨가 꽃보라처럼 쏟아져내린다, 그것은 불비다.

대대장이 대렬앞에서 짧막한 연설을 했다. 그러나 모두를 흥분시키고 긴장시키는 연설이였다.

그는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돌격조에는 열명이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20명~30명의 몫을 해야 한다. 암반과 싸우며 지하수와도 싸워야 한다.

굳은 각오가 없이는 안된다.

대대장의 말이 끝나자 단꺼번에 대여섯명이 앞으로 서슴없이 나섰다. 뒤이어 또 대여섯명, 다음에는 스무명 ...

대대장은 맨 먼저 나선 열명만을 지명했다. 그속에는 박기호와 라순희가 있었다. 대대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말도 잘 할줄 모르며 끝게도 생기지 못한 라순희, 하지만 이 처녀야말로 정치지도원이 찾아낸 보석같은 대원이 아닌가. 박기호도!...

정치지도원 김영준이! 몸매 호리호리한 젊은이다. 뿔을 찰 때는 아이들처럼 천진관만해 보인다. 별로 눈에 차지 않아 그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던 그런 경험이 어린 정치일군이였다.

하지만 바로 그가 내노라고 하는 리상혁이 자기 보다 사람들을 더 잘 보았으며 어려운 대목에서 방도를 찾지 못해 모대기던 대대장과 대대앞에 가장 옳은 출로를 열어놓지 않았는가! 어디서 그런 안목과 지혜와 묘술이 생겼을가.

리상혁은 영준이가 2소대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대대부로 걸어오던 모습이 피땀 뿔었다. 소대 숙소들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소리. 현장에서 대원들과 담배를 같이 피우며 웃어대던 영준이... 그가 하던 말이 가슴을 찌른다. 대대장동무는 골재와 자재만 보장해주고 소대장들에게 지시만 하면 집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명령식으로는 안됩니다. ... 도와주어야 합니다. ...

영준이는 오후시간을 돌격조와 함께 보냈다. 저녁에 돌격조의 정치사업계획을 짜느라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을 미처 하기도전에 문이 열리고 안전모를 쓴채로인 대대장 리상혁이 마치 성난듯한 얼굴

로 들어왔다. 현장에서 곧바로 오는 모양이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울퉁거리며 들어서는 대대장을 보며 영준이는 속이 덜렁했다. 아직 풀리지 않는게 있는가. …

대대장은 영준이를 외면한채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영준이! 고맙소! 동무가 옳았소!》

사나이의 깊은 속심에서 울려나오는 값있는 말이였다. 많은 뜻이 담긴 말이였다. 리상혁이는 이런 말을 좀해서는 안한다. 더구나 정치지도원을 찾아 와서 이런 말을 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영준이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는 눈물이 나 올번했다. 《영준이!》, 이 얼마나 뜨거운 부름인가. 언제나 공식적으로 《정치지도원동무》라고 부르던 대대장이 그저 영준이라고 친우로 부른것이다. 그렇게 부르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을 지을 줄 몰라 성난듯한 얼굴인 대대장이다. 이 얼굴이 더 사나이 담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것은 무엇 때문인가.

영준이는 자신도 속이 한없이 커지면서 저 대대장과 손을 잡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될수 있다는 신심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그 이후 리상혁대대가 어떻게 혁신의 길로 줄 달음쳐왔는가 하는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대대는 부속건물의 반지하실과 기초파기, 기본건물의 축조 등을 25 일동안에 모두 끝내고 려단적인 경쟁에서 단연 1 등을 했다. 그후에도 대대는 여러번 우승했다. 대대장 리상혁은 지휘상을 받았다.

봉사당과 부속건물 공사를 끝낸 다음 대대는 다시 30 층에 붙었다.

X

리상혁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던 기자는 그 위훈의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가슴속이 묵직했다.

한 정치지도원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수자로써는 도저히 기록할수 없는 그것! 얼마나 많은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위훈들이 광복거리에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들을 떠받들고있는것이라.

기자는 영준이를 만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며 무엇보다 그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보려고 정치부장에게 사의를 표시한 다음 급히 18 층으로 달려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정치지도원을 만나지

못했다. 대대장은 만나야 소용없을게고, 워낙 말을 싫어하는데다가 오늘은 바쁘다니까… 서운한 대로 돌아서는수밖에 없었다.

기자는 다른 일때문에 바빠 돌아가다가 스무날 좀 지나서야 다시 려단을 찾아올수 있었다. 그사이 잔디들은 더욱 푸르러지고 가로수들에 새움이 텼다.

가슴 울렁이며 18 층에 올라간 기자는 대대장과 먼저 맞다들었다. 오늘도 여전히 바쁜지 시뻘뻘한 얼굴이였다.

《영준정치지도원을 만나려 하는데요.》 하고 기자는 그를 안심시키느라 서둘러 말했다.

대대장은 심란한 얼굴로 대답했다.

《영준동무는 시당에 소환되어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시뻘뻘해있었다. 그를 끝내 못만나보는가. 어떻게 생겼는지, 호리호리한 몸매와 젊었다는 인상뿐이었는데…

《그가 없으니 어찌나 허전한지. 기자동무, 그에 대한 글을 꼭 써주세요.》 뜻밖에도 리상혁이가 말을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영준에 대한 그리움이 폭 배여있었다. 《나이도 사회경험도 어린 동무였지요.》

하지만 성실한 정치일군이였고 진실한 인간이였습니다. 우리 대대가 지금처럼 일잘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된것은 그 동무때문이였습니다. 나는 지휘상도 타고 훈장도 큰것을 받았지만 영준동무는 별로… 지금에 와서야 그의 알려지지 않은 위훈이 얼마나 값있고 빛나는것이었던가 하는것이 느껴집니다.》

두사람은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서있었다. 그들은 이 대건설장에서 단련을 거쳐 발전하여 간 정치지도원을 생각하며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이 봄과 함께 살림집들이 한동, 두동… 완공되여가며 거리는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뚜렷이 나타낸다. 동시에 건설자들도 대건설속에서 자신들의 키가 커지고 가슴이 넓어진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달리는 될수 없는 시대의 숨결이며 모습인것이다.

하나의 끝은 다른 새것의 시작을 의미한다. 건설이 끝나면 이 거리에 새 생활이 시작될것이다. 영준이나 리상혁이 그리고 그들모두의 앞길에도 빛나는 새 사업이 시작될것이다.

따뜻한 새봄은 희망과 신심을 주는 즐거운 계절이다.

그 감탄, 그 부러움 속에 외 1 편

리 광

벌써부터 감탄이로구나
벌써부터 부러움이로구나
머리위에 꽃구름 감도는
광복거리 살림집 찾는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잘 지었는가
정말 있는 정성 다 쏟아부었다고

모래흙집 하나 찾아볼수 없는
벽과 천반 장판구들
이름있는 조각가도 놀라와하는
천정굽도리장식 문미장식 보며
사람들 입을 모아 칭찬하는 말
광복거리 건설자 우리 가슴
봄맞은 들처럼 부풀게 하누나

이런 때면 이런 때면
그 얼마나 아름답게 추억되는것이나
지קות은 장마비에 옷을 적시고
내려쫓이는 불별에서
기초 파고 벽체 쌓고 층막 덮던
쉽진 않아도 보람차기만 하던 그 나날들

정녕 아름답게 추억되누나
습기 한점 물 한방울 숨쉴세라
목욕탕 위생실에 땀 묻으며
바람 한점 티끌 하나 스며들세라
하나하나의 출입문 창문에도
정성 고이고 진심 바치던 나날들이

그 나날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순간도 잊지 않은것 무엇이였거나
그것은 정녕 그것은 정녕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평가보다

더 훌륭한 평가는 없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범세대》, 《모범층》
《모범호동》 꾸리기 경쟁 못고
일손에 번개불 일으킬 때에도
심장은 언제나 한본새로만 뉘뉘였더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최상의 질!

그래서 우리 오늘도
문양 틀릴세라 색깔 달라질세라
부엌 장식타일붙이기도 칸칸히
살림방 꽃벽지바르기도 알뜰히
벽장 창고도 설칠세라 살펴보고
다듬고 또 다듬는것이여라

우리 하는 일마다에
더 진한 땀 묻으며
더 지극한 정성 고이고
더 뜨거운 진심 바치면
광복거리 완공의 그날
별처럼 많은 사람들 구름처럼 모여와
더 크게 감탄하고 더 크게 부러워하리니

아, 환희의 그날 경사의 그날
우리 수령님 얼마나 만족해하시랴
우리 지도자동지 얼마나 기뻐하시랴
광복거리 건설자의 가장 큰 자랑
광복거리 건설자의 가장 높은 긍지
그날의 그 감탄속에 있어라
그날의 그 부러움속에 있어라

가장 아름다운 불빛

살림집완공 돌격전의 밤
또 한세대 마감하고
내 잠시 창문가에 다가서니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불빛불빛...

오, 광복거리 건설장의 이밤
어제보다도 더 높은 층들
어제보다도 더 많은 창문들에서

눈이 시굴도록 밝게 웃는 저 불빛들
내 가슴 세차게도 흔들어주는구나

하기야 그 언제 있었으랴
그 어디에선들 볼수 있었으랴
이 땅에 아름다운 불빛 많고많아도
건설자 나에게 있어서
건설장의 불빛보다 더 아름다운 불빛

그 불빛 언제건설장에 빛나면
거기에 우람한 발전소 일떠서
그 전류 나라에 열을 주고 빛을 주고
하늘땅 넘치게 억만재부 쏟아놓고

그 불빛 살림집건설장에 빛나면
거기에 무수한 창문들이 열리고
기쁨에 넘치고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이 울리였거니

잡풀 무성한 수령판이라
파도 사나운 바다기슭이라
새 집, 새 공장, 새 벌을 마중가며
이 땅 어디서나 빛나는 불빛
건설장의 불빛 창조와 탄생의 불빛

허나 이밤 나에겐
광복거리 건설장의 불빛보다
더 아름다운 불빛 없어라
층층 높이높이 하늘가에 닿아
별무리와 더불어 즐겨 노닐며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끝없이 속삭이는
저 불빛보다 더 아름다운 불빛

아, 이밤 나에겐 저 불빛
행복의 절정 락원의 별천지에서
가장 밝게 웃고 가장 크게 웃는
복받은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얼굴이
복받은 우리 인민의 기쁨넘친 눈길
어려여오는구나 어려워오는구나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차영도

광복거리 건설장에 배낭을 푼 그날부터
우리의 하루일과의 첫 시작은
돌격대기발높이 나아가는 분렬행진!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아침대기를 찢는 차렷구령에
소대가 발맞추고 중대가 발맞추는
기세찬 분렬행진!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때로는 눈보라
때로는 지겨운 비
그래도 어김없는 우리의 일과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모를수도 있으리
뜨뜻한 자기 집, 평온한 생활속에선
왜 우리가 이 행진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돌격대생활엔 그림자처럼 따르는
참기 어려운 시련과 힘겨움
그럴 때면 가끔가끔 꿈속의 고향집...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보라, 이 하나의 자각으로 발맞추는 대오
붉은기발 높이 든 우리의 행진!
어디도 마음약한자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우리스스로가 내세운
아름찬 하루작업량을 두고
기어이 완공해야 할 광복거리를 두고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오, 시대앞에서 력사앞에서
걸음걸음 청춘의 사명을 자각하며
조국을 두어깨에 떠메고 나선
우리에겐 분렬행진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거리를 찾아서

오광호

며칠전 어느날이었다.

아직은 쌀쌀하나 봄의 숨결이 느껴지는 초저녁에 광복거리 건설장을 찾아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이 갑자기 작아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오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저쪽에서 달려오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도 모든것이 작아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늘을 치뚫고 솟아오른 덩치 큰 초고층 살림집, 끝없는 광장이라고 불러야 할 100미터 폭의 대동로 그리고 활동처럼 굽이쳐내려간 광복다리와 정입다리...

그렇다, 크고 넓고 높은것 한마디로 웅장화려한것을 광복거리의 첫째가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로등도 수도의 어느 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세웠다. 그래야 그 넓은 도로와 산악같은 건물들을 다 비쳐줄 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지대정리와 바깥미장작업이 동시에 벌어지고있는 어느 한 건설장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석대의 방송차가 경쟁이나 하듯 신바람이 나서 경제선동의 《대교향곡》을 불러대고있었다.

혁신자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곡목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서 《재청!》 《나가자!》 하는 함성이 요란하게 터져올랐다. 물론 뛰고 달리며 웨치는 함성이었다. 순간도 서있는 사람이 없었다. 딛고선 땅이 움썽움썽 흔들리는듯싶었다.

우리는 당장 그들속에 뛰어들어 흠뻑 땀을 흘리고싶었으나 전화로 이미 약속한 사람과의 만남시간이 가까와오므로 아쉬운대로 자리를 떴다.

왼쪽 길건너편에서 불빛휘황한 교예극장이 《잠간이라도 들렸다 가라》고 손저어 부르는듯싶었으나 어쩔수 없었다.

문득 언제인가 우리 문단의 한 소설가가 자기의 실화문학에서 그 집을 《기적의 집》이라고 썼던 일이 기억되었다. 그때 그는 《이 집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별의별 기적을 다 보여줄것이다. 요구한다면 바다속의 신비한 세계도 펼쳐보일것이며 한순간에 그것을 얼음의 세계로 바꾸기도 할것이고 다음 순간에는 온갖 동물들의 세계를 펼쳐보이기도 할 기적의 집이다.》 그리고 《공중에서 선녀들이 날아내리는것도 자연스럽게 여겨줄것이다》라고 썼었다. 그 《기적의 집》이 지금은 준공테프를 굽을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우리는 이 요란스러운 광복거리 교예극장이 지금 보통강 기슭에 서있는 교예극장보다 몇급절이나 더 크다는 생각에 또한번 감탄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하긴 수도신문의 한 기자도 몇년전 여기 광복거

리 건설부지가 우리 행성의 어느 한 도시국가 면적보다 훨씬 더 크다는것을 긍지높이 확증한적이 있었다.

어느덧 저앞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서있을 칠골립체다리가 보였다. 마치 서리서리 얇힌 무지개가 하늘을 떠나 여기 광복거리 복판에 내려와 앉은듯싶었다. 우리는 초조히 시계를 보았다. 다행히도 몇분 남아있었다. 우리는 이제 만날 중구종합청년건설려단 1 직장장 최태세동무의 모습을 그려보며 더욱 걸음을 빨리 했다.

로력영웅이며 소문난 건설자인 그는 몸집이 체소하고 얼굴이 갱기한 얼핏보기에는 별다른 특징을 찾아보기 힘든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보면 그에게는 남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명령지시집행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이다.

우리가 최태세동무를 처음 만난곳이 바로 여기 광복거리 건설장이다. 그때는 아직 나지막한 파수원이던 이곳에서 그는 첫 측지말뚝을 박고있었다.

그는 그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린 이 광복거리 건설이 어떤 건설이라는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린 이번에 기어이 앞선 새시공법을 받아들여 건설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또 한걸음 앞으로 전진하자고 합니다.》

흥분하여 이렇게 말하는 그의 입에서는 입김이 펄펄 달렸다. 눈가루가 일고 속눈썹이 딱딱 달라붙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불과 2년 쯤 남짓한 사이에 이미 그 완공을 내다보게 된 거리에서 우리는 이밤 또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물론 그 사이에는 여러번 만났고 그때마다 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오늘은 좀더 특별하다. 오늘 최동무는 자기들이 건설한 또 한동의 2층살림집을 국가에 바쳤다. 건설자들의 표현대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마지막 도장》을 찍은것이다. 그래서인지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그의 음성엔 어느때없이 흥분된듯싶었다. 순간 우리는 오늘밤 그와 만나면 반드시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으리라는 직업적 예감으로 가슴짜릿해 났었다.

저앞에 영웅직장장이 서있었다.

《직장장동무!...》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저 건물이지요?》라고 물으며 그가 오늘 국가에 바친 초고층 살림집을 가리켰다.

《예...》

직장장의 눈에는 깊은 감회가 비껴있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바로 저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직장장과 조립공들은 우리 건설을 현대화 하는데서 또하나의 전진이라고 할수 있는 한간막이 대형부재에 의한 조립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건설에서의 비상한 속도와 높은 문화성 그리고 그 원가의 놀랄만한 저하...한마디로 그것은 비약이었다. 허지만 언제나 그런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새것은 낡은것과의 투쟁속에 한치, 한치 힘겨웁게 전진하였다. 걸음걸음이 치렬한 공방전이고 불안과 동요는 여기저기서 나타났었다.

어느날 직장장은 전체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열변을 토로했다.

《웁습니다, 부재생산이 걸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경쟁총화에서 몇번째 머리를 들수 없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각오하지 못하고 시작했단 말입니까?!... 당에서는 우리에게 광복거리 건설에서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일떠세울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들을 낡은 방법으로 세울수 없습니다.》

또 어느 눈보라치는 날에는 콘크리트혼합물이 얼어드는 조건에서 더 이상 새 방법으로 조립할수 없다고 엄하게 추궁하는 기술일군에게 이렇게 안타까이 호소했다.

《우린 해방후에 태어나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아들 구실을 한다면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고계시는 건설의 현대화를 <안된다>, <못한다> 하며 조건과 타발을 앞세울수 있습니까?!... 왜 <무조건 해야 한다>,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방도를 찾자고 안합니까.》

그의 이 진정에 기술일군도 감동했고 그들은 마침내 이동식 가열기를 도입하여 얼음을 녹이며 끝내 조립을 계속해 나갔었다.

지금도 우리의 취재수첩에는 그때 조립장에 나붙었던 전투속보들의 제목이 그대로 적혀있다.

《심장도 하나, 결심도 하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아들, 당의 아들!》

《한세대 조립속도 12분!》

이것은 한때 세인을 경탄케 했던 《평양속도》의 2.5 배에 달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수자이다.

아마 독자들은 이 속보들이 나붙기까지 어떤 고충과 투쟁이 있었다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허지만 지금은 그 모든것이 지나간 평범한 일로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 아빠트조립에 어떤 투쟁이 깃들어있는지 또 어떤 각이한 운명들이 하나로 합쳐졌는지 구태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보고 감탄하며 기뻐할뿐이다.

순간 우리의 가슴속으로는 이 거리 건설에 참가한 그 수많은 유명무명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의 정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우리뿐이 아닐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후대들이 영원히 그들을 추억할것이다.

직장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나는 요즘 이 거리를 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다 건설했는가? 그리고 우리 힘이 이렇게 큰가?...》

우리는 머리를 끄덕였다. 충분히 리해되는 말이었다. 우리옆으로 키낮은 꽃나무들을 옮겨가는 청년들이 줄을 달아 지나갔다. 그들은 지금 이 화려한 거리를 한층 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었다. 앞으로 이 거리에서 살 사람들은 인구 1 인당 차지하는 록지면적에서도 단연 세계적으로 앞선 자리에 설것이다.

얼굴이 동그란 처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방금 무슨 론쟁을 한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거리에 충분히 쓰고도 남을 그 방대한 산소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토론였습니다. 글썄 어느 엉뚱한 남동무는 그걸 모두 용기에 넣어 공해로 오염된 나라들에 수출하자고까지 하지 않겠어요. 호호호.》

우리에게는 결코 그 제의가 엉뚱하게만 들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우리 인민이 하는 일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것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깃들어있었다. 처녀도 아마 그래서 우리와 직장장에게 그 제의를 그대로 전했을것이다.

따스한 등색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밝게 웃으며 서있는 처녀의 모습은 류달리 아름다와보였다. 더우기 이마우에 조금 흘러내린 앞머리카락속에서는 마치 일부러 모양을 내느라고 그렇게 한듯 금싸라기가 반짝이고있었다. 이슬비가 내리고있는 것이었다. 래일은 아마 음달에 조금 남아있던 그 구멍이 승승 뚫리고 색깔이 꺼멓게 변했던 마지막 눈무지들까지 말짱 다 녹아 흐를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 이 거리에 첫 꽃들이 다투어 필것이다.

직장장은 처녀와 헤어져 또다시 걸음을 옮겼다. 우리도 그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것을 듣는듯싶었다. 그도 역시 같을것이었다.

우리 귀전에는 조금전에 그가 한 말이 다시금 울렸다.

《정말 이걸 우리가 다 건설했는가? 그리고 우리 힘이 이렇게 큰가?...》

어느덧 우리는 만경대갈림길 앞에까지 와 섰다.

이밤 학생소년궁전 건설장 마당에서도 역시 마감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벽면이 거의나 커다란 창문들로 이루어진 소년궁전은 푸른

형광등 불빛으로 하여 마치 수정으로 지은 궁전처럼 보였다.

직장장이 말했다.

《작가선생, 저기 저 구호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우리의 힘이 이렇게 큰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 구호를 보면 그 힘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가리키는 대형 구호판을 보았다.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창조하자!》

그렇다. 한마디로 명문화된 그 구호에 광복거리의 모든것이 집약되어있었다.

그 규모의 웅장함도, 그 건설속도의 비상함도 그리고 그것에 바쳐진 불처럼 뜨거운 심장들도...

문득 우리는 아까 이 거리 입구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무척 작아진듯한 느낌을 받았던 일이 상기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비례법칙에 의해 생겼던 착각이 여기까지 오는동안 습관되어 바로 보일수도 있었다. 허지만 결코 그렇게만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의 심장이 커진것이었다. 직장장도 그리고 저기 저 건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거인처럼 보였다. 그렇다! 우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시대의 앞장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거인들이었다.

나와 직장장은 점도록 서있었다.

좋은 밤이었다.

요람

박정애

내 머리말을 지켜주는 어머니
그 정깊은 목소리 들려오지 않고
다심한 그 손길 여기 없어도
나는 사랑하노라 이 침대를

열려진 피창너머
광복거리 건설의 불빛이
정답게 비쳐내리는
돌격대 병실 나의 침대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방금 받은 꽃다발 창가에 놓고
빨간 안전모 그결에 놓을 때면
준공의 그날을 펼치며
얼마나 아름다운 꿈 피워주었더나

그래서 미장공 그 동무 편지
누구도 몰래 슬며시 펼쳐보고
반가움에 가슴 울렁일 때
침대여 너는 한장의 담요로
숫저운 내 마음 감춰주었지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40층 살림집 먼저 쌓올린 자랑
구름너머 고향에 보내던 그림

고향의 훈향인양
포근히 이 가슴 더웁히던 보금자리

아 붉은 당원증 무거이 가슴에 안고
맹세로 불타던 그밤도 너는 기억하리라
내 때로 너를 비워두고
눈바람속에 비속에 밤을 지새운
그런 날을 너만은 뜨겁게 추억하리

내 또다시
조국이 부르는 건설장으로 달려가리
그래도 너와는 헤어질수 없구나
벽차던 로동의 기쁨도
수집던 마음속 비밀도
너는 다 간직하고있기에

청춘의 한시절을
수도건설에 바친 자랑안고
너는 어디서나 내 마음 따듯이 품어주리라
광복거리 건설의 나날처럼 성실히
우리 당을 받들어가라 언제나 떠밀어줄 요람

아 돌격대 병실 나의 침대
아 나의 요람이여

영웅의 아들

리의천

취재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인상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아마도 취재과정을 통해 그들의 사상정신적 면모를 환히 꿰뚫어보게 되고 거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기때문일것이리라.

그래서인지 얼마전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만났던 한 연공소대장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한 일군으로부터 신문에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장에 찾아가 내가 그때 만난 그 혁신자는 뜻밖에도 사람들속에 《수류탄영웅》으로 널리 알려진 공제화영웅의 아들 공명수동무였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공명수동무는 청춘거리에 배구경기관을 건설할 때 정말 큰 일을 해제했지요. 수백개가 넘는 경기관의 골조기둥들을 그가 어떻게 일떠세웠으며 수십톤이나 되는 대형 트라스들이 어떻게 수십길 벽체우에 얹혀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겁니다.》

궁지에 넘친 그 일군의 말이였다.

그는 공명수동무가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라고 했다.

그 일군의 말을 듣고나니 나는 공명수동무를 한시바빠 만나보고싶었다.

그렇듯 훌륭한 공로를 세웠으며 그렇듯 크나큰 영광을 지닌 젊은 로력혁신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것인가. 마감공사를 다그치는 건설장에 들어서면서 나는 이제 만나게 될 공명수동무의 릉름하고 궁지높은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를 만나 몇마디의 말을 주고받는 첫 순간에는 약간 실망했었다.

《저야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크게 자랑할것 두 없습니다.》

정말 꾸밈새라곤 털끝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소박한 청년이였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듯 큰 공로를 세웠으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지니게 되었는지 리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나로 하여금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전 사실 영웅의 아들답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영웅들이 지니고있는 그 숭고한 정신세계의 문어구에조차 들어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였다.

나는 그의 가식없는 이 한마디의 말에서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며 지금까지 어떤 지향과 포부

를 안고 일해왔는가를 한순간에 깨달을수 있었다.

자기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자각하고 자신을 보다 높은 완성의 경지로 이끌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부모들이 마련해준 좋은 환경의 그늘밑에서 순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길에 자신의 희생적인 노력을 다 바쳐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시대정신의 체현자들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이 아니겠는가.

한순간을 살아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참담게 살려는 불같은 지향을 지닌 인간,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미래의 영웅으로 살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모습을 나는 다름아닌 공명수동무를 통해 보는것만 같았다. 그러자 나의 가슴은 그의 경력을 알고싶은 호기심이 동해났다.

《저의 경력말입니까? 뭐 경력이라고까진 말해볼것두 없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사회주의대전설장으로 달려나갔지요.》

나의 물음에 이렇게 허두를 뻔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었다.

공명수동무가 졸업증을 받아들고 돌아온 날 공제화영웅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사회에 진출하겠다니 나도 딱지는 않겠다. 그런데 네가 사회진출을 하려거든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로 가야 한다. 사회에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가 하는것은 자신에게 얼마나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리하여 공명수동무는 도송배전부에 배치되어 거기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산줄공일을 하게 되었다.

산줄공! 사람들은 아마도 까마득히 높은 철탑 꼭대기에서 수천수만볼트의 고압전기가 흐르는 송전선을 다루는 일이 어떤것인지 다는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공명수동무는 근 10년간이나 일했으며 그 보람찬 나날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났다.

당조직이, 바로 어머니당의 품이 그를 이렇게 키워주었던것이다.

공제화영웅은 아들의 성장을 대단히 기뻐했다. 그런데 하루는 공명수동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지금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광복거리

건설이 진행되고있다는걸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 광복거리 건설장으로 가겠습니다.》

공재화영웅은 그러는 아들이 더없이 미더웠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자기자신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깊이 자각한 전사들이 바로 영웅으로 되지 않았던가!

《네가 산줄공일을 헛하진 않았구나. 가슴에 당원증을 품고있다고 해서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영웅의 아들이라구 해서 저절로 훌륭한것두 아니다. 넌 어딜 가나 이걸 명심해야 한다.》

《아버지 꼭 명심하겠습니다.》

공명수동무는 바로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광복거리 건설장에 오게 된것이였다.

배구경기관건설공사는 시작부터 간고했다. 살얼음지는 감탕물속에 뛰어들어 가슴을 치는 지하수와 싸우며 기초굴착공사를 한다는것은 조련찮은 일이었다. 그러나 공명수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제일 깊은곳에 뛰어들어 흙감탕을 쳐올리였다. 경기관의 첫 기둥을 세울 때에도 그는 수십메터를 헤아리는 고공에서 어렵고 힘든 기둥조립작업을 도맡아해나갔다. 한번은 날씨가 너무 사나와서 러단지휘부에서 공사를 중지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자 공명수동무는 정치부일군을 찾아가서 공사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만한 난관 앞에서 물러서서야 우리를 어떻게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새 세대청년건설자들이라고 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끝끝내 대답을 받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이날 연공소대는 살을 에이는듯한 강추위속에서 맡겨진 조립과제를 넘쳐수행했으며 한달동안에 수백개가 넘는 경기관굴조기둥을 조립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찌 이뿐이라.

배구경기관 트라스공사를 할 때였다.

그때 공명수동무는 연공소대 전투원들과 함께 기중기가 떠올리는 대형 강철트라스를 받아 자기 위치에 놓고 용접작업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기중기가 자른 트라스를 들어 벽체우에 내려놓는 순간 그 육중한 트라스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련결고리가 벗겨질 위험에 처하였다. 그대로 몇순간만 지체하면 기중기의 고리와 트라스가 리탈되면서 참혹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었다.

그런데 공명수동무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나

섰다.

그러자 전투원들이 소대장의 앞을 막아나섰다.

《소대장동무, 안됩니다.》

《소대장동무, 위험합니다. 비켜서십시오.》

그러자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공명수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입으로나 화구를 막아서는 될하는가. 화구는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막아야 하오.》

공명수동무는 희생을 각오하고 트라스우에 올라가 기중기의 련결고리를 바로잡아놓고서야 내려 왔다.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어떻게 일해왔는가에 대해서 공명수동무는 물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어떻게 일해왔으며 그의 가슴속에 그 어떤 뜨거운것이 간직되어있는지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그는 당과 수령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자기가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있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생을 영웅으로 살려는 불같은 지향을 안고 일해나가고있다.

비록 앞가슴에 금별은 빛나지 않아도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지킬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 아니겠는가.

공명수동무 역시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헤여지기에 앞서 그가 한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크게 한 일도 없는 저를 이렇듯 영광의 자리에 높이 세워준것은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입니다. 바로 당이, 어머니당의 품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었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야 당을 어머니품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웁은 말이었다.

자식들을 참담게 키우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심정으로 혁명전사모두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음으로 하여 그의 오늘의 성장도 있는것이였다.

어머니품! 그렇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아래서만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것처럼 우리 당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 혁명의 새 세대들은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영웅으로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작 별 외 1 편

황성하

자식을 두고가는 어머니마음인양
이리도 떠나기 아쉬운 마음
그래도 작별하자 청춘거리여
배낭맨 이몸은 이제 떠나가련다

잘 있거라
나의 밤, 나의 웃음이
벽체에 기둥에 소리없이 깃든 거리여
한형제마냥 웃고 다투고 덩굴며
위훈앞에 떳떳한 우리를 자래워준
자그마한 들창달린 돌격대병실자리여

이제는 보이지 않아라 지나간 모든것...
본래 그렇게 태어난듯만싶은
수려한 차림으로 늘어선 경기관들
둘레에 다복다복 돋은 잔디들, 새로 깔린
포장도로
보이느니 우아함 흐르느니 교묘뿐...

정녕 없는가 그것은 사라졌는가
작업복이 찬비에 젖어들 때도
어머니품처럼 그리워지던 돌격대집은!
일터로 오가며 남몰래 바라보군하던
내 얼굴 크게 났던 영예게시판은!
설참이면 비좁게 모여있던 모닥불자리는!

혹시 어머니앞에선
영거주춤 서서
꾸중을 들었을수도 있으리
하나 집을 떠나 건설장에선
자못 의젓하고 용감한 이들이 사나이!

몸집작고 뼈굳지 못한 총각일지라도
그 누가 사나이 《행세》에서 양보있으랴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척
소대의 처녀들을 멋없이 휘여잡고
팬스레 우쭐렁거리기도...

생활의 세계에는 관심이 적은듯

지워지지 않았더라 묻히지도 않았더라
다만 모습을 달리했을뿐
저 눈부신 창문 희디흰 돌 하나 풀 한포기에도
그것은 눈물겨웁도록 보여오지 않는가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에게 속삭이며...

청춘거리여, 너는 이제
돌격대차림의 우리들이 아니라
홍겨운 걸음들 새 옷차림들과 인연맺으리
더 거창한 건설장으로 우리 자리 옮겨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다오

잊지 말아다오 9월의 못잊을 그날이여
새 거리에 차넘치던 환희의 바다여
위대한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우리 바친 소중한 청춘의 기념으로
청춘거리 이름을 선포해주신 그날을!

건설자에게 작별은 새롭지 않다만
이 가슴에 언제나 소품칠
너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안고
너에게 보내노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아니 영원한 상봉의 인사를!

사나이들!

병실의 떨어진 문풍지도 무심히 대하며
줄곧 일에만 정신팔 때도
그런 때도 있었다 산뜻한 작업복차림은
오히려 장부답지 못하다고 외면할 때도

그런들 어찌리
광복거리 건설장 가장 어려운곳에
수리개처럼 서있는것 그들이 아닌가
허공에 뜬 수십톤 트라스를 잇고선이도
불도젤과 같이 일감을 제끼는이들도
쉬임없이 날리는 용접불꽃의 임자도
그들이더라
잠자리를 박차고 층막우에서 새벽을 맞고도

가슴식을줄 모르는 이들이
 쌓아올린 40층 만장우에 걸터앉아
 즐거이 휘파람부는 이들이
 그들은 광복거리 건설의 역센 기둥...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다가도
 인정이라면 얼마나 뜨거웠던가
 찬비내리는 궂은날이면
 처녀들을 모두 모닥불앞에 세워놓고
 마주치는 이발 감추느라 웃고 떠드는 이들
 《힘》으로 처녀들을 병실로 쫓아버리고
 미장발판우로 소리없이 오르는 이들

그때문이었던가 건설장의 처녀들
 마주서면 악의없는 다툼에 눈물 흘리다가도
 저녁이면 그들의 작업복을 걷어안고
 빨래터에 앉기를 말없이 즐겨함은
 고향에서 온 인정도 그들과 함께 나눔은

...어머니시여, 그들의 어머니이시여
 집에선 이들이
 걱정많은 자식일수도 있으리
 하나 여기 건설장에선 당당한 사나이
 시대를 역센 두어깨에 떠밀고사는
 그렇다, 조국의 아들들이다!

응석

박재주

회의때
 퇴근길에 만나면
 흔히 말들 하더라
 학부형들은 나에게,

우리 앤 아직
 응석을 부린다고
 우리 아인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고

학부형들 말
 진정이어도
 그 말 나에겐
 귀에 설게만 들린다오

어찌 즐거움이 있으랴
 우리 생활에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커서
 작은 가슴에 넘쳐나는 기쁨
 숨김없이 터치는 응석 없다만

있었던가
 고역에 시달린 몸 거적문 열면
 울망줄망 매달리던 아이들의 응석이
 오히려 눈물되고 가슴찡던
 그날에는

별나비 꽃을 찾듯
 해바라기 햇빛 따르듯
 그 응석 소중히 받아안은 당의 품
 그 품에 안겨 받아안은 사랑도 커
 아이들은 먼 후날
 조국을 더욱 못잊으려니

우리 앤 아직
 응석을 부린다고
 우리 앤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고
 행복한 푸념으로 말하는
 학부형 그대들에게
 나는 말하고싶구나

애어린 꽃나무
 가꿔야 향기로운 꽃이 피듯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내 마음
 언제나 뿌리가 되고
 즈이 되기 바라거니

아, 이 세상 모든것 자기 위해 있는듯
 제 즐거움 맘껏 터치는
 그런 귀여운 응석 있어
 우리 생활의 기쁨이 있는것 아닌가

언제나 밝은 구내

최명우

나는 하루에 청춘거리 수영경기관 구내길을 두번씩 걸군한다.

아침이면 출근길, 저녁이면 퇴근길.

참으로 걸을수록 생각깊은 구내길이다.

며칠전 퇴근길에서였다.

그날도 나는 푸른 가로등과 황색구내등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며 밝은 빛을 뿌리는 수영경기관 구내길을 가고있었다.

그런데 수영경기관 앞정원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왔다.

서너명의 청년들이 나무를 심으며 주고받는 말이였다.

아마 평안남도청년건설려단 건설자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정성담아 나무를 심는 모양이였다.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지닌 청년들인가.

수령관이였던 여기에 감탕을 파올리고 기초를 다졌으며 벽체를 세워 오늘의 수영경기관을 일떠세운 청년건설자들, 그들은 수영경기관이 훌륭히 완공된 오늘, 이 밤에도 정원에 나무를 심고있다.

불현듯 나는 그들의 남모르는 소행을 신문에 소개하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내가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길무렵, 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구내만은 한밤중에도 이렇게 불을 환히 켜놓으면 좋겠지요? 언제나 밝게 말이에요.》

의미깊은 말이였다.

처녀의 말이 떨어진후 한 청년이 허리를 펴고 수영경기관 구내를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난 불이 켜있지 않은 깊은 밤에 봐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이 구내가 언제나 밝게만 보이더구만.》

순간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짧은 말이지만 얼마나 뜻이 깊은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춘 나에겐 지난해 9월 3일 청춘거리 준공식날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잊을수 없는 일이 떠올랐다.

바로 이 구내였다. 이 구내, 이자리에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예, 크나큰 행복을 지니였다.

그날은 유난히도 맑은 날이였다. 창창한 하늘엔 환희로운 해빛이 넘치였다. 영광의 이 거리엔 손에 손에 꽃뭉음을 든 청년건설자들이 꽃바다,

꽃물결을 이루었다.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가득 울려가는데 준공테프를 끊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영경기관을 돌아보시고 천천히 기념사진촬영대앞으로 다가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환호하는 건설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촬영가들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념사진촬영이 끝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칠골궐체다리를 지나 저멀리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촬영대우에서 내리지 않았다.

나에겐 지금도 행복에 겨워, 감격에 목이 메여 진정을 못하며 서있던 건설자들의 모습이 선하다. 그때 저 청년건설자들도 나와 같이 기념사진촬영대우에 서있었으리라.

하다면 어찌하여 저 청춘남녀들에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이 구내가 불없는 밤에도 그토록 밝게 보이겠는가. 저 청년건설자들의 생활의 좌우명, 그것은 묻지 않아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리라.

그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행복이고 최대의 희망이며 삶의 목적의 전부이기에 그들은 건설의 나날 지해도 땀도 열정도 아낌없이 바쳐왔다.

청춘거리가 완공되어 이자리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던 날, 청년건설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리도 만족하시여 그리도 기쁘시여 해빛같이, 봄날같이 웃으시던 그 영상, 그 환한 미소를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 소중히 간직하였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지울수도 흐릴수도 없이 소중하게...

그래서 저 청춘남녀들은 이 구내가 언제나 밝게 보이는것이다.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전투를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청춘거리 준공의 그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돌아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수영경기관 구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령도의 자욱이 어려있고 어버이수령님의 환한 미소가 어려있어 더더욱 밝은 이 구내, 여기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위업으로 인민의 충성을 키우는 요람이 되여 그 언제나 영원히 밝게 빛날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백철수

리유갑지배인은 아침에 기요원이 책상우에 가져다놓은 각종 문건들속에서 평양에 사는 누이의 편지를 발견하자 그것부터 집어들었다.

전국영웅대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새로운 200 일전투에 진입한 드바쁜 가운데서도 육친의 뜨거운 정을 흐뭇이 익혀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공장은 전보다 1.3 배로 높이 세운 전투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하여가고있었던것이다.

리유갑은 가까운 육친으로 하나밖에 없는 누이의 그리운 모습을 눈앞에 보듯 자질구레 박아 쓴 낫익은 글씨에 즐거운 눈길을 달리였다.

《...200 일전투기간에 10 만추의 현대적인 정방설비를 새로 조성해놓고 새로운 200 일전투를 더 잘해나가게 되었다는 그곳 방직공장의 기쁜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소. 그저 걸쾌스러운 오라버니의 성미를 보는듯싶어 신문을 들고 인민반에 나가 자랑 했더니만... 글썄, 지난날 그 공장에서 정방공으로 일했던 나까지 부러워할 하는게 아니겠소.》

(아무렴, 누이가 한번 와서 새로 꾸린 10 만추의 새 직장에 들어가본다면 전에 실을 뽑았던 일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걸.)

《오라버닌 정말 큰 일을 해놓았소. 하지만 한가지 일만은... 오라버닌 어쩌면 그리도 대를 세워나가는것밖에 모르는지, 동식의 일만 해도 그렇지 않소? 겨우 견학단에 끼여와서 이 고모를 만나게 하였다니... 글썄 오죽하면 동식이 가 닻새 동안 고모집에 와있는것마저 그렇게도 어려워하게 만드는가 그말이요.》

리유갑은 여기서 굳어지듯 눈길을 멈추고 미간을 찡그리였다.

(그녀석이 닻새씩이나 고모한테 가서 제불장만 보고돌아왔더니, 애당초에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걸.)

달포전에 공장에서는 10 만추직장의 조업을 계기로 일잘하는 로동자들을 선발하여 평양견학단을 조직한 일이 있었다. 그때 리유갑은 관광단 명단에 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것을 보고 북 그어버리였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서였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를 졸업할무렵부터 화강석에서 비단실을 뽑는 과학자가 된다고도 하고 대양에 고래목장을 만드는 탐험가가 되리라고도 하면서 구름우에 뜬 생각을 하고 돌아쳐서 얼마나 속을 태웠던지... 그럴 때 공훈방직공 허민순

이 동식을 공장에 입직시키면 자기의 기대수리공으로 데리고있겠다고 제기해와서 그것을 구원의 손길처럼 알았었다. 동식이기도 이름난 허민순과 함께 일하게 된것을 무척 기뻐하는것이여서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웬걸, 2 년도 못지나서 동식은 무슨 기술혁신을 해본다고 남모르게 기대를 뜯어맞추었다가 온 작업장에 공정파괴를 일으키는 사고를 저질러놓았다. 분노한 리유갑은 석달동안이나 동식을 보이라 굴뚝의 연도에서 재를 파내는 작업을 시켰다. 말하자면 책벌로동이였다.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허민순이 자기의 불찰로 사정해왔으나 리유갑은 들어주지 않았다. ... 그랬던것이 어제같은데 견학단성원이란 당할 일이겠는가, 하고 생각되어 편조직장에 다른 사람을 선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직장에서 어떻게 토론되었는지 허민순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동식이 일을 잘하고있으니 꼭 보내자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대로 떠나보냈던것이다. 평양가서 들끓는 광복거리 건설현장이랑 돌아보고오면 일을 더 잘하게 될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동식이가 대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놀아댔으니... 결국 부모의 아픈마음으로 추켜들었던 사랑의 칼로도 은정넘친 허민순의 보살핌으로써도 동식의 못된 자유주의 뿔을 베어버리지 못한셈이다...

리유갑은 한시에 갈마드는 아들에 대한 불만한 생각들로 마음이 산란해져서 한참 지나서야 다시 누이의 편지에 눈길을 겨누었다. 오라버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 울케에 대한 문안... 빨리 읽어버릴 작정으로 흥심없이 건승 글줄을 훑어나가다가 뜻밖의 소식에 주의가 미치였다.

《...한가지 알릴것은 보름후에 경옥의 잔치를 하게 된거요. 경옥의 앞날문제는 꼭 오라버니와 토론하고 정하자고 했는데... 글썄 그 더퍼리같은게 제발로 신랑감을 데리고와서 인사시키지 않겠소. 암전한 젊은이가 어머니라 부르면서 큰절을 해대니 나야 받을수밖에... 내과의사라는데 알아보니 가정도 좋고 변심이 없을 사람이더군. 그래 허락했더니 사돈집에서 결혼식도 빨리 하자고 서둘러 대질 않겠소. 좋은 일은 눈부리가 돈다더니 정말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이부자리 만들 고급솜을 해결해보낸다면...》
(경옥이가 시집을 간다!)

리유갑은 출장가서 들릴적마다 외삼촌이 왔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반가와하던 경옥의 발랄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비껴와서 굳어졌던 얼굴이

저절로 부드러워졌다. 그 애가 벌써 출가하게 되었다니... 하긴 동식보다 네살 우이니 이제 스물다섯이다. 한창 꽃피는 나이에 신부라... 아무렴 숨뿐이겠는가. 이불안감, 신랑의 양복지까지... 일식으로 다 갖춰서 귀엣동이의 행복을 축하해주어야지...

(가만, 공장종업원들속에서도 결혼식을 하겠다고 제기해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던가?)

혼혼하게 부풀어오르는 마음속에 불쑥 이런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자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른번하기라도 한듯 서둘러 책상서랍을 열고 한장의 출고품명세서를 꺼내들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관혼상제를 물질적으로 방조하는 제도를 세우고있었는데 어제 판매과장이 제기해왔을 때 다른 바쁜 일이 생겨서 그것을 결재하여주지 못했던것이다.

출고품명세엔 결혼식을 하겠다고 이름이 적힌 사람이 스무명도 나마된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날과 날을 분으로 재여가며 진행한 200 일전투기간에는 거의 없더니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다음에야 제기해온 기특한 사람들... 대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던 리유갑은 취소한다는 표시로 붉은 줄이 그어진 한 이름에 눈길을 멈추었다.

(직포직장의 수리공 심금철이라면 바로 허민순의 둘째아들이 아닌가!)

기쁜 생각보다도 의욕이 앞섰다. 허민순이 만며느리도 그랬지만 둘째며느리감도 공장에서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하나 정한 모양이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취소한건 무엇때문일까? 파혼... 아니면 새로운 200 일전투를 하게 되어 연기하는건지...

아무튼 사연을 알아보고 허민순네 대사는 특별히 취급해야겠어. 경옥이와 똑같이 해줘야지.)

리유갑의 허민순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아들의 기대공이라고 해서만이 아니었다. 나이 천여섯인 허민순은 전후에 리유갑이 수리공으로 뻥뻥 차고다닐 때 그의 기대공이기도 하였다.

전쟁때 원썬놈들의 폭격에 부모를 잃고 학원에서 큰 걱정을 모르고 자란 리유갑오누이가 공장에 배치되어온것은 어려운 전후복구건설시기였다. 눈썰미 있는 누이는 부지런히 정방공기술을 익히고 1년후에 로력혁신자로 나섰지만 련조직장의 수리공으로 된 리유갑은 좀처럼 공장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다. 향학열로 가슴을 태웠던 그로서는 숨고치를 늘쿠어 조방에 넘겨주는 련조공정이 단순하고 따분해보이며 십년가도 거기에선 기술하나 똑똑하게 배워낼것 같지 못하였던것이다.

2년이 지나서 누이한테 애인이 생겼다. 기술준비실의 젊은 기사의 눈에 일손이 야무진 누이가 향약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었던것이다.

늘 사랑과 정이 그리웠던, 누이도 은근한 눈빛으로 표시하는 기사의 사랑을 고마움과 기쁨으로 받아 안았다. 그러나 기사가 평양으로 소환되어 가게 되자 그 소중한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동생과 헤어질수 없다는 리유에서였다. 그것을 알았을 때 동생의 가슴은 얼마나 고마움과 피로움으로 떨렸던가. 하지만 리유갑은 자기로 하여 사랑하는 누이의 행복을 문질러버릴수 없었다. 누이가 시집을 안가면 영영 찾지 못할곳으로 도망쳐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사랑의 낭떠러지끝에서 하게 된 이 아귀다툼은 누이가 눈물을 뿌리며 기사를 따라가는것으로 끝났지만 그 흔적은 지울수 없는 여운처럼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누이의 행복을 이뤄주었다는 들뜬 자부심은 얼마동안이었을뿐 날이 갈수록 생활의 구석구석에 숨배인 누이의 손길과 정다운 숨결은 고독감을 더하여주기만하였다. 모든것에 실동해져 공장에도 나가며말며 하였다.

허민순이 합숙으로 찾아온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그는 옷걸개에 작업복이 거꾸로 걸리고 께진 양말짝이 침대우에 던져진 어질러분한 방안을 비애에 잠긴 무거운 얼굴로 둘러보다가 말없이 방안을 정돈하기 시작하였다. 침대맡에서 빨래감들을 끌어내다가 거기에 되는데로 덧쌓아놓은 책들을 보더니 그늘졌던 얼굴에 대견한 빛을 띄우며 한권한권 먼지를 털어 뽕뽕우에 가지런히 세워주는것이였다. 그런 다음부터 독서를 즐긴다는 것을 알고 이십리 떨어진 대현시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들을 한아름씩 가져다주곤하였다. 빨래를 해주는것이며 명절날의 색다른 음식이며 독신생활을 보살펴주는 생활상 방조보다도 리유갑에게는 그 정신적 양식이 더 보람있는 선물로 되였다.

처음에는 지식의 넓은 바다에 이끌려 소설, 대중과학, 력사이야기 등 닥치는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차츰 신비로워보이던 과학세계의 비밀을 깨치는 탐구적인 데로 키를 돌리었다. 그것은 곧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방직기술의 깊은 세계를 마음껏 헤쳐보고싶은 욕망으로 쫓겼다. 욕망은 정열로 불타올라 로동시간에도 책에 열중되어 기대공의 작업에 지장을 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허민순은 그런 일로 얼굴을 붉힌적은 한번도 없었다. 기능이 높은 그는 웬만한 고장은 자기 손으로 퇴치하여 기대를 돌리곤하였다. 그것을 알게 된 리유갑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여 허리춤에 찌른 책이 빠져나가는줄도 모르고 헤덤비며 기대사이를 돌아다니었다. 그러면 허민순은 책들 주어 공구함에 가져다놓고서야 일손을 잡았는데 그럴 때 그의 인정깊은 얼굴에는 얼마나 정겨운 미소가 물결쳤던가.

그런 남다른 지성과 방조로 리유갑은 2년후에 공업대학 예비과 시험에 응시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었던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공장으로 배치되어왔을 때 리유갑은 정문가에 꽃테두리를 해서 세운 영예게시판에서 허민순의 사진을 찾아보게 되었다!

알아보니 작업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2 배 이상의 능률을 올리고있었다. 이전에 자기가 수리공으로서 밑받침만 잘해주었다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혁신적인 작업방법이었다. 그것을 절감한 리유갑은 평기사로부터 지배인으로 발전하여 온 오늘까지 오랜 기능공들을 적극 위해주는것을 사업의 철칙으로 삼아왔었다.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 아들이 등 떠서 돌아갈 때에도 자기의 옛기능공에게 맡겨놓고서야 마음을 놓을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동식의 일은 전혀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 이전에 자신이 그랬던것처럼 점심밥곽속에 책이랑 넣어가지고 다니곤하여 바른 길에 들어서는 줄로 알았더니... 그것은 걸치레였을뿐, 누이의 편지사연은 동식이가 그냥 뽕을 돋히고 돌아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그러니 허민순의 숙인들 얼마나 태웠겠는가.

돌이켜보면 동식을 맡겨놓기만 하고 어떻게 일하며 생활하고있는지 잘 살피지도 못했다. 대외사업, 빈번한 회의, 생산을 다물어나가기 위한 긴장한 일거리에만 사로잡혀 집안일에는 통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런속에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려던 오랜 기능공들 위해주는 일도 생활의 기습으로 밀어놓지 않았던가. 허민순의 둘째아들이 장가가게 된줄도 모르고있었으니, 이게 어찌 지배인은 고사하고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되겠는가!

...끝없는 자책속에 잠겨있는데 문밖에서 여럿의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문기척소리가 울리었다. 그제야 리유갑은 자신이 행정협의회를 소집했다는 생각이 얼핏 떠올라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들어오시오.》

직장장들과 기술일군들을 거느린 기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을 보자 리유갑은 누이의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를 일었다.

지배인의 번거로운 하루일과가 시작된것이다.

저녁무렵에 리유갑은 차를 타고 공장의 사택지구로 향하였다. 허민순데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지만 그의 머리에는 아침에 소집하여 아무 마련도 보지 못한 행정협의회에 대한 생각으로 차있었다. 새로 조업한, 최신식으로 현대화된

10 만추직장이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앞뒤의 공정을 보강개조할 목적으로 소집했던 협의회였다.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는데 묶어놓고 보면 결국 기대와 로력을 증강하여 푸는 길밖에 없으리라는것이였다. 그것은 손쉬운 방법일뿐아니라 세련되고 아름다운 미인에게 때묻은 헌옷을 입혀

놓는 격으로 현대화를 지향하는 최신 방직공업발전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것이였다.

(토대를 그존하게 갖춘 우리의 방직공업을 최신과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최신 설비를 갖춘 10 만추직장처럼 숨먼지가 없는 정결한곳에서 방직공들이 위생복을 입고 천을 짜도록 해야지, 그들이 힘들게 천을 짜면 그것으로 옷을 해입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 즐거울수 있겠는가.)

이것은 리유갑이 10 만추직장을 일떠세우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게 된 당의 구상이였다. 그리하여 공장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되었던것인데... 그앞에서 발을 멈추게 되었으니 ...

(아니, 그럴수 없다. 전 공장의 관심사가 되도록 토론을 넓혀나가야지. 해설사업, 현상모집... 그런데 벌써 다 왔군.)

리유갑은 사택마을앞에 이른것을 알아보자 차를 세우고 내리었다. 옛기대공네 집으로 지배인 행세를 하며 찾아들수 없었기때문이다.

줄당콩덩굴을 덩부렁듬쭙하게 떠이고 줄지어선 단층집을 세채 지나서 자그마한 사립문트락에 들어섰다. 덩굴덕데에 올린 포도넝쿨이 처마기슭을 가리운 부엌에서는 동자질소리가 흘러나왔다.

리유갑은 주인을 찾기에 앞서 집부터 둘러보았다. 부엌가녁에 방 하나를 결붙여짓는 공사를 벌려놓은것이 눈에 띄었다. 짐작컨대 그것은 둘째아들을 장가보내고 신방으로 꾸려줄 모양이다.

전에 리유갑이 이 집으로 자주 다닐 때엔 팔뚝만하던 포도나무가 두손아귀만큼 굵어졌는데 신방 기슭까지 뻗어간 넝쿨에는 청포도가 탐스럽게 주렁졌다.

(늘어나는 식구에는 이 집도 이젠 이 포도넝쿨처럼 아름이 벌구나.)

《아니, 지배인동지가!》

놀라는 목소리에 돌아다보니 젊은 녀인이 가시물그릇을 들고나오다가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공장에 다니는 이 집 며느리였다.

《어머님은 계시오?》

《안계십니다.》

며느리는 가시물그릇을 내려놓고 팔소매를 내려우며 대답하였다.

《퇴근해오니 이웃집에다가 대현에 간다고 알려놓고 갔습니다.》

《대현이라... 거기엔 왜 가셨다오?》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시겠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며느리는 옷방문으로 달려갔다.

《여기가 더 중소. 씨원한게...》

리유갑은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토방에 걸터앉으며 말을 건넸다.

《둘째 동서를 맞는다는데... 잔치를 언제 하

오?》

《래달 첫 휴식날에 하려고 합니다.》

《준비 다 되었소?》

《별로 차리는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신부측에선 레단미랑 잘 갖췄는데 우린 너무 준비하는게 없어서 정말 어쩔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맡머느리구실을 하느라고 집안일에 걱정이 많아진 머느리이다.

(와서 보길 잘했구나.)

리유갑은 다행으로 생각하며 말을 건넸다.

《너무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하지요. 그래 다른건 제기할게 없소?》

머느리는 기쁜 빛으로 환히 웃음짓다가 불시에 난감해하면서 주뭇거리었다.

《어서 말하오.》

《저… 우리 어머니를 이제 쉬도록 해주십시오. 저의 말은 영 듣지 않으시는데… 어머니 나이 올해 선여섯이랍니다.》

《그래, 10월 7일만 지나면 선일곱이 되지.》

《!》

머느리는 시어머니의 생일까지 알고있는 지배인을 경의에 찬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것을 읽는 리유갑은 오히려 민망스러운 웃음을 띠었다. 누이가 시집을 간 다음 자기의 생일날만 되면 좋아하는 군만두국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주곤하였던 허민순의 고마운 성의를 잊을수 없어 그의 생일날을 알아가지고 필요되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사들고 다니던 일, 그러나 그러한 인정세계도 결혼후의 가정생활과 다망한 사업속에 묻어버리지 않았던가.

리유갑은 생활의 큰 디딤돌을 잃은것만 같은 상실감을 애써 누르며 말을 건넸다.

《정말 이제 힘들어할거요. 그렇지 않아도 전쟁시기 굴간에서 군복을 짜느라고 얻은 관절염으로 지금도 환절기엔 피로움을 당하겠는데 …》

머느리는 다소곳이 고개를 수그린채 눈곱을 훔치고있었다.

리유갑은 시어머니를 위해 애바른 마음을 기울이고있는 젊은 녀인의 어깨라도 쓸어주고싶은 심정에 싸여져

《알겠소. 어머니는 내가 책임지고 꼭 쉬도록 하겠소.》

이렇게 약속하고 발길을 돌려세웠다.

머느리는 눈물이 그렇게서 사립밖으로 따라나왔다. 부엌에서 밥타는 냄새가 흘러나오는줄도 모르고서…

동구밖에서 차에 오른 리유갑은 뒤창으로 트락가에 나와 서있는 머느리의 모습을 돌아보고는 저도 모르게 《음-》하고 신음하였다. 지배인으로 서 웅당 해야 할 관심과 친절에도 저렇듯 믿음과 존경을 표시하는 저 소박한 마음이 만약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의리도 지켜내지 못한 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리유갑은 써늘하게 얼어드는 가슴을 녹잡히려고 황혼속에 저물어가는 바깥정경에 눈길을 겨누었다. 낮익은 거리의 살림집들이 흘러가다가 널다란 공지에 새로 일떠세운 고층 살림집 건설장이 다가왔다. 십층의 벽체조립을 끝낸 그앞을 지날 때 찌꺼붙여서 신방을 꾸리는 허민순네 집이 얼핏 머리에 떠올라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제 저 집이 다 되면 아홉세대를 받게 되었는데 세칸짜리에는 허민순네를 이사시켜야지. 단층집에 결살림처럼 신방을 꾸리게 해서야… 그런데 대현에는 무슨 일로 갔을가? 결혼식준비… 그래 오늘이 십일일장날이니까… 안차린다고 해도 왜 준비할게 없겠는가? 제때에 살피주었더라면 그런 걸음도 안건게 하는걸. 그러고보면 나의 무관심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지 않는가!)

가슴아픈 생각은 육신을 헤집으며 사무쳐들었다. 그의 이러한 빠져진 자책은 집에 돌아와 태평스레 밥상을 마주하고앉아있는 동식을 보는 순간 일종의 누를수 없는 분기로 되어 폭발하였다.

《야 동식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동식은 듬뿍 뜬 밥술을 국사발에 내려놓으며 쌍까풀진 눈을 커다랗게 치떴다. 날카로운 성미로 해서만이 아닌것 같은, 분기와 피로운 빛이 한시에 실린 아버지의 험상스러운 기상에 기가 질려버린듯… 그러나 그것은 잠간이었을뿐, 눈은 이내 의혹의 빛을 담고 껌벅거리었다. 그 천연한 태도가 리유갑의 부아를 더욱 돋구어놓았다.

《너 저먼저 견학단으로 갔다가 또 왜 자유주의를 부렸니? 하라는 견학은 하지 않고 고모한테 가있었다면서?》

동식의 눈에 알릴듯말듯 능청스러운 웃음이 스치였다.

《그럴 까닭이 있었어요.》

하고 대답하더니 국에 떠넣었던 밥을 입에 물아 넣고 불이 미여지게 우물거리었다.

리유갑은 어이없이 쏘아보다가 저렇게 배심이 좋으니 엉터리 수작을 부리고 돌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지저대여 왈카닥 분노를 터트리였다.

《그렇게 제멋대로 놀라구 너를 견학단에 보낼 줄 아느냐? 덜된자식!》

동식은 입속의 밥을 꿀꺽 삼켜버리고 불멘소리를 한다.

《아버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닥쳐라! 네가 하는것이 이 애비는 물론 허민순기대공의 얼굴에 흠칠을 하는 일이란걸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제가 허민순어머니를 모욕했다구요!》

동식은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얼굴이 경

악과 실망의 빛으로 검붉어지다가 원망의 불길로 타올랐다.

《아버진 허민순어머니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시니… 제가 분해요!》

울분에 깔린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고 동식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뿔 빠진 자식같으니라구.》

리유갑은 아들이 사라진 문쪽에 시선을 던지며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중얼거리었다. 원망서린 아들의 절규가 아프던 가슴을 흐뭇하게 하여주었기 때문이다. 허민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것은 바로 믿음의 표시인것이다. 아무렴, 큰 믿음은 자기를 바로 세울수 있는 량심의 모양으로 될터이니까. 이제 허민순만 지배인의 아들이라는사를 보지 않고 단단히 잡혀어준다면…

《여보, 어찌자구 애를 밥두 못먹게 그래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안해가 불만을 터놓으며 올라왔다.

《한끼 넘긴다구 죽지 않아.》

《당신두 참, 그저 옥박지르기만 하면 그 애가 말 들을줄 알아요?》

《실없는 소릴 그만두오. 눈무딘 애정이 자식을 무슨 꼴루 만들었는지… 이 편지를 읽어보우.》

리유갑은 주머니에서 누이의 편지를 꺼내어 안해한테 던지고 옷방서재로 올라가고 말았다.

레사로운 누이의 편지사연이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되어 이렇듯 마음을 흐려놓는 파문을 일으킬줄이야… 동식은 밤에 돌아오지 않았다.

잠을 설친 리유갑은 이튿날 출근길에 오르면서 오늘은 직장에 찾아가서라도 허민순을 꼭 만나보리라 속다짐하였다.

그런데 사무실현관앞에 허민순이 먼저 와서 서있지 않는가. 로년의 차림새로 회색 치마저고리를 입은 그는 손에 점심구력을 들고있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렇지 않아도 만나려고 하던참인데.》

리유갑은 허민순을 사무실로 이끌었다.

허민순은 영문을 알수 없어 서름한 빛으로 문옆에 점심구력을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쏘파에다가 앉았다.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셨됐어요?》

허민순이 먼저 이렇게 물었다. 지배인의 가정방문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리유갑은 큰 쏘파 가벽에 송구스러운듯이 걸터앉은 그를 지켜보며 이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잔 주름이 비긴 얼굴, 평생 로동으로 마디 굵어진 손… 양상하게 꺼져내린 저 어깨우에 자기가 너무 큰짐을 얹어주는것만 같아서 차마 아들에 대한 말을 꺼내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허민순네 가정사예로 먼저 말머리를 돌리었다.

《집에서 대사를 치르게 된다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허민순은 점직한듯 얼굴을 약간붉히며 대답하였다.

《일이 많은 지배인동무인데… 그래서 잔치날에 청하려고 했지요.》

《그거야 손님으로 오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전에 토론해야지요. 신부한테 보낼 레장감도 그렇구, 또 집문제랑두… 종이장도 맞들면 가법다는데…》

허민순은 고개를 수그리고 웃고름을 만지작거리다가 머리를 쳐들었다.

《우리 며늘애가 무슨 말을 하였는가본데… 량해 하십시오. 크게 걸리는게 있다면 내가 지배인동무를 찾아오지 않고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럼 갖출건 다 마련해놓았던 말입니까?》

《아무렴요.》

허민순은 리유갑을 안심시켜줄양으로 차근차근 말을 이어나갔다.

《응당 할 일을 했는데, 해마다 계획을 넘쳐했다고 안겨준 상품만 가지고도 자식들의 살림을 차려주기엔 넉넉하지요. 그래서 적당히 갖춰주고 제손으로 자기 살림을 꾸려가도록 하렵니다. 그래야 물건 귀한줄도 알구, 당의 은혜에 보답할줄도 알겠기에…》

《그 말은 옳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리유갑은 온갖 시름을 한시에 날려버리는것만 같은 가슴후련한 기분에 싸여들며 이렇게 수궁하였다. 그러자 허민순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더듬듯 깊은 감회에 젖은 얼굴로 말을 뿜다.

《정말 전후애야 배낭과 배낭끼리 만나서 살림을 이룩한셈이지요. 그래두 불편이란걸 모르구 공장일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희망에 넘쳐 살지 않았어요. 난 지금도 지배인동무를 대학에 떠나보내던 때를 잊지 못해요. 큰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나들이옷도 온전한 천으로 해입히지 못했으니… 그래두 지배인동무는 그저 기쁜 얼굴이었지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허민순이 자기의 저금통장을 몽땅 털어서 해준 새 옷이란 겨우 아사지로 지은 양복이었다. 사흘만 지나면 후령후령해지는 그것을 입고도 온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혼자 안은듯이 얼마나 나래돌린 마음으로 훨훨 날아다니었던가. 귀밀에 흰서리가 비끼기 시작한 리유갑은 그 피끓던 시절로 되돌아간듯한 감동에 휩싸여 허민순을 마주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허민순은 불시에 침통한 얼굴빛이 되어 눈앞의 한점을 응시하더니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지배인동무를 그때 그렇게 떠나보내놓고서 나는 얼마나 죄스러웠던지… 어머니가 살아있었

다면 어찌 내 손길에 비길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니...》

허민순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이 그렇게서 고개를 수그리었다. 불그레 상기된 불편으로 한 줄의 이슬이 그냥 줄을 그었다.

그것을 알아본 리유갑은 뜨겁게 치받치는 걱정을 이길수 없어 허민순앞으로 다가서면서 열정적으로 말하였다.

《그때의 일을 그렇게 알아주다니... 누님, 나를 지배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때처럼 거저 리유갑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유갑이, 우리 유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진정이 담긴 말은 허민순의 가슴속에도 새로운 걱정을 불러일으킨듯싶었다. 불편스레 걸터앉았던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리유갑의 손을 그러잡고 쳐다보았다. 간고하면서도 보람찼던 그 열정의 시대가 가슴뜨겁게 되살아오르는듯 젖은 눈길이 그윽히 부드러워지고있었다. 가는 주름살로만 에워싸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생기에 넘친 다정스러운 눈빛인가. 책을 떨어뜨린것도 잊고 헤뭇비며 돌아간 수리공의 책을 주어주면서 말없이 웃음짓던 그 정겨운 눈빛! 그러나 속일수 없는것이 세월의 자취인듯 우뚝하게 패인 눈확속에서 그 눈길은 뭔가 간절한 기대를 담고 조용히 빛나고있었다.

《그럼 어제날의 기대공누이로서 내 한가지 부탁하라고?》

《어서 말씀하십시오. 누님의 부탁이라면야...》
《...》

허민순은 대답대신 품속에서 차곡차곡 개인 종이장을 펼쳐서 리유갑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도면이었다. 공장의 해침공정과 소면,련조의 공정을 하나로 집약시켜놓은 착안! 아직 도해에 불과한것이지만 거기에는 현존하는 공정들을 뛰어넘는 발전된 방적공업의 미래, 바로 리유갑이 새로운 10만추 정방직장을 일떠세우면서 그려보았던 그 구상이 하나의 현실로 맥박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이걸 누가 생각해냈는가요?》

《동식이가 했다오.》

《...》

리유갑은 너무도 생각밖의 대답에 얼머름해진듯 덤덤히 허민순을 지켜볼뿐이었다.

《동식이가 했다는데우요.》

허민순은 레사롭게 웃어보이며 말을 잇는다.

《남달리 기계속을 알리고 파고들더니 저먼저 견학단에 따라가선 인민대학습당에 다니며 많은 책들을 뒤적였건가봐요. 돌아와서 머리속에 그려보던 생각을 이렇게 옮겨놓은걸 보면...》

(그렇다면 고모집에 가있은것은 인민대학습당에 다니느라고 그랬단 말인가?)

《내 보기에도 너무 엉뚱스러워 어제 대현의

공업대학에 가서 거기 선생님들에게 보이었던니... 이건 꿈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여야 할 현실이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자면 오늘의 발전된 과학을 배워야 한다는거지요. 뭐? 자동화공학이라고 하던지... 이젠 동식이를 그것을 배우도록 대학에 보내자요. 배워가지고 돌아오면 꼭 큰일을 할거요.》

리유갑은 순간적으로 전환시켜놓은 이 생활의 심중한 뜻을 똑똑히 판별해보려는데 뜻이 뚜벅뚜벅 방안을 걷기 시작하였다.

지난날에는 자기를 배움의 전당으로 내려쳐가게 하더니 오늘은 또 동식이를... 하는 생각이 들때 어제밤 허민순어머니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것이 분하다고 가슴치며 절규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그의 귀전을 때렸다. 그러자 동식이가 무슨 기술혁신을 한다고 공정파피를 일으켰을때 자기의 불찰로 여기며 안타까이 용서를 빌던 일이며 동식을 견학단명단에 꼭 넣도록 한것이며 허민순이 한 일들은 다 뜻깊은 행동으로 안겨왔다. 로동계급의 일본새로 동식의 가슴속에 큰 꿈을 키워준 그의 애바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랴...

허민순은 대답이 없는 리유갑을 근심스레 지켜보다가 간청하듯 다시 말을 잇는다.

《내 걱정은 마시오. 우리 둘째를 수리공으로 붙여준다면... 그 앤 동식이처럼 어물하게 큰 일을 못하겠지만 잔일엔 손끝이 여물어서 잘해줄거요. 동식이가 배우고 돌아와서 공정을 개조할 때에도 한몫 할거구...》

리유갑은 우뚝 발을 멈추고 허민순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눈굽이 확 달아올라 자제하듯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었다.

《그럼 됐어요.》

허민순은 시름이 놓인듯 안도의 숨을 내쉬고 돌아섰다. 그런데 목적을 이룩한 흥분으로 하여 문열에 세워놓은 점심구력을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걸 가지고가십시오.》

리유갑은 문밖에 따라나가며 점심구력을 넘겨주었다. 그 순간 어제 허민순의 머느리와 한 약속이 피곳 머리에 떠올랐다. 이젠 시어머니를 쉬도록 하여달라던 간절한 당부... 그러나 리유갑은 그 말은 입밖에도 내지 못하고 방안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나로선 할수 없는 일이다. 어제도 오늘도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있는 허민순의 깊은 마음, 로동계급만이 간직할수 있는 그 뜨거운 량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으로 방조하는것으로써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고 하였으니... 어리석었지.)

리유갑은 빠져런 생각을 하면서 창가에 다가섰다. 정원의 가로수 사이로 구내길에 나서는 허민

순의 모습이 보이였다. 교대작업을 나오는 방직 공들이 저마다 허민순을 반기며 인사한다. 달려와 안기듯 그의 팔을 잡고가는 처녀도 있다.

한때 누이도 저렇게 존경과 사랑속에 공장출근길에 올랐건만... 하는 생각이 들자 리유갑의 머리에 누이의 편지사연이 되살아났다. 딸의 결혼식걱정, 고급솜의 해결, 동식을 마음놓고 놀려다니지 못하게 하였다는 지청구... 생활의 잔근심과 세태적인 인정속에 묻혀버린 누이라는 생각이 들자 육친의 뜨거운 정으로 안겨오던 그 모든 사연들이 변색해버린 그림처럼 서운하게 여겨지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 소원해지는 감정을 메꾸어주듯 방직 공들속에 싸여가고있는 허민순의 모습은 얼마나 친근하게 안겨오는지... 친혈육보다 더 미더운 공장의 기둥! 공장의 모든 사업을 거기에 의거하여 해나간다면 새로운 200 일전투의 승리는 물론, 더욱 현대화된 공장으로 발전하는 길도 앞당겨올 수 있을것이다.

허민순의 모습은 이미 시야에서 벗어나갔지만 리유갑은 가슴벅찬 상념에 싸여 창가에서 돌아설 줄 모르고있었다.

건설의 밤

림성희

대동강 물결우에 고이 내리어
밤하늘의 못별들도 함께 노니네
뜨거운 건설자의 눈빛인듯
꺼질줄 모르는 건설장의 불빛들과

저 멀리
아기의 요람가에선
고운 꿈과 함께 흐르는 행복한 이밤
잠을 깬 그 눈망울들앞에
더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을 펼치려고
잠들줄 모르는 룡라도의 밤

붉게 타는 노을과 함께
서둘러 새벽창문을 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뜨겁게 새겨지리
이 땅에 조용히 흐르지 않는
시대의 들끓는 숨결이
저 불빛과 함께 가슴가득 차오르리

밤은 결코 짧지 않아라
밤은 결코 조용히 흐르지 않아라

래일을 불러
미래를 불러
들끓는 조국의 숨결높은 이밤
세월을 뛰어넘어 비약하는
조국의 하루하루여

이밤도
열흘을 앞당겨
한달을 앞당겨
기적같은 위훈이 태어났으니
밤,
밤은 결코 짧지 않아라

허나 아쉽구나
밤이 새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것이
우리의 진한 땀방울에
거창한 로동의 열매가 주렁저도
미래를 창조하는 건설자의 가슴엔
세기를 비약하는 위훈의 한밤이
너무도 순간같아!

◇방문기◇

북변의 기적소리 외 2 편

리정술

차창을 흔들며
길게 울려오는 기적소리
내 가슴에 여울치는
북변땅의 기적소리...

아침저녁 집앞에서 듣던
철차의 기적소리
어찌하여 이 북변땅에선
이 내 심장을 뜨겁게 치는가

아, 레사롭게 들을수 없는
기적소리여
무심히 지나칠수 없는
차굴과 교각들이여

애어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한알두알 골라 편 자갈들이
내 앓은 차창밑에서 궁구는듯
험한 령길로 메나른 침목들이
내 몸을 흔들어주는듯

아스라한 절벽
돌기돌기 쌓아올린 웅벽들에
그 손자욱 남아있는것 같고
얼음까고 뛰어들던 그 모습들이
저 다리목에 웃는것 같아서...

보고싶던 그들의 손을 잡고
나는 목메여 이야기했네
령하 40 도의 혹한을 이겨내며
청년들이 싸워온 그 나날들을
지도자동지께서 다 알고계신다고...

그 어느 소설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니
작가들이 나가 글을 쓰라고
뜨겁게 뜨겁게 말쑹하셨다고...

그러자 잠시
승엄한 정적이 흐르더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목메여 흐느끼며 조용히 말했네

하나, 둘...
차굴과 다리를 세여보다가
그만해야 더는 못세고
내 차창가에 기대여 목메는것인가

아, 뜨거운 눈물없이
타고 갈수 없는 기차길이다
자갈 하나
흙 한줌이라도 떠놓은것 없이는
편히 앉아갈수 없는 길이다

꽃나이 청춘들이
구슬땀을 바쳐
몸으로 심장으로 이어놓은
북변땅의 룡백삼십리 새 철길
바친 땀방울 얼마나 값높고
바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순간도 잊지 말라 깨우쳐주며
저 기적소리도 고동높이 울리거니

기적소리여, 너는
새 역전에 들어선다고 알려주는
반가운 고동소리만이 아니구나
북부철길을 건설한 청춘들의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알려주는 고고성이구나

믿음

-그이께서 알고계시면
우린 더 바랄것이 없어요
지나온 간고했던 나날들이
더없이 영광스러운걸요...

그리고는 저마다 눈물 훔치며
조용히 삽들을 메고
철길 로반을 향해 걸어나갔네
걸음 걸음 침목우에
뜨거운 이슬을 떨구며...

아, 무엇을 더 말하랴
믿음과 사랑을 목숨처럼
고이 지킬줄 아는
저 뜨거운 눈물앞에...
저 불타는 눈빛앞에...

청춘과 사랑

북변땅의 새 철길-
달리는 차창에서 눈길 못떼고
이십대의 청년돌격대원은
속삭이듯 나에게 이야기한다

저 굽인돌이를 지나면
이제 《오가산차굴》이 나진다고
차굴을 지나면
《천리길 청년다리》가 이어진다고...

차굴의 길이는 얼마이고
다리의 높이는 얼마이라고
목책을 보지 않고도
스스럼없이 말한다

산의 생김새와
강물의 수심에 대하여
조용히 눈을 감고도
보는듯이 이야기한다

아, 한치한치에 더운뎃을 뿌린
추억많은 고장들이여서
돌격대원이여 그대는

눈감고도 그렇게 잘 아는가

엄동의 설한에 교각을 세우던
그 발자취가 남아있어
폭우에 온몸이 젖으며 메나르던
그 침목들이 로반우에 깔려있어

이 북변땅 생소하던고장이
청춘, 그대의 생애에
그리도 사랑스러운것인가
차창밖에 지나가는 새 역들이
제 고향 이름처럼 정다운것인가

아, 인생에 이런 자취 없다면
그 무슨 살뜰한것
그 무슨 사랑스러운것
그 무슨 귀중한것이 있으랴

조국에 바친 자옥이 있어
돌격대원이여, 그대는
오가산의 바람소리도 노래로 듣고
십리길 차굴도 기쁨속에 지나는가

남해가 해녀의 노래

박필규

내 어머니도 해녀였고
나도 해녀라오
어머니 부르던 노래
나도 부르다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은 밝은데 연자 버리고 갈거나》

이 노래 들으며 떠났다고
임진년에도 을사년에도
한산섬 격랑에 피끓이며
대장부들 왜놈치러 떠나갔다고

한나산 마루에 항쟁의 횃불 타오를 때
죽창을 비껴들고 떠나는 님을
그 노래 부르며 바래주었다오
오늘도 그 노래 부르며 떠나보내오

군화자옥 량자한 서귀포기슭
판치는 양풍 왜책 웬말이뇨
침략의 검은 구름 짙어만가는데
수모받고 부지하는 목숨 무엇하랴

아 떠나시라 사나운 매와 같이
민주의 화원을 꽃피우고
통일의 복소리 울리며 돌아오는 배길에
《오돌독이》 부르며 맞이하오리!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은 밝은데 연자 버리고 갈거나》

주해: 《오돌독이》-남해가에서 널리 불리우고
있는 민요
연자-사랑하는 님이라는 뜻

대동강흐름

박은향

대동강! 대동강...

평양의 유구한 역사를 비껴달고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만경대를 감돌아 흐르고흘러 온 조선의 강!-

누구에게나 그런 사연이 있듯이 대동강은 나의 생의 시작점으로부터 삶의 창창한 활주로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한시도 떨어질수 없는 어머니강, 부모들이 걸어온 자욱파도 한번도 흐름을 달리한적 없는 이 대동강에는 나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옛이야기가 있다.

대동강가에 태를 묻고 물때오른 조그마한 매성이우에서 잔뼈를 굳힌 우리 외할아버지는 대동강의 성실한 배사공이었다. 할아버지는 폭우가 쏟아져내리던 여름날 거적문을 나신후 쓰러져가는 이 초막집에 다시는 돌아오시지 못했다.

온 집안의 명줄인 떠내려가는 나루배를 건지기 위해 범람하는 강물에 뛰여든 할아버지는 흘러가는 대동강과 함께 영영 떠나가셨던 것이다.

나라를 빼앗기고 산도 강도 다 우리것이 아니었으니 대동강인들 어이한단 말인가. 그러기에 나의 어머니는 대동강에 무지개다리를 건설할 때 아직 말 못하는 젖먹이딸을 잠재우고 녀성돌격대원으로 옥류교 건설장에 달려나가군하였다.

할아버지의 피눈물, 어머니의 구슬땀이 깃든 대동강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행복만을 알고 있는 철없는 이 가슴에도 영원히 지울수 없는 추억을 안겨주었다.

우리 집뿐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간직된 하많은 이 사연으로 흘러온 대동강의 푸른 물결! 허지만 이제는 대동강에서 그 흐름을 더는 볼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장을 울리는 말씀이신가.

어제도 오늘도 대동강을 건널 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대동강의 이 놀라운 전변은 날이 흐를수록 새로운 생각을 더해주다.

오늘아침 일찌기 출근길에 오른 나는 학창시절의 양동무와 함께 옥류교에 들어섰다. 그와 나의 소꿉시절이 흘러간 대동강을 함께 걷고싶어서였다.

서해 100리물길공사때 3대혁명소조원이었던 그는 이길로 그곳 황해남도의 새 물길공사장으로

떠난다.

옥류교에서 내려다보니 대동강은 언제 흘렀던가 싶게 영원히 멈추어섰고 푸른 물은 대호수로 출렁인다. 옥류교우에 우리의 발자욱이 늘어갈수록 흐름을 멈춘 대동강에 대한 생각뿐이다.

거대한 이 대동강을 이렇듯 멈춰세운 서해바다우에 거연히 솟은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 서해갑문을 두고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던 이런 기적이 대동강에 얼마나 많이 깃든것인가.

대동강에 전변의 새 역사를 펼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오늘의 현실로 꽃피워주려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참으로 보람찬 투쟁의 길을 이어왔거니, 수많은 갑문들과 그리고 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끊임없이 행복의 빛을 보게 하는 발전소들이 세워졌고 대동강 변두리에 일떠선 도시들과 집집마다로 뻗은 수도관으로 대동강이 생명수되어 흐르게 되었다.

참으로 대동강이 우리 인민의 진정을 담아 흐르던 해방의 그날로부터 《옥류교》의 금빛글자가 새겨지던 그때를 이어 대동강에 쌍분수가 솟구치던 그 시각에 이르기까지 거창한 창조의 바다, 사랑의 바다로 흘러온 이 력사가 저 맑은 물에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년 월 그리 생각하니?》

내옆에서 묵묵히 걸던 양동무에게 내가 물었다.

《음, 대동강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있어!》

그의 뜻밖의 말에 나는 그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나의 의혹을 풀어주려는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생각나니? 우린 봄이면 늘 선생님과 함께 이 다리로 해서 저 통라도에 들놀이갔었지. 인민학교때말이야. 우린 그때 참 겁쟁이들이었지... 깊고깊은 도도한 이 강물을 보며 모두 무서워들했으니까... 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난 우리가 열어놓은 그 서해 100리물길로 이 대동강물이 흘러들 때 너무 반갑고 정다워 물에 뛰어들어 막 울기까지 했구나... 대동강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새 길을 따라 흘러왔다고 웨치면서 말이야.》

양동무의 그 말은 나의 가슴을 쳤다.

대동강흐름! 그렇다. 대동강은 결코 흐름을 멈춘것이 아니다. 새로운 궤를 따라 뻗어가는 대동강은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영웅적 위훈을 빛내온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정신을 담아내고 협

동별마다로 흐르고있는것이 아닌가.

어제는 대동강을 멈춰세웠고 오늘은 또 대동강을 새곳으로 흐르게 한 로동당시대의 인민들, 대동강의 새로운 위대한 전설을 아로새긴 우리 시대에 대한 생각으로 나의 생각은 벅차올랐다.

《어서 가자! 우린 빨리 가야 해! 난 또 새로운 전투장으로 떠나. 새 간석지로 대동강물을 끌어가야 하거든! 우린 락원의 정신, 기양사람들의 일본새로 또다시 물길공사를 해제낄것을 맹세했어. 어서 가자. 벌써 출근자들이 나타났어!》

양동무는 나의 손을 잡아끌며 힘있게 걸음을 내 짚었다.

옥류교에 흐르기 시작한 평양사람들의 물결-천리마의 정신으로 속도전의 정신으로 살며 싸워가는 우리 근로자들, 출근자들이 무리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언제보나 옥류교로는 전부 걸음을 빨리하는 사람들만 들어서는데는 것 같다.

《어서 갑시다》, 《빨리 가자요.》이라며 우리를 쫓쫓 앞서는 이들속에는 서해갑문 건설에 참가했던 건설자들도, 대동강발전소를 일떠세운 사람들도, 대동강유보도를 쌓은 영웅도 있을것이 다.

모든 사람들은 걸고있는것이 아니라 구령이라도 받는듯 뛰고있다. 일터로 건설장으로 뛰고 또 뛰던 그들의 흐름이 여기에 그대로 옮겨왔는가.

대동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즐기찬 물결, 정

녕 이것도 하나의 거세찬 흐름이 아닌가! 누구도 떨어질수 없고 멈춰서서는 안될,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만 하는 이 물결!- 이 흐름에는 거세차고 절절하고 뜨거운 지향이 그대로 흐르는것이다. 새로 개통된 저 립체다려- 룡라다리에도, 북부를 한선에 꿰지르며 달려오는 북부철길 건설장에도 이 나라 방방곡곡 이런 물결이 흐르지 않는곳이 그 어디인가.

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달리려는 이 마음-당과 수령의 구상을 꽃피우며 일심단결의 기치밑에 전진해온 우리 인민의 흐름! 이것은 대동강반에 주체사상탑이 뿌리깊이 내린 영원한 영웅조선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진정 대동강은 영웅적 인민의 진군과 더불어 도도히 흐르고있다. 하기에 대동강! -불멸의 강 너는 흐름을 멈추어 서해바다로부터 서해벌로 흐름을 바꾸어온 전환과 투쟁의 전통을 이어,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힘있게 받들어가는 우리의 위훈과 함께 이 땅의 거창한 전변을 후손만대에 전하고전하며 영원히 흐르리라. 당과 수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오늘에 이어 래일도 우리 조국을 새롭게 변모시켜가며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인민! 백두의 위대한 정신으로 변혁의 나날을 끊임없이 이어온 전진하는 우리 인민과 더불어 대동강흐름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뜨겁게 이어져갈것이다.

세월과 인생

서진명

세월이 빠르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도

그 목소리에 비끼 마음

서로 다르더라

한결같이 금지에 넘치더라

한생의 목표를 향해

뜨겁게, 바빠 산 사람

세월의 급류에

산을 떠신고온 사람의 음성은...

허나 세월의 물결에

신고온것 적은 사람

값없이 흘러보낸 세월을 두고

한숨을 짓는 사람도

우리들속에 없지 않거니

물처럼 세월은 흘러가도

물처럼 흘러보낼수 없는 한생

그 한생의 목표를 향해

벗들이여

너나없이 심장에 불을 달자

가버린 세월을 두고

허구프게 웃는

생활의 락오자

헛살은 인생이

우리들속에 더는 한사람도 없게...

내나라

김창근

눈물짓는 마음

상기도 그 창가에 서시여
나를 보시는것만 같아
한걸음 두걸음 충계를 내리다
간절히 그 창가를 우러릅니다

오길 잘했다고...
멀리에서 고생이 많았겠다고
이 손을 잡으시고 따뜻이 하신 말씀
얼음버께 앉았던 이 가슴에 후더워
건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김일성원수님! 못가겠습니다

살수 없어 내 살수 없어
버리고 떠났던 조국인데
백두의 깊은 눈길
다 헤치시여 찾아주시고
가난이 서럽던 이 강토에
별천지의 락원을 펼치신 수령님!

어디서나 보았습니다
조국의 만년대계 대들보를 세우시려
눈내리는 철의 구내 걸어가신 그 자욱
알찬 열매를 무르익히시려
비뿌리는 포전길 밟으신 자욱자욱

보았습니다
민중을 이끄시는 그 손길이 닿아
만방에 세계강국을 펼치는 내 나라를

백발을 엮고 왔다
떠날 때 그 더벅머리에
타향에서 오리오리 백발을 엮고
조국아 내 이제야 왔다

가난해서 못살고 떠났던 몸이

봄별같이 따사로운 그 미소가 어려
희망의 노을을 안고 사는 내 겨레를

미운 자식 없다고
인생의 허물있는 사람들도 믿어주시며
천만자식 슬하에 불러주시는
그 품에서 알았습니다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국사가 그리도 찬란하고
내 민족이 그리도 위대함을

충계를 내리웁니다
한걸음 두걸음 충계는 내리여도
이 가슴에 높아만지는
내 마음의 충계는
수령님의 품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양의 세찬 파도
물을 향해 달려오듯
만민이 우러르며 달려와 안기는
아, **김일성**원수님!

민을데 없어 저희들 하늘을 믿었더니
수령님은 우리 마음의 하늘이십니다
위인중의 위인이시웁니다
우리 배달민족이 안겨살아 자자손손 복락할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조국이십니다

조국아!

머나먼 세상길 에돌아
인생의 저물녘에
너를 찾아왔다

내 어릴적 미역감던 맑은 시내가
쑥대끝에 거미줄 감아들고

맨발벗고 잠자리 잡던
그 동쪽길은 어데 있느냐

아버지 손에 이끌려
떠나며 뒤돌아보며 눈물머금고
노란 민들레꽃 마지막으로 꺾어들던
그 언덕은 어디바루냐

이국의 하늘아래
거기에도 꽃은 있건만
두고온 고국산천 그리는 마음에
향수를 불러주던 그 민들레꽃
아 못잊었다

머리의 흰서리 쓸어만지며 -
조용히 창을 열고 아득히 더듬으면
함께 놀던 소꿉동무

하얀 구름 곱게 피던
파아란 동심의 하늘이 그리웠다

그리워 찾아왔다
거기에도 땅은 있고 물이 있건만
평생을 살아도
남의 나라 산천은 낯설어
배고프지 않아도
이 몸은 타향에 흐르는 나그네...
아아, 이국은 조국이 아니었다!

조국아! 내 조국아!
타향에 흐르던 나그네 몸이
백발을 엮고 왔다
살아 그 민들레 보고싶어
죽어 벗어나고 싶어도

동갑이

송아지적 다정한 벼를 만났건만
말없이 걷는다고 나무람말아다오
이국살이 수십년이 흘렀다 해도
우정만은 아껴둔 마음이란다

수수대 꺾어 말놀이 하며
한입씩 강낭떡도 나누어먹던
동갑이, 그대는 기뻐서 말해도
나는 그저 즐거울수만 없구나
그대가 나에겐 쳐다만보여-

덤불속에 산딸기 숨어있던 동산에
그 손으로 파원을 일구었던말이지
버섯같은 오막살이 돌아있던 마을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저 집들을
그 손으로 지었던말이지

이 몸이 타향에서 나를 위해 달릴적에
그대는 고향을 꽃으로 피웠구나
죄스럽다
고향을 위해 돌하나 못고이고
꿈같은 이 땅을 밟음이

한마을에 태어나
아래도리 벌거벗고 갈껌하던 동갑이
그대와 나 먹은 나이 같아도
조국앞에 고향앞에 바친 생이 서로 달라
그대와 나 동갑이가 아니구나

밤거리

불어오는 밤바람도
조국의 바람이어서 어허- 시원하다
앞단추 두어개 열어놓고
발길 닿는대로 밤거리를 걷는다

아기안고 마주오는 젊은 너인의
행복에 젖은 그 모습
취한듯이 바라보고 또 본다고
이 늙은이 책망일랑 말아다오

웃음소리 흐르는 저 아늑한 창가마다
층계를 밟아올라 다 문열어보고싶다
나무아래 앉아있는 저 청춘들을 찾아가
꿈만갈을 래일을 축복해주고싶다

주책머리 없다 웃지를 말아다오
마냥 젊은이들처럼
나무잎 한줌 훑어 강물에 휩 뿌리며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부르며 걷는다고-

걷고만싶다-
판나라 거리에선 밤이 무섭더니
사람들이 다 혈육같아서
밤에 사람을 만나도 무섭지 않은 거리

이밤이 지새도록 걷고만싶다
내 나라는 낮도 밤도 다 좋아
어둠은 질어가도 마음이 밝아지는
아, 내 조국의 밤거리!

분계선앞에서

내 여기서는
그대로 지너들수 없다
이국만리 타향에서
심중에 좌우명처럼 새겼던 그것-
편견을 말라고
세상이 소란하니 너 하나를 지키라고
되이며 되뇌이며
한생을 간직해온 그 《랭혹한 이성》을...
그렇다
보화같은 내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저 저주로운것이 아니었던면
이렇듯 거래의 아픔이 없으리니

오 분계선
저 녹썰어버린 가시철조망에
나는 그것을 버린다 평생을 지켜온 《신조》를,
마음아
모든 사사로움이 잦아들고
오직 서리발같은 분노만이 솟구쳐
묵묵히 묵묵히 분계선 바라보며
거친 숨 몰아쉬는 마음아
저 철조망과 그 너머 미군병정
불달구어 태워버릴 그날까지
그 불길 꺼지지 않을 내 마음아

희망에 대한 생각

리승두

생활에는 때로 레사롭게 느껴지는 너무도 자명한 리치를 놓고 뜻밖에 심각해지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때가 있다.

청년들의 희망을 놓고 나는 그렇게 심각해졌던 때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며 그것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싸우는것은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춘시절과 희망-그것은 떼어놓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해야 할것이다. 과연 희망이 없는 청춘시절이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자기에겐 희망에 대하여 별다르게 생각한것이 없다고 말하는 처녀를 만난적이 있다.

몇년전에 공장에서는 주요대상설비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혁신자들에 대한 국가수훈이 있었다.

공장과 함께 일생을 살아온 제관공들과 선반공들, 손꼽히는 고급기능공들과 혁신자들이 주석단 앞에 나와섰다.

그들중에는 얼굴이 가름하고 몸매가 호리호리하게 생긴 스물한살에 난 주물직장의 조형공 김련옥이도 끼여있었다.

수많은 수훈자들중에 나아린 처녀가 선것으로 하여 그는 관중들의 눈길을 끄는듯했다.

요란한 박수갈채가 일었다. 수훈자들의 얼굴은 방금 수여받은 훈장으로 하여 더욱 환해진듯싶었다.

처녀의 얼굴은 자신의 노력을 것처럼 값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당의 품에 대한 감사의 정이 어리고 속눈썹이 짙은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련옥이!》

그날저녁 나는 그를 놓고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그가 바로 자기에겐 남다른 희망이란 없고 그런 까닭에 오늘의 생활이 자기가 바라던것의 전부인듯한 인상을 준 그 처녀였다.

그에게도 남다른 희망이 있을텐데... 리상과 포부, 꿈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것처럼 높은 오솔의 경지에 오를수 있단 말인가?

나의 생각은 직장에 갓 배치되어왔던 단발머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갓 배치되어온 젊은이들속에 얼굴이 가름하고 까만눈이 늘 조용

히 웃고있는 처녀가 있었다. 그가 바로 김련옥이었다.

그는 매일 남먼저 출근하여 교양실 안팎을 운이 흐르도록 쓸고 닦았고 자기가 맡은 기대청소를 알심있게 해놓곤했었다. 때로는 직장앞에 꾸러놓은 꽃밭에 희귀한 꽃을 따심기도 했고 어디 서주어왔는지 하나같이 곱게 생긴 조약돌을 가져다 번두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마치도 그는 오래 동안 떨어져있던 고향집에 돌아온 자식처럼 직장을 꾸리고 거두었다.

그는 말은 일도 책임적으로 해제꼈다. 언제나 매일 계획을 초과수행했고 오랜 기능공들의 일손을 방불케 할 지경으로 그의 제품은 돋보였다. 그의 기능은 날을 따라 늘어났고 일욕심도 컸다.

조형작업을 할 때면 그가 꼭 조형공으로 세상에 태어난듯싶을 지경으로 그 일에 열중했다.

긴 속눈썹을 살쾅이 내려뜨고 입귀가 꼭 맺히곤 했었는데 어찌나 열중했는지 옆에 사람이 가도 느끼지 못했다. 치차이발같이 정밀한 제품을 조형할 때면 마치 도자기공예사가 정교한 도자기에 아름다운 꽃을 새겨넣는듯싶었다.

어느날 나는 남다른 뜻과 포부를 지닌듯싶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련옥동무, 동무는 무엇을 희망하오? 아마 남다른 포부를 지니고있겠지.》

《예?...새삼스럽게 물으시네. ... 전 희망에 대해서 별다르게 생각한적은 없어요. 조형작업을 하고 기계를 만드는 이 생활외에 더 바라는것이 없어요.》

처녀는 방긋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 더 바라는게 없다니?》

나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글쎄... 없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남다른 특출한 희망이란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게 제일 좋지요 뭐... 그러니 그렇게 말할수밖에...》

나는 실망했다. 청춘시절에 남다른 희망이 없이 살다니?... 희망이란 아름다운 꿈이고 생활의 목표인데 어떻게 그것이 없이 청춘시절을 꽃피울수 있단 말인가?

나는 어쩌면 이 처녀가 리상도 포부도 없이 그날그날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는 숙맥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 저렇게 귀엽고 알뜰한 애어린 처녀가 그럴수는 없을것이라고 머리를 흔들기도 했

다.

어느날 나는 어느 단기강습에 참가하느라고 며칠간 공장을 뜬 일이 있었다. 사흘째되는 날, 새로 나온 영화감상까지 하고나서 늦게야 집에 돌아가니 뜻밖에 련옥이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아니 련옥동무가 어떻게?...》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옆에 놓인 가방에서 종이장을 꺼내었다. 그것은 기계부속도면이었다.

나는 도면과 처녀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공기함마 압축기시린다는 복잡한 제품이었던것이다.

《저,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데... 저에게 말했으니 도움을 받자고 왔습니다.》

처녀의 얼굴엔 그 어떤 불안과 자신심과 긍지가 교차되고있었다.

이 처녀가 이런 복잡한 제품을 해낼수 있을까?... 아니 해낼거야. 그러나 만일 오작이라도 나면...

도면을 든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호기심과 자신심이 어려있는 그의 눈빛에서 그가 능히 해내리라는 믿음으로 기울어졌었다.

나는 종이장을 펴놓고 압축기시린다 조형작업 공정도를 그려놓고 설명했다.

《알만하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처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2 중통기도를 보장해야 하오. 여기에 비결이 있소.》

나는 다짐하듯 다시 강조했다.

처녀는 돌아갔다.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쩐지 그를 믿고싶었다.

며칠후 나는 강습이 끝나서 공장에 돌아갔다.

공장에 들어선 나는 그 제품부터 찾았다.

나는 놀랐다.

벌써 선반에서 가공까지 해놓은 그 제품은 말 그대로 흠잡을데 없이 훌륭했다. 어쩌면 그가 이처럼 조형작업을 잘했단 말인가?

《련옥동무, 수고했소. 아주 훌륭하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저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안됐을거예요.》

처녀의 얼굴엔 질은 흥조가 어렸다. 그리고 속눈썹이 질은 영채도는 까만눈엔 행복이 깃들어있었다.

위훈의 나날속에 처녀는 공장의 손꼽히는 기능공으로, 혁신자로 자라났고 오늘은 국가수훈의 영예까지 안겨졌다.

나는 저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졌다.

...그 처녀의 희망은 무엇이었던가? ... 희망은 생의 목적이고 행복이여서 희망을 실현하는 그 길에선 그 어떤 시련도 뚫고나가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와 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쳐간다는데... 과연 그에게 생의 숭고한 목표와 리상이 없단 말인가?... 아니다. 그의 가슴속에 누구보다도 희망이 높뛰고있다.

지금 그가 땀흘려 창조한 그 모든 위훈의 창조물들은 바로 처녀의 기쁨이였고 행복이였으며 생활의 꿈이였다. 그는 벌써 꽃피는 희망속에 살고 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구상을 꽃피워가는것, 그 길에서 청춘을 꽃피우는것, 이것이 그의 꿈이였고 리상이였으며 희망이였다.

나는 희망에 대한 나의 개념과 그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막연했던가를 새삼스레 느꼈다.

희망이란 결코 뛰어난 재능이나 타고난 천성을 바탕으로 하는 범속한 먼 장래의 목표가 아니였다.

수많은 청춘들이 석수가 쏟아져내리는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암벽을 밀어가고있는것도, 흑한속에서 뜨거운 심장의 열도로 몰탈을 녹이며 청춘언제를 쌓아가는 위훈도, 아스라한 철탑우에서 용접의 불꽃을 날리며 80년대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기적도 가슴속에 것처럼 크나큰 희망을 간직한 세대들에 의해서 태어나고있는것이 아닌가.

평범한 생활속에서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줄은 모르지만 그렇듯 뜨겁고 열렬한 희망을 안고 사는 처녀, 꽃피는 희망속에 사는 련옥이의 모습을 나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싶었다.